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서울시 대표적인 여성정책인 여행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일, 돌봄, 넉넉함, 안전, 편리 5개영역에서 9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행 프로젝트는 최초의 지역 정부 여성정책이자 도시 공간 문제를 도입한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여 여성정책의 지평을 확대하고 여성의 일상적 삶에서 체감하는 실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 여성정책으로서의 의의도 크지만 사업 초기부터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였다. 첫째는 여성을 위한 도시 공간정책의 기준과 내용이 정립되지 않아서 여행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는 여행 프로젝트 사업으로 90개 과제가 제시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충실치 않아 사업 효과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시민 조사에서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도나 체감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여행 대표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도시 여성의 불편, 불안, 불쾌 요인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였다. 여행 프로젝트의 기준은 ‘여성을 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되 경우에 따라 수혜대상이 여성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다(2009. 3. 서울시여성가족정책관 내부자료). 이를 통해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 공간에서 여성들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해결하는 정책이자 여성의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여행 프로젝트 정체성 확립에서 도시 여성의 불편, 불안, 불쾌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불편함에서 오는 것인지 여성들의 차별적인 사회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것인지를 규명하지 않았다. 이는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 공간에 한정된 정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도시 여성정책 전반을 포괄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범주에 대한 고려도 미흡하였다. ‘여성’ 내에 다양한 차이들이 있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여성을 지칭하였다. 이는 도시 내 여성들은 동질적이라고 상정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방식은 결국 여성들 중 ‘이성에 핵가족

내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게 된다.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을 전 시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여행 프로젝트 체감 도를 높이고자 「여행 인증제」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 4월 1차로 총 435건의 화장실과 주차장을 평가하여 기준을 통과한 88개소 시설에 대해서 여행 화장실과 주차장으로 인증하였다. 하반기에는 화장실, 주차장 대상으로 2차 인증을 하고 여행 길, 여행 공원, 여행 아파트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행 시설 인증 평가사업은 여성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시 공간을 여성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고 시설의 기준을 제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 공간 개선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타임지에서 서울시 여성정책을 '하이 힐 친화적' 정책이나 '핑크 빛 주차장'으로 보도하는 것도 이러한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2009. 8. 9 인터넷 판).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여성정책으로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이는 여행 프로젝트와 유사한 도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행 프로젝트가 보다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여행 프로젝트가 직면한 정체성의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여행 프로젝트가 시정의 책임자가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시정 최고책임자의 관심과 지원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 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는 성공적인 성주류화 정책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도시 정책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가 추진된 지 3년이 지나고 있다. 많은 성과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친화적인 도시 정책으로 정착해야 할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가 시정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제도화 그리고 시민참여의 세 가지 축이 확고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여성 친화도시 정책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여성친화 도시 정책으로서 여행 프로젝트의 목표, 기본원리, 추진방향, 정책 영역/범위를 확립하여 이론적 자리 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성 주류화 정책으로서의 여행 프로젝트의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모든 도시 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조례·법을 제정하고 여성의 시정 참여 절차를 구축하여 성인지적인 도시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는 일반 여성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단위로 여성들이 참여하여 도시 생활에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지역 정부가 이들

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체계가 확실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이론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새로운 이론 틀 확립 및 정책 과제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여성친화 도시 정책 이론들을 검토하고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서울시 여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여행 프로젝트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및 구성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이론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도시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국내외 여성친화도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평등권과 도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 여성정책의 비전, 원리, 영역을 제시한다.

둘째는 도시 여성의 다양한 정체성을 다루어야 할 필요와 범주화 방식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 생활에서 여성 내 차이를 유발하는 이론을 검토하여 서울시 여성의 다양성을 다룰 수 있는 범주를 도출한다.

셋째는 새롭게 정의된 여성친화도시 정책 틀에 따라 다양한 도시 여성들의 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집단별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여행 프로젝트의 향후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이다.

첫째는 기존의 여성친화 도시개념을 검토하고 대도시 여성의 지위 향상 및 도시권 제고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재 개념화한다.

둘째는 도시 여성의 다양성 이슈제기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고 서울시에 적합한 여성다양성 범주를 도출한다.

셋째는 다양한 여성 집단 범주별 도시 생활 경험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넷째는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도시여성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다섯째는 이러한 틀에 따라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 사업 90개(기존과제 60개, 신규과제 30개)를 여성범주별, 사업영역별로 점검하고 분석한다.

3. 연구 절차 및 연구 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문헌연구이다. 본 연구는 여성도시 정책을 이론화하는 것이므로 문헌연구의 비중이 크다. 문헌자료는 여성친화 도시 개념화를 위해 국내외 여성친화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개념들을 비교분석을 하였다. 페미니스트 공간지리학 분야와 문화 지리학, 후기구조주의 여성학 관련 국외 문헌들을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둘째는 서울시 여성 대상으로 초점그룹 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서울시의 다양한 여성들의 도시생활 수요조사를 위해 15개의 대표 집단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FGI 조사를 시행하였다.¹⁾

조사는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수행하였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집단별 특성에 적합한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내용은 각 집단별로 일자리, 생활경제, 일/가정 양립, 돌봄, 여가·문화, 건강, 안전, 주거, 대중교통, 주관적 행복요소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는 집단별, 영역별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셋째는 전문가 자문회의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일종의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학, 도시정책, 여성정책, 도시 디자인,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여행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회의단」을 구성하고 여성친화 도시정책 개념 틀, 여성의 다양성 범주화, 다양한 여성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하였다. 전문가 자문이 더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추가로 서면자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회의 참석자 및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사는 서울시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시행한 조사이다. 조사는 오즈리서치에서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2차 분석을 하였다.

□ 제 1차 여행 프로젝트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회의

○ 일시 : 2009년 9월 15일 10:00~12:00

○ 장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안건 : - 여성학적 관점에서 여행 프로젝트 위상 재정립
- 여성친화도시 이론화(안) 검토 및 수정 보완
-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각 분야별 의견 수렴

○ 참석자 : 외부전문가 14인, 재단 3인

장 남식(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권 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 영선(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 연구교수)

김 용복(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민 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현경(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서 영주(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신 경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명선(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 진민(숙명여대 디자인학부 교수)

임 승철(서울시 여성행복도시팀)

장 필화(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공동 책임연구원)

정 영애(서울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전 부총장)

조 영미(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가나다 순)

□ 제 2차 여행 프로젝트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회의

○ 일시 : 2009년 10월 9일 10:00 ~12:00

○ 장소 : 서울여성가족재단

○ 안건 : - 여행 프로젝트 각 분야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 도시 여성의 다양성 범주화 및 조사 관련 자문
- 다양한 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여행 프로젝트 정책제언

○ 참석자 : 외부전문가 12인, 재단 3인

김 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선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 성경(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도 승연(광운대 교양학부 교수)

박 현경(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박 효정(이화여대 간호과학과 교수)

배 은경(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 영주(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손 승영(동덕여대 여성학과 교수)

임 승철(서울시 여성행복도시팀)

전 길량(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성평등교육부장)

전 영옥(도시환경연구센터 소장)

정 진주(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조 영미(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최 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가나다 순)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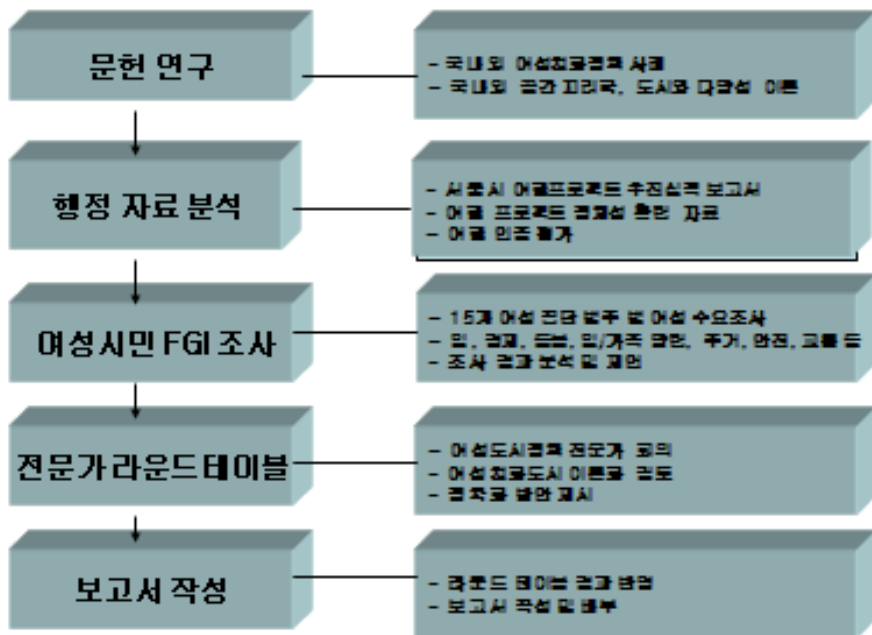
2단계는 여행 프로젝트 관련 서울시의 행정자료를 검토한다.

3단계는 여성친화 도시 이론화 틀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 여성대상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여성들의 수요를 반영한 도시 여성 정책을 제시한다.

4단계는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새롭게 정립한 여성친화도시 이론 틀을 점검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한다.

5단계는 최종으로 정리된 여성친화도시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 그림 1-1 ■ 여행 프로젝트 이론화 연구 절차



4. 기대 효과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서울시 여성의 다양한 도시 정책 수요를 가시화할 수 있다. 도시에서 주변화되고 배제되었던 다양한 여성들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서울시 여

성들의 도시 여성정책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여성친화 도시 이론화를 통해 여성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포괄적인 여성정책으로 확대함으로써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이론적 토대 정립에 기여한다.

세 번째로 국내 여성친화 도시 개념의 새로운 이론 틀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의 여성친화도시 개념 정립에 기여한다.

네 번째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도시 여성정책으로서 정착하는데 기여한다.

II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쟁점

1. 여성친화 도시 정책 기획 및 도입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도시권’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으로 도시 공간, 특히 공적 공간에서 여성의 사용권을 확대하고 도시 여성의 안전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기획한 정책이다.

사업기간은 민선 4기 시장임기 인 2007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추진된다. 사업목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친화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고 돌봄, 일, 문화, 안전, 편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1) 여성의 도시권에 기반한 여성정책

여행 프로젝트는 시기별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2007~2008)는 여성의 도시권을 도입하고 이를 확대하는 단계이다. 여성정책에 처음으로 도시 공간의 영역을 포함시키고, 이 영역에서 여성의 경험들을 발견하여 반영하도록 하였다.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도시 공간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개발하였고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도시권이란 거주(inhabitation)를 바탕으로 한 도시에 대한 권리로 도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시 공간의 ‘충분하고 완전한 사용’을 할 권리를 확보하는 공간 사용권(the right to appropriate)과 도시 거주민이 도시 공간 생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맡는 참여권(the right to participation)으로 구성된다(Fenster, 2005).

공적 공간에서 여성, 흑인, 기타유색인종, 노동계급, 빈민들은 백인 중산층 전문직 남성들 보다 공간 사용권 및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도시 공간 선택권의 과정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성별화된 참여로 인해 여성들의 이해를 반영시키지 못하여 공간 사용 시 불안을 느끼게 된다(Fenster, 2005; McDowell, 1999).

이제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원리들은 공적 영역, 생산 활동, 도심, 사회정치 영역을 우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적영역에서 가사 노동을 수행해온 여성들의 삶은 비 가

시화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한 예로 도시 교통 계획은 일터로 출근하는 중성의 통근자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다. 교통수요 예측이나 도로 건설, 대중교통 계획을 세울 때 출·퇴근자를 중심으로 한다. 그럴 경우 가사 및 육아로 인한 교통이동이나 일/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취업주부의 이동은 고려되기 어렵다(Law, 199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권 개념에 기초하여 도시 공간에서 여성들이 완전하고 충분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들이 도시 공간 생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맡도록 기획하였다.

2)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사업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사업은 공공 공간에서의 여성의 사용권을 확대하는 도시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 공간 특히 거리, 교통기관, 도심공원 사용에 대한 여성들의 안전문제, 자녀를 동반한 여성들의 공공시설 등 공적 공간의 접근성 확대, 화장실 등 이용편의성 증대를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였다.

표 2-1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사업 개요(2008년 연동계획 기준)

영역	대표사업
돌보는 서울	공공보육시설 확충, 자녀양육 토털서비스 제공, 공공시설 내 양육지원시설(수유실, 놀이방, 휴게실) 설치, 노인, 장애인, 노숙인 지원 등
일있는 서울	여성의 일자리 확대, 취업활성화,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생 보육서비스제공,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강 등
넉넉한 서울	문화시설에 여성친화시설 개선(놀이방, 유모차 대여 등), 여성친화 문화프로그램 실시, 여성친화 문화시설 건립, 여성의 정보화 확대 등
안전한 서울	여성이 안전한 주거단지 설계, 안전한 지하보차도관리, 무장애 1등급 도시 만들기, 여성을 위한 콜택시 등
편리한 서울	공중화장실의 여성편의 증진(변기수 확대 등), 여성을 배려한 주차장설치, 전동차 손잡이 개선, 여성친화도시구현 도시계획 관련규정 보완 등

돌보는 서울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 영역에서는 그간 여성에게 전담된 보육과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외에 노인, 한부모, 장애인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을 구현한다.

일있는 서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영역이다. 이를 위해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들이 원하는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넉넉한 서울은 여성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여성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안전한 서울은 도시의 위협, 범죄, 환경오염으로부터 사회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도시의 밤길 안전도를 제고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여성친화적 도시 공간을 구현한다.

편리한 서울은 여성친화적인 시설 및 공간 구성을 통해 도시 생활인으로서 여성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이다. 편리한 서울에서는 공공시설 편의성 증진 및 접근성 향상, 대중교통의 이동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거환경 및 공공 공간 전반에서 여성의 시각이 반영된 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여성 시민 거버넌스 체계 확립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도시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여성참여 체계를 확립하였다. 여행 사업이 여성의 도시 공간 사용권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여행시민 거버넌스 체계는 도시 정책에 여성의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 거버넌스 체계는 전문가에서 일반 여성까지 포함하며, 시 전체단위에서 자치구 단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여성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 계획 전반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성들이 도시 공간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문가 여성은 각 실국의 여행 사업 개발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거나 사업 평가, 모니터링 등을 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자문단을 조직하였기 때문에 동반자와 각 실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웠고 동반자단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낮아 지속적인 자문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표 2-2 | 여행 동반자(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활동(2008)

구분	내용
인원	· 5개 분과 193명(2008)
구성	· 5개 분과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여성단체 대표, 시의원, 서울시 인력기관 및 보육 기관 대표
기능	· 실국 여행사업 자문 및 신규 과제 제안
활동내역	· 2007년 분과회의 5회, 자문회의 12회 · 2008년 분과회의 7회, 자문회의 58회 · 온라인 자문(1차 11개 시책, 2차 6개 시책 대상) · 자문안건 106건, 반영 49건
의의	· 전문가 중심으로 시정에 여성의 관점 반영 · 대규모 분과회의, 소규모 자문회의, 온라인 자문으로 시정 참여
과제	· 운영 및 구성 다원화 · 동반자와 실국 협력체계 미흡 ·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이해도 낮고 자발적인 참여 부족

자료: 조영미 외(2008), 『여행프로젝트 발전방안』

여행 프로젝트는 일반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는데도 주력하였다. 이들은 주로 지역사회 도시 공간 불편사례를 현장 조사하는 데 참여하여 2008년 서울시 전역의 지하철 및 지하 공간 화장실 조사, 공영 주차장, 지하 보차도, 브랜드 콜택시, 영유아 프라자 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전문가와 함께 여행 화장실 및 주차장, 공원, 길 인증평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자치구 단위로도 여성들이 참여하였는데 송파구에서는 길과 버스 정류장의 안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참여는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불편요인을 발굴하는데 유용하였고, 여성들 스스로 민주적인 지역참여의 계기를 확보하였다.

표 2-3 | 여행 프로슈머(일반시민여성) 구성 및 활동(2008)

구분	내용
인원	· 일반 여성 40명
구성	· 20~30대 미혼여성, 30~40대 기혼여성, 시니어 여성
기능	· 지역사회 도시 공간 불편 사례 현장 조사
활동내역	· 서울시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여자 화장실 안전실태조사 · 서울시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 ·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여행 프로젝트 도시환경개선 주차장,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 현장 실태조사
의의	· 일상생활에서 불편 사항 자료 제공 및 대안 제시 · 지역사회 사안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
과제	· 조사 영역 확대 및 환류 체계 확립 필요 · 사회적 약자 여성 등 구성 다원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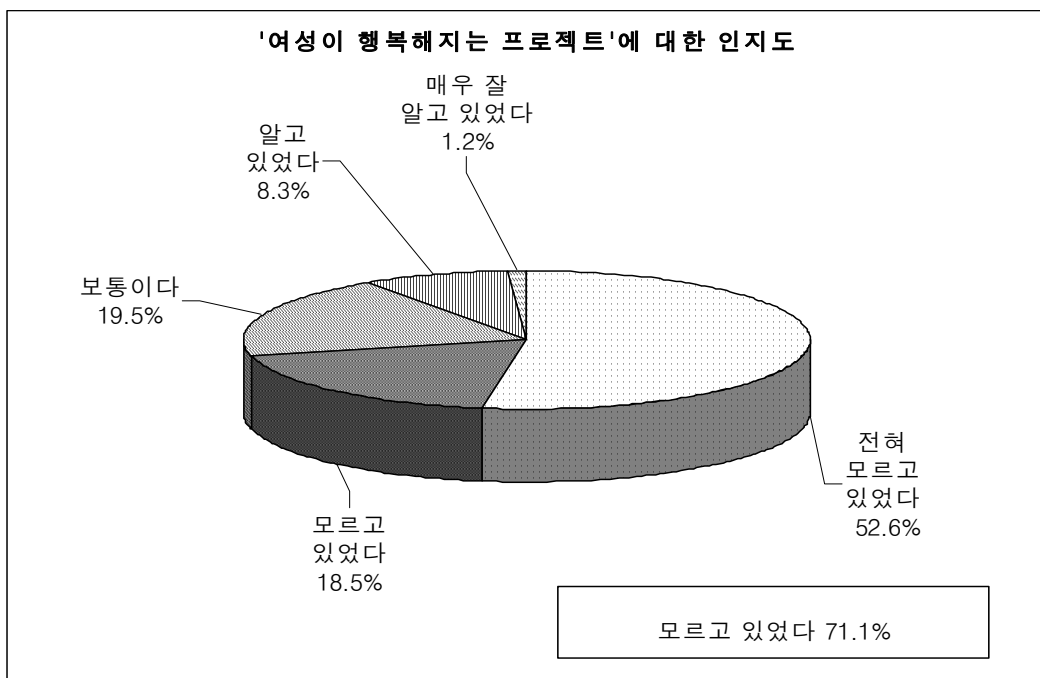
자료: 조영미 외(2008), 『여행프로젝트 발전방안』

4)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평가

이 단계는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 공간 정책에 성별 관점을 통합하여 여성정책의 지평을 넓히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으로 체계가 미흡하였고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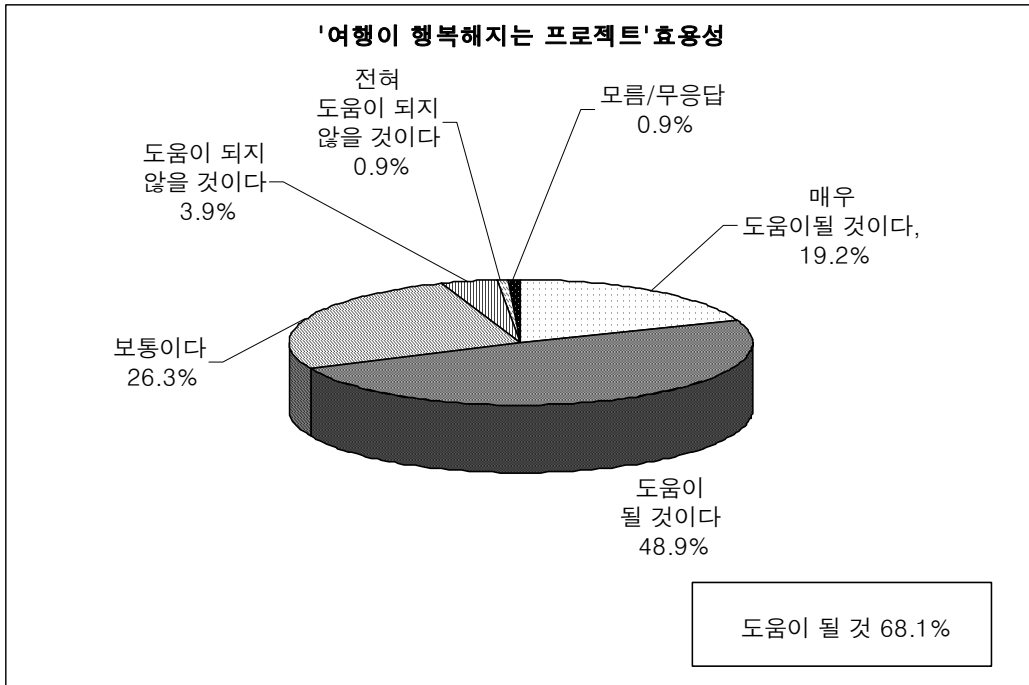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들은 일반 시민여성들의 여행 프로젝트 체감도 조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 평가담당관에서 2007년부터 2008년 매년 말 측정한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2월 조사에서 전체 여성시민 중 71.1%가 여행 프로젝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성 중 68.1%가 여행 프로젝트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효용성을 높게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해 수요는 높으나 아직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2-1 ■ 여행 프로젝트 인지도



자료: 서울시(2009), 『행정서비스시민고객평가』

■ 그림 2-2 ■ 여행 프로젝트 효용성



자료: 서울시(2009), 『행정서비스시민고객평가』

일반시민 여성들의 평가에 따르면 여행 프로젝트 전체 영역에서 '취업 및 창업', '안전' 차원에서 불만족 비율이 높고, '여가 생활',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보육' 차원에서 만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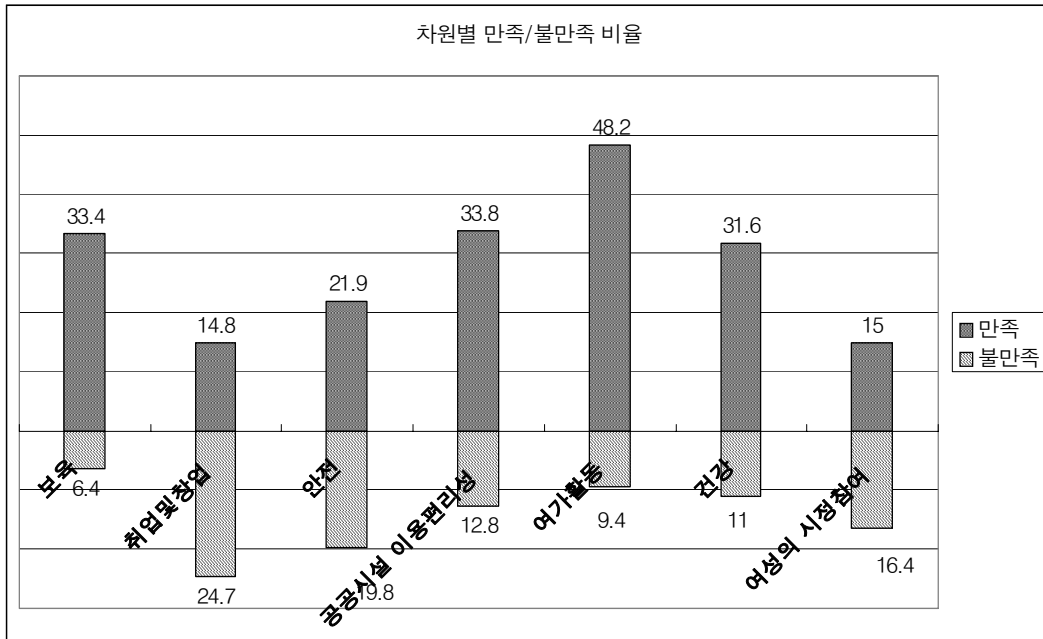
각 차원별로 서울시 여성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보육은 어린이집 급식, 안전, 위생 관리 향상, 어린이집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야간 및 휴일 이용용이, 어린이집 보육료 적정 수준 책정이 제시되었다. 취·창업 분야는 취업, 창업, 직업훈련 및 상담 등 다양한 지원방안 제공과 정보 수집 용이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안전 차원은 밤의 가로등 조명 상태 개선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주차장 시설확보가 필요하다. 공공시설 이용편리성 영역은 보도에서 유모차 이용 및 보행 시 편리성 증진 및 어린이방, 수유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여가의 경우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제공 및 여가 프로그램 정보의 쉬운 수집을 제안하였다. 건강 영역은 적절한 진료 기회 제공과 상담 필요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을 요구하였다. 시정참여는 여성에게 필요한 서울시 정책 정보 제공 및 여성

의 입장을 배려하는 서울시 정책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서울시, 2009,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자료).

■ 그림 2-3 ■ 여행 프로젝트 차원별 만족도(2008)



자료: 서울시(2009), 『행정서비스시민고객평가』

2. 여성친화 도시 공간 구축 및 확대

2009년 들면서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업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여성친화도시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 여가문화, 안전, 대중교통, 건강의 영역의 사업을 추가 개발하였다. 둘째로 여성 시민의 요구를 보다 확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영역별로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서울형 어린이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엄마가 신났다」사업을 추진하였다. 셋째는 여성들이 불편을 겪는 화장실, 주차장, 길, 공원, 택시, 아파트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 기준을 통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여 공공시설의 여성친화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1) 여행 프로젝트 정체성 정립 및 사업 조정

여행 프로젝트 도입으로 시정 전반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는 분위기는 정착되었으나 여행 프로젝트 사업내용이 계속 보완 및 발전되지 못하고 초기 상태로 정체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제로 2009년 1월 30일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실국본부, 투자, 출연기관 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신규과제는 단 4건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여행 프로젝트 주요 사업들이 아직 현장 가시화가 부족하여 시민 고객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도가 낮았다. 여행 사업들의 당초 목표에 비하면 실적은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최초의 목표치 설정이 낮거나 예산 및 제도상의 한계로 공공부문에서만 사업이 추진되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 사업을 점검한 아래의 표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체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65.4%이고 이 중 여행 프로젝트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9.0%, 사업효과성이 부족한 경우가 16.4%, 수요 대비 사업충족도가 낮은 경우가 40.0%에 달하였다.

【 표 2-4 】 여행 프로젝트 점검 결과 (2008년도 연동계획 중심으로)

단위: %

계	개선불필요	개선 필요			
		계	적합성 부족	충분성 부족	효과성 부족
100.0	34.6	65.4	9.06	40.0	16.4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8), 『여행프로젝트 개선방안 및 신규과제 제안』

이는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제출한 사업을 중심으로 여행 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여성과 무관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예로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들은 여성 중 아이를 동반한 여성 혹은 임산부 여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는 있으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의 권리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그대로 포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자 하였다. 여행 프로젝트는 첫째로 도시 여성의 불편, 불안, 불쾌 요인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둘째는 여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여성들을 우선으로 위한 정책(only for women)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여성들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수혜 대상이 대부분 여

성인 경우는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셋째는 국비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09년 3월 기존 사업들을 구조 조정하여 5개영역 90개 사업에서 60개로 조정하였다. 제외된 사업은 저상버스, 외국인 투자가 가족 지원 프로그램,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지원, 기존의 여성대상 강좌 등 30개이다.

표 2-5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신규과제 목록(2009. 3)

영역	주요 과제	과제수
돌보는 서울	서울형어린이집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토탈 맞춤형 보호 서비스, 여성기업인 지식도우미 서비스, 저소득취업모가정을 위한 꿈나래교실 이주여성자활공간터 설치·운영 중학교 방과후 보육·학습프로그램 교실 운영 아리수와 함께 하는 복동이 행복지원	7개
일있는 서울	W-Gold Job 주식회사(일자리창출) 취득세 신고 여성납세자지원서비스 여성이 행복한 꽃가게 '女幸花家' 결혼이주여성 패션기술교육	4개
넉넉한 서울	여성행복더하기 "천원의 행복" 콘서트 여성 평생교육 네트워크 엄마와 함께하는 Cooking Class SH 여행 사랑방(임대주택 단지내 상가 문화공간조성)	4개
안전한 서울	여성건강증진타운 건립, 여성결핵환자희망 프로젝트 검침원안심서비스, 임신부안심먹을거리프로젝트, 외국인여성쇼핑객을 위한 쇼핑안전가드(Guard) 운영	5개
편리한 서울	지하철여성보행환경개선 여행아파트, 여행 문정 선큰 가든 여행 공원, 여행 Water Park, 여행 동대문디자인파크 여행승용차요일제, 여성자동차운전교실, 여행버스, 건축·공간 환경개선 통합기준안 시행	10개

자료: 2009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 재구성

시는 여행 프로젝트 정체성에 적합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여행 프로젝트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개발된 과제들을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신규과제는 여성건강 증진타운 건립, 여행 워터파크, 여행 아파트, 여행공원, 여행 승용차 요일제, 여행 버스, 이주여성 자활 공간터 설치 운영 등 30개 과제이다.

신규과제는 사업 목표나 대상이 여성의 도시 공간 이용권 확대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했다. 그러나 아직도 담당 공무원들이 여성들의 불편요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

러워 여행 프로젝트 정체성에 적합한 사업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고 단기적이며 저예산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사업 확대를 위한 인증제 실시

도시환경을 여성 친화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돌봄, 일, 여가 및 문화, 안전 및 건강 분야에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여성친화적인 지역사회가 되기 위한 요소들로 남녀 모두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와 일자리, 주거환경의 질, 여가활동, 교육기회가 충분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여성의 경우 안전문제와 보육시설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Sweet, Swisher and Moen, 2005).

구체적으로 여성이 일과 자녀양육, 가족 돌봄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 내 돌봄 인프라 구축하고, 여성의 이동성을 고려한 취업기회 및 취업 여건 갖추기가 필요하다. 여가 및 문화에서는 여성과 가족의 여가를 위한 공원, 녹지조성, 가족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하고 안전 및 건강에서는 신체 및 정신건강을 보장하는 환경조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6 |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사업 비율(2008년도 사업기준)

영역	세부 영역	사업수(개)	비율(%)
돌봄	자녀 돌봄	13	16.7
	노인 돌봄	2	
일	직업 교육	3	11.1
	취창업/일자리/승진	7	
여가 및 문화	여가 및 문화	11	22.2
	정보화/교육	9	
건강 및 안전	건강	4	7.8
	안전	3	
도시 인프라	교통	7	16.7
	공공시설	1	
	보도 인도	4	
	화장실	3	
주 거	제도개선	4	8.9
	주거	4	
기타	다문화, 한부모, 노숙인, 장애인	6	16.6
	가이드라인 개발 및 평가	9	
계		90	100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를 분석해 보면 총 90개 사업 중 건강 및 안전 분야 7.8%, 주거 8.9%, 일자리 11.1%로 이 분야의 사업이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 공공시설, 보도, 인도, 화장실의 사업 비율은 다른 영역과 유사하나 이것은 단순히 사업 개수만을 비교한 것이므로 공공 인프라에서 여성 친화적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더 필요하다.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해서 길, 공원, 아파트, 주차장, 화장실 등 도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시는 여행 주차장과 여행 화장실 인증제를 도입하여 시민 체감도 향상, 사업현장 가시화와 여행 사업의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여행 시설 인증제는 1차로 여행 화장실과 여행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건축 전문가가 여행 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따라 필수항목과 선택 권고항목 (universal design 기준 및 시설 상황별 충족기준) 심사기준을 정해 필수는 모두 충족하고, 선택권고 항목은 70점 이상(주차장의 경우 60점 이상 중 선별)이면 인증하도록 하였다.

1차 여행 화장실 및 여행 주차장 인증은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는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총 535건(화장실 214건, 주차장 321건)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88개소(추후 보완 포함)를 1차로 인증하였다.

표 2-7 | 여행 인증제 심사기준 (필수항목)

여행 화장실(7)	여행주차장(5)	여행길(5)
여성변기수 확보 (1:1 이상)	여성우선주차면 확보 (주차면 20%이상, 폭 2.3m×5.0m)	여성친화보행로 확보 (폭 1.5m이상, 마감재틈새 2mm 이하)
여성화장실 내 어린이용 시설 (세면대, 대소변기, 기저귀교환대)	여성우선주차면 출입 용이성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30m이내 구역)	보행로와 교차로의 적정 조도 (보행조명설치, 30 Lux이상)
여성편의시설 (손 건조기, 종이타월)	CCTV, 비상벨 (지하주차장)	범죄예방 CCTV설치 (택시 승하차장, 버스정류장 연계)
여성편의시설 (세면기 주변 선반, 걸이 등)	여성우선주차구역 시야 확보 (출입구에서 구역 식별 가능)	보행로 주변 쉼터 제공 (벤치 등)
화장실 내부 비상벨설치	여성우선주차구역 조도 (130 Lux 이상)	보행로 주변 시야 확보 (시설물, 조경 등)
적정조도 (실내 150-200lux)		
부스출입문 적정틈새 (바닥에서 6~8cm)		

자료: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2009)

인증제는 2009년 하반기 여행길, 여행공원, 여행 아파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고, 길과 공원은 인증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여행 인증제는 여성들이 이용하는 생활 시설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개선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아직 인증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비율이 낮고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여행 프로젝트 쟁점 및 과제

서울시가 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시 공간에서 여성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 일자리와 보육 부문에서도 ‘엄마가 신났다’와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보육 서비스 개선에 진전을 이루었다.

여행 프로젝트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여행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 여행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한 예로 “하이힐 신기 편한 거리가 서울 여성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라는 타임지 인터넷 기사를 들 수 있다.

“(중략) 여행 프로젝트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여성의 성별분업이나 성별 역할에 도전하지 않으므로 여성들의 이차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 여행 프로젝트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주부에 치중하고 있다.... (중략)

일반 시민 여성,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서울시 여성들은 핑크색 주차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은 가정을 가졌을 때 직업을 그만두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물론 여성 택시 기사들이 있어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2009. 08. 09 타임지 인터넷 판)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은 여행 프로젝트가 여성 중 어린자녀가 있는 전업주부를 주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치중하는 데 대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여행 프로젝트 초기부터 제기되던 것으로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1) 자녀있는 중산층 여성 중심의 사업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은 어린자녀가 있는 전업주부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기혼의 임산부, 아이가 있는 중산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도 유모차 대여, 수유실 제공, 놀이방, 화장실 내 영유아 편의 시설 설치,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등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많다.

여행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업으로 언급되는 ‘하이힐 신기 편한 거리’나 ‘핑크 빛 주차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부들이다. 하루 8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의 육체노동을 하는 이주 노동자, 빈곤층 여성, 치매 노인을 돌보는 여성들이 어떻게 하이힐을 신을 수 있으며 여성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반문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행 프로젝트가 중산층의 어린자녀 있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시 공간 이용에서 이들이 이동성에 제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맞다. 그러나 도시 공간과 다른 영역의 사업들, 예를 들어 일자리 사업을 보아도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여행 프로젝트가 중산층, 어린자녀 있는, 전업주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여행 프로젝트가 ‘여성’(gender)을 ‘이성애적 핵가족 내의 여성’(생계부양자 남편과 가사, 육아를 담당하는 아내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형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 여성을 위한 여성정책에서 여성이라는 범주가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여성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 여성 집단은 이성애 핵가족 내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전제로 인해 여행 프로젝트는 계속되는 신규사업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이나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특정 집단의 여성을 본질화하고 보편화하는 것의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성에 핵가족 내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은 여성이 가사,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성역할을 고착화하여 여성의 이차적 지위를 강화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행 프로젝트에서 여성들의 보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가사와 돌봄은 여성들에게 1차적 책임이 부여된 일이므로 이를 지원해야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여성의 돌봄 노동 지원은 사업 자체의 문제이기 보다 성별분업에 대한 도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남성의 가사 참여 확대나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및 직장 문화 변화, 가족 내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보편적으로 상정된 여성들 외의 여성들이 도시 정책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도시에서의 '여성' 범주(category)는 '어머니, 전업주부' 외에 다양한 정체성들로 구성된다. 여성들은 혼인상태, 소득수준, 직업유무, 자녀유무, 연령, 장애여부, 국적, 섹슈얼리티에 따라 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요소들이 차이가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 노인인구 및 여성노인의 증가, 단독가구, 부부가구, 한부모 가구의 증가, 비혼 증가, 이혼 및 재혼 증가, 입양 아동의 문제 가시화, 경제 사회적 계층 양극화, 이주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여성의 증가 등으로 서울을 구성하는 거주민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을 이성애 핵가족 내 주부로 상정하면 이러한 도시 여성들 내의 차이를 드러내기 어렵다. 그리고 여성 내에서도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 집단의 권리를 배제할 수 있다. 여성 내에서도 다양한 정체성들이 교차(intersectionality)되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한부모 여성은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터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 사회 복지 차원에서는 '빈곤층'의 정체성을 갖기도 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여성이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들이 발현될 수 있다(Valentine, 2009).

따라서 도시 여성정책으로서의 여행 프로젝트는 이러한 여성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도시 생활 경험의 차이들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도시 여성들, 특히 취약 계층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여성의 범주가 다양하고 다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여행 프로젝트가 여성의 성역할을 고착화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 여성 정체성의 다양성(diversity)은 생계유지자 남편과 살림하는 아내의 삶에서 벗어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주부로서의 역할 고착을 넘어설 수 있다.

따라서 여행 프로젝트가 앞으로 도시 여성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성 내의 차이(difference)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여성 집단의 도시 생활 속의 불편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다양성에 기초한 여행 프로젝트의 이론화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궁극에 도시 여성정책으로서의 여행 프로젝트의 위상을 정립하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치우쳐 있어 도시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 소홀하다는 것이다.

사실 여행 프로젝트는 돌봄, 일, 너덕, 안전, 편리의 5개영역에서 전반적인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여행 프로젝트 사업도 ‘엄마가 신났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일자리 창출, 돌봄 노동 경감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2009년 들면서 여행 인증제로 ‘화장실, 주차장, 공원, 길’ 등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사업의 비중이 커졌고 대중의 인지도도 이러한 영역에서 높아졌다.

여행 프로젝트가 여성들이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데 편의성, 안전성, 접근성을 증진시킴으로 써 새로운 도시여성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여성정책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치중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여성정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 공간에 한정된 여성정책인가 아니면 포괄적 여성정책의 한 부분 인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에서도 논쟁 거리였다. 이는 여행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논의에서 심도 깊게 다루었어야 하였다. 그러나 3월 여행 프로젝트 정체성 정립 시에는 대상 사업이 성별 이슈인지 아닌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도시 공간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지 포괄적인 여성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행 주차장, 여행 화장실, 여행길, 여행 아파트, 여행 공원 인증 매뉴얼 개발과 인증제 실시로 여행 사업은 도시 공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더 불거지게 되었다.

물리적 도시 공간을 여성들 위주로 개선하는 문제는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 개념을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도시 공간’에 제한하여 ‘오픈 스페이스(공원 및 가로), 공공건물, 주차장, 교통시스템 및 정거장/지하철역 등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여성친화도시’를 ‘도심의 공적 공간에서 여성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제고로 제한적으로 개념화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를 물리적 도시 공간 개선의 사업으로만 볼 때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론적 측면에서 공간의 사회적 구성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물리적 공간에서의 여성 배제문제와 공간 분배 문제만 다루는 것이다. 이 부분은 뒷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둘째는 여성정책을 도시 공간 정책으로 제한하여 성평등 정책으로서의 필요한 여성

정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여성친화 도시란 도시의 공공 공간 및 기반시설에서의 여성 편의성과 안전성을 증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구의 논의를 보면 여성친화성(women friendliness) 혹은 여성친화정책(women friendly policy)이란 개념 정의가 매우 다양하며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 전반을 의미하고 있다(Raabe, 2005; Caiazza, 2002).

여성친화 도시정책을 도시공간에서의 여성의 권리증진(편의성, 안전성, 접근성 제고)을 포함하되 성평등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에는 여성고용 차별 해소, 여성의 일/가족 양립 지원, 여성의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들을 추가로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때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 공간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성친화 도시 개념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여행 프로젝트가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여성친화도시의 범위와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여행 프로젝트를 보다 발전시켜 시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4. 소결

이제까지 서울시 여성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각 단계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책 추진 초기에는 여행 프로젝트 인지도와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이 문제였다. 중반이후에는 여성 범주의 보편화 문제와 물리적 도시 공간 개선 사업 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행 프로젝트가 시정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여행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체계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I 여성친화 도시 개념화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앞으로 시정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맞는 사업들이 다각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에서 ‘여성친화성’의 기준과 ‘도시 여성정책’의 영역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에서 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여성친화적인 공간 만들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복합도시를 여성 친화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용역을 발주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든바 있다. 2009년 여성부는 전라북도 익산시를 여성친화도시 제 1호로 인증하였다. 여성부는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던 도시 여성정책을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의 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기는 하지만 정책의 주체 혹은 연구주체에 따라 개념화 방식이 다르거나 기존의 여성정책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도 다르다. 여성친화도시는 한편에서는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을 증진시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도시 여성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포괄적인 여성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여성 친화’(women friendliness) 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검토하여 여성친화 개념과 정책 범위에 대해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목표와 범위를 새롭게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행 프로젝트의 목표와 원리, 추진 방향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여성친화 개념을 발전시키고 적용해야 하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내 여성친화 도시 개념

1) 도시 공간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한국에서 여성친화 도시라는 용어가 담론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2006년 여성건설인협회에서 「여성친화 도시 서울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내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전부터 도시 생활에서의 여성의 불편사항들을 다룬 논문이나 기사가 있지만 이 보고서는 2007년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보고서에서 정의한 ‘여성친화 도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여성건설인협회에서 제시한 여성친화 도시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도시 공간에서 여성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시’가 상징하는 공간 범위는 ‘도시의 공공 공간’- 오픈 스페이스(공원 및 가로), 공공건물, 주차장, 교통 시스템 및 정거장/지하철역이다. ‘여성친화성’은 장소와 시간대에 따른 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 아이를 동반한 여성이나 일시적 신체적 제약을 가진 여성의 이동성 제고, 가족동반 여성에게 불편한 시설 개선, 그리고 청결, 쾌적함의 증진이다.

표 3-1 여성건설인협회 여성친화 도시 영역과 개념

분야	주요 이슈	도시 여성정책 제언
안전성	장소와 시간대에 따른 범죄로부터의 여성 안전 확보	범죄예방시설, CPTED, 적정조도 사각지대, 자연적감시체계, CCTV
접근성	아이를 동반한 여성, 일시적 신체적 제약을 지닌 여성과 노인의 이동성 보장	무장애 공간, 합리적 동선계획 대중교통접근성, 자전거이용편의시설
편리성	가족 동반자에게 불친절하고 불편한 시설 개선	수유실, 가족화장실, 아이 및 유아시설, 화장실, 유모차 이용
쾌적성	청결, 심미성, 쾌적한 환경, 심리적 안정감	공기, 조도, 적정면적

자료: 한국여성건설인협회(2006), 「여성친화 도시 서울 방향과 과제」 재구성

여성건설인 협회의 여성친화 도시에서 ‘여성’ 범주는 안전이나 쾌적성의 분야에서는 일반 여성을, 접근성이나 쾌적성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여성들-임산부, 아이를 동반한 여성,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 내의 사회적, 경제적 정체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이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회적 이동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자를 대변한다.

이 때 여성을 언급하는 것은 여성 내의 연령, 장애의 차이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다른 이동약자의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이므로 여성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이 궁극에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즉 여성친화 도시가 여성에게만 배타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것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과 다른 이동약자와의 결합은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의 이동권 확대 정책이 곧 여성친화 도시 정책이 되는 문제가 있다. 임신, 수유와 같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나 자녀 양육이라는 사회적 특성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 공간(Barrier Free) 정책이 여성친화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여성만의 특화된 도시 공간 정책은 수유실 확보, 여성 화장실 변기 증설, 유모차 이동 편의성 제고에 제한되었다.

그러나 여성친화 도시 제안은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의 배제를 문제시 하였고 여성의 일상적 삶에서 사용하게 되는 공간, 주거, 보육시설, 가로, 교통, 아이 동반 편의시설 등을 여성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도시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개념화하는 또 다른 연구는 여성부(2009)의 「여성친화 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방향」이다. 이 연구에서 ‘여성친화 도시’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여성친화개념에 성 평등한 참여와 분배를 강조함으로써 여성친화 도시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정책 전반에서 성 평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도시 공간 정책이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과 같이 가야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참여와 분배를 보장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위의 정의만 가지고는 일반 여성정책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계획 범주별 조성 원칙을 보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크게 구분되어 있고 세부분야도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교육 및 문화,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주택단지조성 및 내부구조,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도시 공간, 공공 공간에서의 성 평등한 분배와 참여에 치중하고 있다. 물론 산업, 교육, 문화, 복지시설, 공동체 협치를 여성친화 도시 공간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나아가 도시생활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

도시의 공간은 다양한 사회관계가 반영되어 있고 이러한 관계들이 공간을 통해서 생산되고 유지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공간 정책은 다양한 도시민들의 사회 정책들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크다. 따라

서 도시 공간에서의 주거 및 교통 이동 계획은 여성들의 삶의 특성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개선에서 나아가 도시 공간 전반에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 표 3-2 ■ 여성부 여성친화 도시 공간계획 범주 별 조성 원칙

구분	세부분야	조성원칙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안전 및 약자 배려
	공원 및 녹지	안전, 가족친화성 증진
	산업	주거지 접근성 일/가정 양립가능성 제고
공공이용시설	교육 및 문화	창의적 인재 양성 문화적 역량 강화
	사회복지시설	약자 배려 다양성의 수용
	공공시설	복합적 이용 주체적 참여 가능성 제고
주거단지	단지 조성	안전, 편의성 추구
	주택 내부	쾌적, 단거리 동선 확보
	공동체 프로그램	통합 및 협치 역량 강화

자료: 이미원(2009), 「여성친화 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 방향」, 여성부 재구성

이 연구는 각 영역에서 여성친화성 평가지표를 자세하게 제시하여 여성들에게 어떠한 도시 환경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친화 도시에서 ‘여성을 위한 시설’과 ‘약자를 위한 시설’들이 같은 선상에서 제시되기도 한다. 이 개념들이 상호 연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지점에서 여성들의 이해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짚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지표에는 약자 배려 및 다양성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결혼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쉼터나 문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로 측정한다. 도시 여성들 내의 차이를 반영하기는 하였으나 각 영역별로 다양한 여성들의 차별적인 정책 수요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

2) 공간을 포함한 포괄적 도시 여성정책

충남 연기군에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여성을 위해 건립하기 위해 연구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서 제안한 여성친화 개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여성친화 도시를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명명하였으나 도시를 단위로 여성들의 공간 및 일상적 삶의 영역을 다루므로 여성친화 도시 논의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여성 친화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건축이나 공간’ 차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일자리를 비롯한 여성정책의 현안들이 해결되어야 여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므로 공간 뿐 아니라 사회정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행복도시 정책의 주요 영역은 문화, 보살핌, 여성의 성장(일), 건강과 안전, 여성의 참여로 분류하고 있다. 앞의 논의에서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주거시설의 도시 공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행복도시의 여성친화 개념은 도시 계획 전반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는 성 주류화 정책으로서 의미를 부여하였고 도시 여성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젠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도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도시 정책의 행위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성들의 도시계획 참여가 확보되어야만 도시 정책은 여성 친화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도시는 여성 친화적 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간과 사회정책을 포괄할 것, 도시의 익명성과 획일성 대신 시민의 다양성과 공동체적 삶을 지향할 것, 여성만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것, 도시 여성의 삶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행복도시청의 여성친화 도시는 인구 약 50 만 명 정도의 특정 신도시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그 도시에 건설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사업이 짜여져 있다. 따라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도시 여성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행복도시청의 여성친화 도시는 도시 공간 정책이기 보다 여성정책을 포함한 도시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정한 규모의 신규계획 도시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시한 기본원리-시민의 다양성, 공간과 사회정책을 포괄성 등의 실행방안이나 전략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 표 3-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실행방안 및 전략

분 야	기 본 방 향	시 설 물
문화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한 생활보장, 일상의 요구반영 - 평생학습도시로서 학습과 문화 공존 - 성인지적 관점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 지역주민의 통합 및 원주민과 이주민의 소통을 위한 문화서비스 - 다양한 계층을 위한 미래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복합센터 - 재래장터 - 벼룩시장 등
복지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 보살핌 역할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보육시설 - 공공기관 내 돌봄시설 - 다세대 하우스 - 노인 UD 주거단지
보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학적이고 쾌적한 생활권 조성 - 건강한 도시 생활 향유 -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적 종합보건센터 - 공중화장실
교통안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아동 및 노인,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는 교통 및 보안체계 구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친화적 도로망 - 건널목 - 도로 및 교통 표지판 - 주차장 - 놀이터, 통학로, 공원 - 여성폭력보호 및 예방 센터
여성인적자원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정보 교환 -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여성들의 자발적인 모임,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취업 - 창업지원센터 - 여성평생학습지원센터
젠더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건설의 수혜자이자 기여자 여성 - 각종 정책결정기구에 여성전문가 및 여성시민단체, 활동가의 참여 보장 -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참여체계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행복한 도시 특 별법 제정 - 법 및 시행령에 성별요구반영 조문마련 및 행복도시 여성위원회 신설 - 여성 행복 도시선언 - 여성친화 도시지수 개발 - 지역공동체 중심조직 형성 및 지원

자료: 김양희 외(2008),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로 재구성

이제까지 한국에서 여성친화 도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정의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의 여성친화 도시 개념은 도시 공간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사항들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개념은 한국의 여성정책이 공간에서의 여성의 배제문제를 고려해 본적이 없는 상황에서 볼 때 여성정책

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친화 도시 정책은 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성의 범주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여성 친화성은 도시 전반에서 성 평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간에서의 여성의 편의성, 접근성 향상을 의미하는지, '여성'은 '아이가 있는 주부 여성'인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범주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음에서는 서구에서의 여성 친화성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여성친화 도시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을 정립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2. 국외 여성친화 정책 개념

한국에서 여성친화(women-friendliness) 개념이 여성의 도시 공간 이용권 및 참여권을 의미하는데 비해 국외에서는 공간정책 보다는 성평등 제고와 관련된 여성 정책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1) 가족친화 정책 및 고용정책

라아베(Raabe)는 여성친화성을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의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개념화하고 있다(Raabe, 2005).

라아베는 여성친화정책을 국가차원에서 가족 수당, 유급모성휴가, 유급육아휴직, 가족간 호휴가, 동일 노동 동일임금, 시간제 노동자(주로 여성들)의 수당지급, 영아, 유아, 학령 전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Gornick and Meyers, 2003; Heymann et. al, 2004).

라아베가 여성친화성을 가족친화정책으로 초점을 맞춘 것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고용 중심의 정책을 폈으나 정책의 효과가 노동자의 고용형태나 지위에 따라 차별화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고용정책 수혜에서 벗어나는 집단이 주로 고용지위가 낮은 여성이나 유색인종들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해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정책에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였으므로 여성친화성 개념을 도입하였다.

라아베의 여성친화성 개념은 유급 휴가나 포괄적인 보육 정책 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고용부문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정책에는 각종 유급 휴가와 포괄적 보육정책이 있는데 유급휴가는 장애보험, 유급질병휴가, 건강보험, 육아휴직, 실업보험 등이 속한다. 포괄적 보육정책이란 영아

부터 유아, 학령 전 아동 등 전 아동의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과 관련된 정책에는 최저 임금제, 소득공제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등이 있다.

■ 표 3-4 ■ 라아베의 여성친화정책 개념(미국)

구 분	세 부 분 야	정책 사례
일/가정 양립정책	유급 휴가	장애보험, 유급질병휴가 건강보험, 육아휴직, 실업보험
	포괄적 보육정책	영아, 유아, 학령전 아동의 보육시설 및 서비스
성평등 고용정책	소득과 고용에서의 성불평등 해소	최저임금제 소득공제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자료: Raabe, Phyllis Hutton(2005), "Women-Friendly"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Inequalities among U. S. States"로 재구성

라아베는 미국에서 건강보험, 유급질병휴가, 단기장애보험 수급상태를 직종별, 기간별, 임금 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화이트칼라 직종, 전일제, 고임금(시간당 15불 이상) 층의 접근성이 블루 칼라, 서비스 직종, 시간제, 저소득(시간당 15불 이하)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한다(Raabe, 2005).

이 개념은 미국에서 각 주별로 여성친화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 중 장애보험, 유급질병휴가 건강보험, 육아휴직, 실업보험, 보육시설 및 서비스, 세금공제정책, 최저임금제 8개 지표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적용되는 가를 측정하여 미국 전역에서 주별로 어느 주가 가장 여성친화적인 주인가를 평가하였다. 측정 결과 뉴욕 주가 6개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리노이와 로드아일랜드가 5개 이었으며,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오크라호마, 오리곤, 버몬트, 워싱턴 주가 4개로 여성친화적인 주로 선정되었다.

라아베의 여성친화정책은 일/가족 양립과 임금차별 부문을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라아베가 여성친화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국가/주/도시별로 그리고 계층별, 성별, 인종별, 고용상태별로 여성친화정책의 수혜가 차별화됨을 문제제기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가족양립과 고용부문에 한정되기는 하였지만 인종별, 계층별, 고용상의 지위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여성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

2) 성평등과 젠더 거버넌스

캐나다 몬트리올 시에서는 각 도시의 여성친화정도 등급을 매기는 체크리스트를 개발

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도시들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친화적인가를 측정하고 있다. 몬트리올 시의 여성친화 도시의 개념은 정치, 행정, 시정 전반에서 여성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로 정의한다. 각 도시가 법, 제도, 위원회 등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 기구를 얼마나 갖추고 실행하고 있는가를 여성 친화성으로 규정함으로써 각 도시의 성평등(gender equality) 정도와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로 여성 친화성을 개념화하고 있다. 몬트리올 시의 여성친화지표는 크게 정치영역, 행정조직, 사회 참여 및 협력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은 10여개의 세부지표를 만들어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 표 3-5 ■ 몬트리올 시의 여성친화 도시 지표

구분	세부 지표
정치 영역	여성의 기본권, 성평등법, 정치대표성 제고를 위한 할당제 각 종 위원회 및 공기업의 여성비율, 여성의원 네트워크 여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 공공정책, 폭력/안전정책 성인지성 반영정도, 정부간 협력 등
행정 조직	여성독립부서, 성주류화 전담 행정부서, 성평등 액션플랜 공무원 성인지 훈련, 성별분리통계, 도시 정책 성별영향평가 성별직종분리 해소, 시정정보 제공 및 요구 반영 정도
사회 참여 및 협력	여성위원회, 의회 여성기구 구/동/마을 단위에서의 여성시민 참여절차, 여성자문단 시민교육 및 캠페인, 여성시민 활동 도시생활정책 자문을 위한 상설위원회 혹은 협력기구 마을 단위의 대중 집회 및 정기적 모임

자료: City of Montreal's Femmes et ville site(www.montreal.qc.ca/femmesetville)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친화지표는 여성의 기본권, 성평등을 보장하는 국가법의 유무, 자치단체 정당, 지자체 여성의 쿼터제를 규정한 국가법의 유무, 지방자치 정당에서의 할당제, 각종 위원회 및 공기업의 여성비율, 여성의원 네트워크, 의회에서의 성평등 정책, 여성을 위한 공공 정책, 여성 폭력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모든 정책 프로그램에서 성인지성 반영 여부, 국가 단위 혹은 국제 차원에서 교육이나, 네트워킹 등 지방자치연합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다.

행정 조직 부분에는 모두 8개의 지표가 있는데 성 주류화를 전담하는 행정부서(인력 및 예산을 적정하게 갖춘), 여성부, 성 평등부가 있는지, 연도별로 성평등 액션 플랜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공무원 대상, 남녀 모두 성 주류화 훈련 시행 여부, 모든 도시와 관련된 이슈들에서 성별로 분리된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는지, 도시 정책, 도시 환경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부, 직종별로 성별로 고르게 고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구/동/마을 단위에 정보제공 서비스가 있는지, 남녀시민의 시정에 대한 요구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이다.

사회 참여 및 협력 관계 관련으로 9개의 지표가 있다. 성 평등 정책 시행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여성위원회, 여성기구가 있는지 여부, 대중의 의견을 분야별로 청취할 수 있는 의회 위원회가 있는지, 구/동/마을 단위에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자문 절차가 있는지 여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 자문절차가 있는지, 구/동/마을 단위로 여성 자문단 구성 여부, 도시 단위로 시민교육 및 캠페인 시행 여부, 여성의 서비스와 자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들(길거리 안전 감시조사, 공무원과 여성단체, 시민 남녀의 지역단위 대화 실행 등) 안전, 대중교통, 주거 등 주요 주제에 대해 여성 단체, 여성지역 시민, 이해관계자, 남녀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위원회 혹은 협력기구가 있는지, 시/구/동/마을 단위에서 대중 집회나 모임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지를 측정한다.

총 27개의 성 평등과 젠더 거버넌스 척도 중 7개 이하이면 여성친화성 부족, 8~16개 항목이면 어느 정도 만족, 17~27개 항목이 해당하면 여성친화 도시로서 훌륭한 사례라고 한다.

몬트리올 시의 척도는 정치 영역에서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여성 성 평등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행정 영역에서는 성주류화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시민참여는 전문가, 대중여성의 참여절차 여부, 일상적 생활 지역에서의 항시적인 여성참여 부분을 여성친화의 주요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여성의 자원 및 권리 증진

카이아자(Caiazza)는 여성친화정책을 정의하는 것이 다양하고 그래서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카이아자는 여성친화 정책을 여성이 자원을 확보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웰빙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개념화하였다.

미국의 여성정책연구소(IWPR)는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에 기초하여 여성친화정책-여성 자원 및 권리 체크리스트(Women's Resources and Rights Checklist)를 개발하였다. 2000년 여성친화지표는 1)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2) 여성의 소득 지원 및 일/가정 양립(복지/아동지원 포함), 3) 여성친화적 고용 환경, 4)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 5) 여성의 재생산권리(출산권)로 구성하였다(Caiazza, 2002). 이 지표로 보면 여성친화정

책이란 여성정책과 동일한 의미로 개념화하였다.

■ 표 3-6 ■ 미국 IWPR 여성친화정책 지표(2000)

Indicators of Women-Friendly Policy: Women's Resources and Rights Checklist

주요 영역	세부 지표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 폭력법, 스토킹 법, 경찰인력 가정폭력 훈련의무규정 인구 1인당 가정폭력/성폭력 지원비용, 경찰과 검찰의 성희롱 교육이수 법규정
아동지원 정책	싱글맘 가구 중 아동수당/생활비 보조를 받는 비율 복합아동지원 정책 수혜 비율
여성복지정책	TANF(한시적긴급가족지원) 대상 여성/아동 범위확대, 지원기간 연장, 가정폭력피해자 포함, 지원기준 완화, 월평균수당지급액수
고용 및 실업수당	주별 최저임금기준, 일시장애보험가입 의무규정, 실업급여수여비율 유급가족휴가, 공공부문 성별임금형평성 보장여부
성적지향성 및 젠더 정체성	성적지향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법조항, 성적지향 증오범죄법 동성애 결혼금지법
재생산권	낙태허용, 비용지원, 의료보험에서 피임, 불임치료 포함 게이 레즈비언 커플의 입양 허용, 학교 성교육 시행여부
제도적 자원	여성위원회 등

자료: Caiazza(2002), "Does Women's Representation in Elected Office Lead to Women-Friendly Policy?"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로 재구성.

여성정책연구소는 2004년 여성친화 지표를 1) 정치참여, 2) 고용 및 소득, 3) 사회경제적 자율성, 4) 재생산권, 5) 보건과 웰빙으로 재분류하여 구성하였다. 2004년의 지표는 다양성 부문을 확대하고 도시 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 대한 인정 및 사회통합에 대한 지표 추가하였다(IPWR, 2004).

카이아자의 여성친화정책 개념은 일반적인 여성정책을 의미한다. 특별히 도시 공간과 관련된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성의 고용차별 문제, 재생산권, 한부모 여성에 대한 지원, 여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성적 지향성에 대한 차별을 여성정책으로 포함시킨 것이 특별하다고 하겠다.

이제까지 국외에서 여성친화정책을 개념화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여성친화 개념이 도시 환경과 맞물려 개념화되는 방식은 지극히 한국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친화정책은 도시의 환경을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면 국외에서는 가족친화정책, 고용정책, 성 주류화와 거버넌스 정책 그리고 여성정책 전반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성친화 도시(Women-friendly City) 정책이라고 공간 범위가 들어가는데 비해 국외에서는 여성친화정책(Women Friendly Policy)으로 여성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명명한다.

물론 국외에서 여성친화 개념을 다르게 정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외 논의를 정의해 볼 때 여성친화 개념을 도시 공간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개념화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여성들이 도시 공간에서 완전한 사용권과 참여권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 내 여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여성친화 도시 개념은 여성들의 도시권을 확보하는 것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여성친화라는 개념을 쓸 때, 특별히 이를 도시 공간과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여성친화성의 목표와 기본 원리, 그리고 정책의 범위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국외 논의에서도 ‘도시’에서의 ‘여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개념화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여성친화 도시 정책을 개념화할 때는 도시의 다양한 여성들의 범주화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점들을 논의해야 여성친화 도시정책에서 ‘여성’의 범주 설정, 여성친화와 여성평등의 관계, 도시 공간 정책과 여성정책 전반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시 및 지역 여성 정책 개념화

여성친화 도시 개념화에서는 ‘도시’라는 공간 개념과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스케일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예를 들어 메트로폴리탄 도시와 지방의 작은 도시는 경제, 지리, 문화, 인구학적으로 차이가 크다), 각 도시의 사회, 경제, 지리적 특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도시민의 사회적 구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각 도시에서 여성들에게 문제가 되는 공간은 어떤 영역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도시와 여성,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다음은 ‘도시’ 혹은 ‘지역’ 단위에서 여성의 공간 사용권을 비롯한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4년의 유럽 도시 여성 헌장(European Charter for Women in the City)과 2006년의 유럽 지역정부 성평등 헌장(European Charter for Equality of Women and Men in Local Life)비교하여 도시의 여성정책의 기본 틀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1) 정책 목표 : 도시권 vs. 성평등권

1994년 헌장에서는 도시 정책의 목표를 여성의 도시권(공간 사용권과 참여권)을 확보하

는 것으로 하였다. 이 현장에서는 주로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의 배제를 문제시하였다. 여성의 배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었는데 하나는 도시 계획에서 여성의 경험이나 인식이 배제되는 것과 일/가정 양립이 필요한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었다. 두번째는 도시 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도시계획 수립가의 성인지성 부족에 대한 것이었다. 1994년 현장은 도시 계획에 여성의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여 보다 균형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4년 현장은 한국에서 여성친화 도시 논의가 시작되는 무렵에 제기하였던 문제들과 맥을 같이한다.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 배제문제, 그리고 여성을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 등은 한국에서의 여성친화 도시 개념화와 유사하다.

2006년 현장에서는 지역(local)이라는 공간 범위를 분명히 제시하고, 지역에서 성평등 원리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지역정부의 책임을 제안하고 있다. 2006년 현장은 도시 공간에 치중하기보다 지역여성의 삶의 전 부문-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을 총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1994년 현장이 여성의 도시권이라는 공간적 권리에 치중하였다면 2006년 현장은 삶의 전반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선언문 초반에 주요 원리(principles)를 제시하고 있는데 남녀평등은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 여성을 차별하는 기제를 드러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과정에 남녀 평등한 참여, 전형적인 성역할과 스테레오 타입 종식, 지역정부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차별 종식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에서의 여성의 권리 증진이 왜 필요한가하는 접근도 이 두 현장이 서로 다르다. 1994년 현장에서는 도시에서 여성을 고려하는 것이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여성에 대한 고려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여성의 도시권을 확보해야 함을 정당화하고 있다. 반면 2006년 현장은 여성의 성 평등은 기본권이고, 여성의 정책참여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천명함으로써 여성의 권리 그 자체를 옹호하고 있다.

2) 정체성 및 시민권 : 보편적 시민권 vs 이질적 시민권

1994년 현장에서 도시민의 정체성은 성, 연령, 종교,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 신체적/심리적 장애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집단의 평등과 공동체 보존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도시민을 성별로 이분 화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데 대해 문제제기 하기 때문에 여성 내의 차이나, 다른 집단의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1994년 헌장은 도시 계획에서도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들이 사적 영역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함으로써 시민권의 범주에서 종종 배제되었다.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도시 계획이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여성의 시민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때 시민으로서의 여성은 도시 정책 전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시민을 말한다.

2006년 헌장에서는 도시민의 정체성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본원리 및 조문에서 다중적(multiple) 차별 및 불이익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 도시민의 정체성은 성, 인종, 민족, 사회적 뿌리(social origin), 유전적인 특질, 언어, 종교 혹은 신념, 정치적 입장, 소수민족, 재산, 출생,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등에 따라 다양하나 이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과 남성은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반이야말로 도시 생활에서의 시민권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2006년 헌장은 도시민의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여성들도 성별에 의한 차별 외에 다중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2006년 헌장에서도 시민이 공적인 정치 영역과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실천적인 시민권을 강조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지역정부는 여성들이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3) 도시 여성정책의 영역 : 도시 공간 정책 vs 포괄적 여성정책

두 헌장의 내용이나 조문을 살펴보면 도시에서의 여성의 평등을 위해 비중을 두어야 하는 정책 영역이 공통적인 것도 있고 상이한 지점이 있기도 하다. 두 헌장 모두 여성의 직접적인 정책참여와 여성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의 정책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94년 헌장에서는 도시계획, 주거, 안전, 교통 등의 영역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것과, 이 분야의 전문가 여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전략, 여성의 리더십 개발, 여성전공자의 도시계획 분야 참여 유도 등의 전략이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여성을 포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할 것과 복지행정 및 공공기금에 대한 정보 접근권과 의사결정권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 12개 분야 중 여성의 대표성 제고가 4개 분야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2006년 헌장도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와 정치 및 도시 생활 참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헌장조문 제 1조부터 10조까지에 보면 여성들의 시민권 확보는 민주주의 책무의 기본이며 특히 소수자 여성 집단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실천적인 시민권 확보를 위해 지역정부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공공부문과 사적부문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특별하다.

94년 헌장에서 도시여성정책의 주요 영역은 일상적 삶, 안전 및 이동성, 주거와 정주권,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러한 영역은 주로 도시 공간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으로 기존의 여성정책에서 다루던 영역들과는 차별화된다. 주요 이슈들은 일상적 삶을 도시 정책에 반영할 것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여성의 도시 안전과 이동권 확보, 안정된 주거 환경 보장 등이다. 이러한 영역분류는 기존의 한국에서 도시 공간 중심으로 여성친화 도시를 개념화하는 틀과 유사하다.

그러나 2006년 헌장에서는 도시 여성정책의 영역들이 더 확대되고 있다. 물론 94년 헌장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다. 2006년 헌장에서 정책 분야는 크게 고용 및 조달 부문, 복지보건 서비스 부문, 도시계획 부문으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로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세부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이 헌장에서 강조하는 영역이 고용 분야에서의 성 평등이다. 고용주의 역할, 공공조달 및 계약,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3개의 조문이 이에 해당한다. 11조는 여성노동자의 성차별적 고용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 및 고용조건의 평등, 일과 사회적 삶과 개인생활의 양립, 성희롱 억제, 그리고 적극적조치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역할로 책무 담당자를 명시하였다는 것이 의미 있다. 고용주는 동등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 및 연금 지급체계를 검토하고, 승진체계, 경력개발, 관리직 비율, 직종분리를 해소해야 하며, 건강과 안전한 노동조건 확보 및 여성노동자 집단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용주는 전 조직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조에서는 공공 조달 및 공공 계약에서 계약체결 대상자(기업)가 성평등을 증진하는 기업인지 고려할 것, 계약체결 대상자의 성별 균형을 맞출 것, 계약 내용 이행 시 성차별이 없도록 할 것, 공공구매 업무의 성인지성 제고, 하청계약자도 성평등 증진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7조에서는 여성사업가와 기업인을 지원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시 여성에는 남성적 직업 훈련을, 남성에게는 전통적인 여성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여성정책에서 일자리 확보 및 고용 및 직업훈련, 공공 계약 등 전반에서 성평등을 증진시키고, 특히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집단의 고용평등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국의 여성친화 도시 개념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평생학습, 보건, 사회적 돌봄 서비스, 보육, 사회적 배제, 주거, 문화, 스포츠 여가, 안전과 보호, 여성에 대한 폭력, 인신매매 등 기존의 여성정책에서 다루었던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는 총 4개 조문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 이동과 교통, 경제발전, 환경 등 도시 공간이나 도시 계획 전반에 성인지성을 제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이 '도시' 공간을 여성 친화적으로 구성하는 분야가 될 것이며, 서비스 분야의 주거나 안전이 분야로 포함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두 현장의 여성정책 내용을 비교해 보면 1994년은 여성정책에서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2006년은 공간 문제에 더해 경제와 고용의 문제, 여성의 일/삶 조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를 포괄하는 전반적 여성정책으로서 전환하였다고 하겠다.

4) 성평등 사회문화 인프라 구축

도시여성의 도시권 증진을 위해서는 도시 계획 각 분야에서 여성을 위한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 문화적인 성차별 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해야 한다. 이 부분은 바로 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겠다.

이 부분은 두 현장 모두 다루고 있다. 94년 현장은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 철학 정립에서 성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성인지성 평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성차별적 관행 극복 및 여성친화 도시 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제협력 및 도시 간 협력이나 정보교환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도시에서 이를 정착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06년 현장에서도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적 대표성 제고 및 정책 참여 활성화 영역의 5조, 6조, 자매도시 및 국제협력의 30조로 축소되어 있다. 국제간 도시 간 협력은 중요하며 성차별적 관행을 문화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나 특별히 도시 정책의 한 분야로 설정하기보다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지역정부의 역할

지역정부의 역할은 2006년 헌장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994년 헌장은 도시 여성정책의 새로운 개념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담았다면 2006년 헌장은 이를 시행하는 문제, 즉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비중을 두었다.

2006년 헌장에는 지역정부가 여성 및 소수자 집단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대로 잘 추진했는지를 평가 받아야 하며 개별 국가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부 연합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도시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의 성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정부가 일차적 책무자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실천계획 수립 및 공공 분야에서 일반 분야까지 성인지성을 제고하는 모든 정책을 수행할 것을 공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표 3-7 】 유럽 도시여성 헌장 선언(1994)

연 번	선언 포인트	주 요 내 용
1	실천적 시민	- 여성의 도시계획 참여를 위한 실질적 대표성 확보 - 가사, 육아 담당자가 아닌 여성의 완전한 시민권 인정 -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도시 계획 및 시정 전반에 반영
2	민주적 의사결정과 형평성	-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 - 도시계획, 도시공간, 주거, 교통, 환경 관련 이슈 의사결정에 여성 참여 보장 - 여성의 낮은 대표성 제고 방안
3	동등한 참여 기회	- 도시계획, 주거, 안전교육, 연구, 직업, 전문가 분야 여성 확대 - 도시계획, 건축분야 여성 참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여성 리더십 개발, 여성전문가들의 도시계획 참여 유도
4	참여 증진	- 여성의 형평한 참여보장 절차 구축 및 여성간의 결속력 강화 - 복지행정, 공공기금관리 분야에 여성의 정보접근권, 및 의사결정권 확보 - 개별 남녀 시민이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절차 필요
5	일상적 삶	- 여성의 일상적 삶을 정치적 이슈화 - 도시계획 및 시정전반에 여성의 일상적 관점 반영
6	지속가능한 발전	-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환경 보존에 여성도 동등하게 참여 - 여성의 참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7	안전 및 이동성	- 이동약자 여성의 대중교통 접근권 - 여성의 도시안전, 폭력으로부터 안전 - 도시계획 시 여성의 공간배제, 사회적 고립 해결
8	주거와 정주권	- 여성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거 환경 보장 - 다목적 주거시설 건설 및 주거의 질 향상 - 주거지역의 자녀양육 등 공공시설 및 서비스 확보
9	성차별에 대한 고려	- 성인지성을 담보한 미래도시 건축 - 성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새로운 민주주의 철학 정립
10	성인지 교육 및 연구	- 학교, 건축연구소, 도시계획연구소, 대학 등에서 성인지 교육 - 지역차원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연구, 평가
11	미디어와 홍보	- 미디어를 통한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관행을 극복 - 여성의 도시계획 참여로 지속가능하며, 형평한 도시건설 홍보
12	네트워크 및 협력	- 유럽전역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친화 도시 정책 정착 - 관련정보 및 정책 공유(유럽, 북미) - 국제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른 대륙으로 여성친화 도시 정책 확산

자료: European Charter for Women in the City(1994) 재구성

표 3-8 유럽 지역정부 성평등 헌장 조문(2006)

주요 범주	조문(articles)
민주주의 책무성	1. 성평등과 민주주의
정치영역	2. 정치적 대표성 3. 정치 및 도시생활 참여 4. 성평등을 위한 공공 책무(지방정부 책무) 5. 성평등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6. 성 고정 관념 타파 7. 좋은 행정체계 및 자문체계
성평등 전반	8. 지역정부 역할 9. 성별영향평가 10. 다중적 차별 및 불이익(성, 인종, 계급, 종교, 장애 등)
고용주 역할	11.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고용주 역할
공공조달 및 계약	12. 조달 및 계약에서의 성평등 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역할	13. 교육과 평생학습 14. 보건 15. 사회적 돌봄과 서비스 16. 보육 17. 돌봄(보육 외) 18. 사회적 배제 19. 주거 20. 문화, 스포츠, 여가 21. 안전과 보호 22. 여성에 대한 폭력 23. 인신 매매
도시계획과 지속가능한 발전	24. 지속가능한 발전 25.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 26. 이동과 교통 27. 경제발전 28. 환경
조정자 역할	29. 조정자로서의 지방정부
자매도시 및 국제 협력	30. 자매도시 및 국제협력

자료: European Charter for Equality of Women and Men in Local Life(2006)로 재구성

4. 서울시 여성친화 도시 개념화

1) 정책의 목표

여성친화적인 도시 정책의 목표는 도시 생활 전반에서 성 평등을 제고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 공간 외의 고용, 돌봄, 일/가정 양립, 문화, 건강, 폭력 등의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여 도시의 여성들이 완전한 시민권을 향유하도록 한다.

2) 도시 '여성' 범주

여성친화 도시 정책에서 '여성'이라 함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범주화한다. 도시 여성들은 연령, 계급, 인종/국적, 장애, 성적지향성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다르며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혼인여부, 자녀유무, 돌봄 노동에 따라 도시 일상생활 경험이 차이가 난다. 도시 여성정책에서 '여성'이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주부'로서 보편화하기보다 다중적인 정체성이 교차하는 집단으로 범주화한다.

도시 여성시민의 차이와 다양성으로 인해 동일한 공간이나 생활영역에서 대해서도 집단별로 이해가 다르고 정책 수요가 차별화된다. 도시 여성정책은 다양한 여성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각 집단에 적합한 정책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3) 도시 여성정책의 공간적 범위

여성친화 도시 정책은 공간적으로 도시 스케일(scale)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의 규모는 메트로폴리탄 대도시에서부터 작은 지방의 도시까지 포함한다. 도시 정책이란 국가가 아닌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정부가 주체가 된다. 도시의 규모에 따라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지리적 환경이 다르므로 도시 여성정책은 각 도시의 특수성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

도시를 단위로 하는 지역정부 정책이기는 하지만 도시 간 협력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단위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다. 도시 간 협력이나 대륙간,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 정치적인 힘을 기를 수 있다.

4) 시민권과 책무성

여성친화 도시 정책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을 행사한다. 도시 공간 사용에 있어서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 참여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은 수동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개인으로, 집단으로, 전문가로, 활동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시 정책 전반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는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시민이어야 한다. 지역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도시정책과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만들고 이를 위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5) 젠더 거버넌스

여성친화 도시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도시정책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여성 집단은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고, 책무감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여성시민 거버넌스 체계는 위로부터는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다양한 시민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균형 있게 참여해야 한다.

6) 정책 범위 및 정책 과제

일

여성친화 도시는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고, 여성들은 고용된 조직 내에서 그리고 고용 조건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은 일/가족 양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작업 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도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 여성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취·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의 고용 안전성 증진을 위해 기업에서 동등임금제, 임금차별 해소, 승진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 관리직 여성비율 증대, 성별직종 분리 개선,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는 적절한 노동 조건 확보, 여성노조집단 지원을 하도록 독려한다.

직장 내에서 여성의 성희롱 종식을 위해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예방 교육 등을 시행한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노동시간 유연화 및 돌봄 대상자 지원, 남성의 돌봄 휴가제를 추진한다.

여성들은 교육권과 지속적인 직업 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들을 위해 전문적이고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을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업 교육 시 성별직종분리 해소를 위해 성별로 교차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정부는 공공조달 및 공공 계약에서 성 평등 증진을 위해 계약 대상 기업에서 근로자의 성 평등 보장 정도를 확인하고 계약 지침서에 성 평등 증진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돌봄

여성친화 도시에서는 모든 부모가 경제적 상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질의, 적절한 비용의, 접근성이 좋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성 평등을 제고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자 도시의 경제적인 삶과 사회적 삶, 그리고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성친화 도시에서는 양육을 비롯한 가족 내의 돌봄 노동이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그리고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한다. 여성의 돌봄 노동을 경감하고 사회 공유를 위해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돌봄 시설의 확대 및 양질의, 이용하기 편한 그리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여성친화 도시에서는 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외에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여성들 내에서 사회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여 사회 돌봄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도록 한다.

문화와 여가

여성친화 도시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문화, 여가, 스포츠 활동 및 관련 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여성과 남성은 문화 여가와 관련하여 경험과 이해관계가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여성에게, 소녀들에게 스포츠, 여가, 문화적 시설, 문화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스포츠나 문화활동에서 성별로 뚜렷이 구분되는 활동들은 성별로 교차하면서 참여하도록 한다. 문화 생산자들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전형적인 관점에 도전하는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여성들 내에서 여가 및 문화활동에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들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이주여성이나 성적 소수자 여성, 규범적 혼인 외부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시정하도록 한다.

건강

여성들이 도시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적절한 보건 정보 및 보건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영양 섭취 및 운동, 질병 예방, 건강증진 등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도시 환경으로 인해 유발되는 여성의 건강 위험을 파악하고 여성의 직업 건강을 증진시킨다.

기존의 보건의료 서비스 및 전달체계에 대한 성별 분석을 시행한다. 보건 전문가 및 종사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치료 경험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에 적합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

여성친화 도시는 도시의 일상적 삶에서 여성의 신체 보호권과 이동의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공적 영역이나 사적영역에서 안전의 위협이나 폭력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공적인 공간에서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간 설계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나 경비를 강화한다.

남성과 여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유형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성별분리 통계를 생산하고 도시 내 여성의 불안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지원 서비스, 전문가 프로그램 지원, 잠재적, 실질적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 고양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주자 폭력 피해자 여성 지원을 위한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의식 개혁 캠페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인신 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 피해자에 의료, 안전한 주거지, 통역 등의 지원을 한다.

환경

여성친화 도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과 남성은 쓰레기, 소음, 대기 오염,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등과 같은 환경 정책에 참여하여 도시의 환경의 질을 높여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 여성과 남성은 환경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정책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도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지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나 공적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여성과 남성이 대응하여야 하는 환경문제가 다를 수 있다. 여성들의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관련된 세제나 살충제 등의 물질 사용, 여성과 아이들이 장시간 거주하는 주거지의 대기오염이나 소음, 쓰레기 문제 등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여성들에게 제공한다.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환경 보존을 위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도시 공간

○ 교통 및 이동성

도시에서 이동성과 교통 접근성은 일, 교육, 문화 등 주요 서비스에 접근을 포함하여 이들의 다양한 권리, 책무, 활동을 수행하는 핵심조건이다.

여성 친화도시는 남성과 여성의 교통이용 행태가 다름을 인식하고, 여성 내에서도 소득, 돌봄 노동 책임정도, 노동시간 등에 따라 이동 및 교통 수요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들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들이 쉽게 이용가능하고 안전하며, 접근성이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 교통 연결망을 포함한다.

○ 주거

여성친화 도시는 여성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건설하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 여성들 중에서도 취약 계층인 한 부모 가구 여성들이나 독거노인 여성들에게는 우선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가능하게 한다.

여성들의 소득, 생애주기, 가구 규모, 직장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주거환경,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을 갖춘 다양한 주거 환경을 개발한다. 주거 시설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집

단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도 한다.

여성들이 주택 소유 및 부동산 소유, 다양한 자산에 대해 남성과 동등한 소유권을 보장 받도록 한다. 여성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집을 토대로 대출을 받을 때 남성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의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여성친화 도시는 도시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도시 정책 전반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여성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도시 생활 전반에서 성 평등을 제고하고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시 정책의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도시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한다. 특히 도시계획, 도시 공간, 주거, 교통, 환경 관련 이슈 외에도 경제와 고용, 복지, 보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의 이슈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이 분야의 여성 전문가를 확보하고, 이들이 전문가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의 참여를 정례화하거나 독려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시 여성시민 참여를 위해 전문가 및 일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일상적 생활 지역에서의 항시적인 여성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 정책에 일반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 창구나 절차를 마련한다. 도시의 작은 지역 단위로도 일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자문단, 협력 기구, 지역 환경감시 조사단 등을 구축한다.

【 표 3-9 】 서울시 여성친화 도시 영역 및 추진 과제

영역	구분	세부 영역	추진 방향
일있는 서울	일	경제활동참가 증진	-여성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취창업 지원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동등임금제, 임금차별 audit, 승진 및 경력개발기회 확대, 관리직 여성비율 증대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임금차별 개선 -건강/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여성노동자 조직화 -성희롱 예방 및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노동시간 유연화 -유급육아/가족 휴가 확대 -돌봄 대상자 지원 -남성의 돌봄 휴가 참여 지원
돌보는 서울	돌봄	보육	-양질의, 저렴한, 접근이 편한 보육시설 확대 -맞춤보육서비스 제공 -한부모, 싱글맘, 동거자녀, 입양자녀 우선지원
		돌봄	-노인돌봄 서비스 시설 확장 및 접근성 향상 -돌봄노동자 노동 경감 지원 -취약 여성의 돌봄 우선 지원
넉넉한 서울	문화·여가	문화기회 및 화 창조	-여성과 소녀에게 문화기회 및 접근성 제고 -성별화된 문화, 정형화된 여가활동 도전
		문화가치 전환	-이주민, 성적소수자, 비규범적 혼인에 대한 가치전환
안전한 서울	건강	보건서비스	-보건서비스, 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 향상
		성별분석	-보건의료서비스, 인력, 전달체계 성별분석
	안전	도시 안전	-공공 공간의 안전 확보 시설 및 서비스 강화
		여성 폭력	-여성폭력 지원 서비스 강화 및 예방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에 동등한 참여
생활환경		-여성의 생활환경, 주거지, 세제 등 개선	
편리한 서울	도시공간	교통 및 이동성	-안전, barrier free한 교통시설 확보 -노동시간, 돌봄 노동, 주거지 등 차별화된 서비스
		주거	-취약계층 여성의 질 좋고 안정된 주거지 제공 -소득, 연령, 가구규모 등에 따른 복합적주거지 -여성의 주택소유, 재산권 및 대출권 확보
성주류화 및 거버넌스	성주류화	-도시정책 전반에 여성의 시각 반영 -도시 정책에 여성 전문가,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	
	거버넌스	-일상적인 생활지역 내에서 향시적인 여성참여 -지역사회 여성이슈에 대한 감시 및 조사	

이제까지 서울시 여성친화 도시 개념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친화 도시 연구를 비교 분석 한 뒤 다음의 표와 같이 서울시 여성친화 도시의 영역과 추진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틀을 기본으로 하여 각 영역 내에서 여성들의 차별적 경험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도시와 여성의 다양성

앞 장에서 여행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여성친화 도시 정책의 개념과 각 영역별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성친화 도시 개념화 과정에서 도시 여성을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이질적 집단으로 상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장에서는 왜 여성친화 도시 정책이 도시 여성의 다양성을 보아야 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이 다양하다면 과연 어떻게 범주화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서울시 여성의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는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도시와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여성의 다양성 범주를 제시할 것이다. 이는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가 이성애 핵가족 여성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며 여행 프로젝트가 명실상부한 도시 여성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 도시 공간과 여성

1) 도시 계획과 여성의 배제

도시개발의 역사를 살펴보면 남성 도시 계획 전문가들이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계획가들은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때 여성들이 남성과 다른 경험을 한다고 고려하지 못하였고 여성들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여성들은 도시 공간 이용에서 배제되었고 여성들의 삶은 여성적 역할에 고착화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주거 토지 이용 계획이다. 도시 계획가들이 토지 이용계획을 세울 때 도심은 생산영역, 업무 중심지로 주거지는 이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주거와 집을 여성의 영역으로 보았고 여성의 주역할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재생산자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로 인해 주거지역에 여성들의 돌봄 노동 경감을 위한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일은 개별 여성들이 가정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일터로 나가

고 싶어도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고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일/가정이 어려워 그대로 가정에 머물게 되었다.

교통 계획에서도 여성들의 경험은 잘 반영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가정 내 교통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남성과 다르다. 승용차가 1대 있을 경우 그것은 남성이 출퇴근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여성들의 이동 수요는 가정일과 관련된 것이 많아 출퇴근 중심으로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빠지기 쉽다. 여성들은 어린 아이를 동반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성에서 제한이 있고, 대중교통, 주차장, 역에서 성폭력 등 안전 위험이 있어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도시 계획은 가치중립적인 영역이라고 간주되어 모든 개인들을 하나로 총합하여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기 쉽다. 예를 들어 교통수요 예측 모델에서도 출퇴근 교통에 중심을 두고 출퇴근 시 이동 시간의 비용-효과 분석을 한다. 이 때도 모든 이용자를 총합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임금 노동을 하는 사람의 시간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전문가의 시간이 저임의 낮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Rosenbloom, 2005). 이 때 집에서 일하는 여성, 비 숙련직에 일하는 여성들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저평가되거나 빠지게 된다.

2) 여성배제 기제

도시계획에서 왜 여성들의 경험이 반영되지 못하고 여성의 수요가 고려되지 못하는 것인가? 도시계획 이론가들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도시 계획 분야에서의 남성 중심적 전통과 철학을 들 수 있다. 도시계획에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도시계획 분야의 남성 중심성과 합리주의, 보편주의 전통 때문이다. 남성중심성은 도시 계획 전문가가 거의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에서 자명해진다. 이들은 남성들의 경험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남성들이 생각하는 여성들의 삶을 도시에서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한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도시 전문가 여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를 반영한 도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인식하기 어렵다. 설사 이런 문제가 있어도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들은 그대로 지속된다.

도시계획의 기본 철학이나 가치, 방법론에도 문제가 있다. 도시 계획에서는 질서(order)와 효율성(efficiency)을 중시하고, 특수 집단의 요구보다는 보편적인 일반시민의 의지

(general will)를 존중한다. 도시계획에서 토지 이용자의 권리보다 소유권자의 권리를 우선시 하는 전통도 있다. 도시계획 방법론에서 합리주의 및 실증주의를 중시하는 전통, 즉 비용효과 분석, 양적지표 중심, 가설 검증 및 회귀 분석 등의 기술적 절차를 중시하는 방법 등도 여성 배제에 한 몫을 하게 된다(Fainstein, 2005).

토지 소유주나 도시 개발자들은 대부분 남성이다. 이들이 도시 계획에서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이들이 보는 도시관, 생활관에 따라 도시는 만들어진다. 이들은 도시를 고층 건물로 건설하고 교외는 그들이 가족생활에 걱정하다고 생각한 방식으로 설계한다. 그 결과 도시는 방산으로 뻗어나가고, 대중교통은 부족하고, 지역사회에는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이 부족하게 된다.

특히 여성들이 수행하는 돌봄 노동이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임금이나 금전적인 가치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 효과분석도 어렵고 효용성을 측정하기도 어렵다. 여성들의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되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시민임을 인정받기 어렵게 하고 도시 계획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기 어렵게 한다.

두 번째는 도시공간을 성별로 이분화하는 문제이다. 도시 계획가는 공적 영역/생산 영역/상업중심지는 남성의 영역, 사적 영역/재생산 영역/주거지는 여성의 영역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한다.

공사 영역 이분법은 사적 영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시민권을 침해하게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적영역, 생산영역이 중시됨에 따라 도시 계획자가 상정하는 도시민은 자연스럽게 정상신체의 남성 노동자가 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은 이류 시민이 되고 도시 공간 이용에서의 성 특수한 요구를 드러내기 어렵게 된다. 여성들은 공간 이용 및 공간 관련 정책 참여에서 완전한 시민권(citizenship)을 갖지 못하게 된다.

도시 공간의 공/사 이분법은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문화적 규범과 연결되면서 도시 계획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여성의 정체성을 고착화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도시 계획가는 여성이 일을 하면 가사, 육아 때문에 파트타임 정도의 일을 원할 것이라고 전제하거나 여성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도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 가사, 육아를 위한 이동을 한다고 전제한다.

도시 빈곤의 문제도 제대로 접근하기 어렵다. 도시개발자 혹은 재 개발자는 도시 빈민층의 대다수가 한 부모 여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페인스타인에 의하면 미국에서 도시 빈민에 대한 연구는 남자 청소년의 비행 문제에서 시작하였고 이것이 주요 관심사라 한다. 이민자에 대한 연구도 도시 빈민계층의 남성의 실업문제에 비중을 두고 여성이민자의 문제는 결혼대상자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문제시하는 정도이다. 한 부모 여성가구

주의 증가나 도시 빈민의 문제는 여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정으로 인해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Fainstein, 2005).

여성주의 지리학자, 도시연구가들은 도시 공간에서 여성들이 배제되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여성들의 도시권, 즉 도시 공간에 대한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쟁취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3) 도시계획에 여성 포함 : 분배 패러다임

도시계획에서의 여성 배제 문제를 제기하고 성인지적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슈가 제기 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도시정책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초기에 성인지적 도시계획을 주장한 여성지리학자들은 도시 공간 여성 배제의 문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그로인한 성별 관계의 영속화에 대하여 문제제기하였다. 이들은 여성 배제의 문제를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평등하게 도시에서의 권력과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도시를 자원과 책임의 관점에서 얼마나 여성에게 불평등한지를 지도로 그렸고 이 부분에서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접근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인지적 지리학자들은 도시 공간의 성별 불평등의 문제로 ‘안전’ 문제를 거론하였다. 안전문제는 모든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도시 문제였다. 도시 공간에서 여성들은 ‘폭력이나 성폭력의 위협’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거나 이러한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도시 공간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들이 제기한 또 다른 이슈는 ‘아이를 동반한 여성’들의 이동성 제한이었다. 도시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체계에서 아이를 동반한 여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일하기 어려움을 부각시켰다. 주거와 관련하여 도심과 주거의 분리, 주거지역에서 여성의 돌봄 지원 서비스 부재 등도 이 당시 제기되었던 이슈들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여성들도 안전하게 도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 CCTV를 설치하거나 가로등 조명을 밝게 하기 등으로 안전한 도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여성이 아동을 동반하고도 이용하기 편하게 대중교통, 도로, 보행로 등을 무장애 공간(barrier free)으로 설계하거나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간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도시 공간이라는 중립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였고 공간 문제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을 도시의 주요 행위자(agency)로 등장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여성의 일상적 삶이 도시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의가 있다(Bondi, 2003).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여성 지리학계에서는 초기의 성인지적 도시계획 접근이 도시의 물리적 공간의 분배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성별 이분법적 구도에서 공간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문제제기 하기 시작하였다(Aitchison, 1999; Bondi, 2003; Brown and Staeheli, 2003).

도시 공간의 불평등한 분배를 문제시 하였던 접근은 여성을 도시 공간 분배에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였으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전통적 성역할, 공/사 이분법, 생산/재생산 영역 구분에도 도전하지 않고 여성을 그대로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첨가하였다.

분배적 접근(the distributional)은 첫째로 공간 분배, 공간 사용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화하고 '우리'와 '그들'로 이분 화하여 궁극에 여성 집단과 소수자 집단을 타자화 하거나 주변화하여 적대적(the antagonistic) 관계에 놓이게 하는 문제가 있다(Brown and Staeheli, 2003; Bondi 2003). 이러한 접근은 공적영역은 남성/ 사적 영역은 여성 이분법을 그대로 고수하여 여성을 사적 영역에 머무는 존재로 타자화(other) 혹은 희생자화(victimized)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적대화하고 피해자화 하는지의 대표적인 예가 도시에서의 '성폭력의 위협'이다. 본디(Bondi)는 도시에서 여성들이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도시에서의 폭력 피해자는 젊은 남성이라고 한다. 여성들은 도시 공간에서 낯선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기보다 아는 사람에게서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범죄를 피해 야간에 다니지 말 것, 동행자와 함께 다니기, 위험한 지역은 피해 다니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을 강조하는 '두려움의 지리학'은 여성을 이중으로 희생자화하고 여성의 정체성에 도전하지 않는다. 본디는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 배제문제는 기존의 틀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답이 아니라 도시 공간을 여성에게 해방적인 의미로 창출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ondi, 2003).

공/사 이분법과 성별 이분법은 도시 공간에서 사적영역은 여성의 공간이라고 전제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 사회 내 보육시설은 여성의 공간이고 생태환경운동에서 여성은 자연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남성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계 조작이나 관리직을 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도시가 여성을 사적 영역에 고착화하기도 하지만 공적 영역, 일의 영역으로 여성들이 유입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도시의 공/사 영역은

여성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성들이 여기에 어떠한 관계로 유입되느냐에 따라 해방적일 수도 있고, 차별적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여성차별 문제는 도시 공간을 획일적으로 이분화하고 이에 여성을 끼워 넣기 보다는 각 공간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양한 의미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공/사, 생산/재생산, 남/여의 이분법에 근거하면 여성 범주는 남성과는 차별화되는데 여성 내의 차별성은 보기 어렵게 한다. 고착화된 성별 이분법은 여성을 남성과 차별화되는 보편성과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 범주화하게 된다. 이럴 경우 여성 중에서도 '중산층 이성에 핵가족' 내에 있는 여성이 보편적 여성범주로 상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분배적 패러다임에서 도시 공간 문제에 접근한 논의들은 '아이가 있는 여성', '핵가족 내 주부', 혹은 '성폭력의 피해 위험에 처한 여성' 들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 계획에서 '여성' 범주가 '중산층 이성에 핵가족' 여성으로 고착화하면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여성들-비혼 여성, 한부모 여성, 이혼여성, 일하는 여성, 빈곤층 여성, 이주여성, 노인여성, 장애여성 등-의 경험이 가시화 되지 못한다. 사실 도시에서 여성들은 모두 동일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규범적 범주에서 벗어난 여성들이야 말로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도시 생활에서 제약 요소가 많은 집단이다.

따라서 여성의 도시민으로서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 내에서도 계급, 섹슈얼리티, 인종에 의한 도시 공간의 차별문제와 이들의 차별적 정체성을 구성해 내는 기제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도시와 다양성

도시에서 여성들이 이차적 지위를 고착화하지도 않으면서 다양한 여성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시 여성에 대한 이론 틀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논의되는 사회구성적인 도시공간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 도시 공간의 사회적 구성(the constitutive)

페미니스트 문화지리학자들은 후기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여성의 공간 문제를 발전된 패러다임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페미니스트 도시학(feminist urban studies)은 도시 공간을 물리적 공간에 고착시키지 않고 공간의 경계성과 공간이 생성해 내는 의미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공간의 경계 유동성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의 창

조가 가능한 것은 공간이 도시의 다양한 시민들의 사회정체성과 시공간적으로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발렌타인은 사회적 정체성들이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다양하고 경합하며 유동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 또한 고정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공간은 더 이상 사회적 관계의 단순한 배경이나 일상생활 밖에 존재하는 혹은 일상생활의 틀을 짜는 이미 존재하는 지형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 보다 공간은 사회적 정체성의 구성과 재생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혹은 은유적인 공간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Valentine, 2009).

이 논의는 적절한 지적이나 도시 여성정책에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여성 정책의 틀이 공간의 유동성이나 경합지점 등을 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을 통해 도시 여성정책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첫째는 도시 공간은 우리의 삶에 외재하는 고정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도시민이 각각의 환경에서 공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재 개념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도시 여성정책이 특정한 도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고침으로써 여성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해 질 것이라는 전제를 바꾸어야 함을 의미한다. 도시 물리적 공간 개선이 도시 여성정책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중의 하나라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 외에 다른 요인들, 성차별을 유발하는 다른 기제들, 즉 소프트웨어들을 드러내고 개선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도시는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시민들-성별, 연령, 계급, 성 정체성 등-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공간의 지리학과 결합하면서 공간 이용에서 다양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도시 공간은 사회적 정체성을 통하여 기존의 사회관계와 구조를 생성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회관계가 도시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공간 연구는 공간 이용자의 다양한 정체성-그 정체성은 도시민이 처한 사회관계 속에서 구성된 것이므로-에 대한 탐구를 요한다.

이러한 접근을 도시 여성정책에 접목시킨다면 도시 계획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 외에도 여성의 사회적, 공간적 차별을 생성하는 다양한 정체성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성들이 도시 공간에서 배제되고 피해자화 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 도시 공간에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도시 공간을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제정하고 여성적인 문화를 창조하거나 여성의 거리로 새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한 공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여성에게는 해방의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에게는 차별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도심의 소비와 여가, 주거를 함께하는 복합적인 공간들이 있을 때 중산층 여성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주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빈곤여성이나 이주여성들은 차별적인 일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공간이 모든 여성에게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고 각기 다른 여성들이 그 공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조목조목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도시 여성들은 수동적인 공간 이용자가 아니라 행위성(agency)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고, 도시 공간의 복합성과 차별적 사회관계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성이 주체가 되는 도시 공간, 여성이 살기 편한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들은 여성의 범주의 다양성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공간의 사회 구성적인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도시 여성정책이 성별화된 공/사 영역 이분법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여성 범주의 동질성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도시민의 다양한 정체성은 어떻게 범주화 할 수 있는지, 왜 이러한 범주들이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도시와 다양한 시민들

현대 도시, 특히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시민은 이질적이고 다양하다는 논의는 최근 지리학의 영역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린다 맥도웰은 도시는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을 가진 시민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질적(heterogeneous) 도시민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McDowell, 1999). 쉽게 말해 도시에는 다양한 도시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일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벌-데이비스는 도시민의 차이,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성적 다양성을 다층적 시민권으로(Yuval-Davis, 2000), 영은 차이를 반영한 시민권(Young, 1990)으로 시민권의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민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논하는 것은 도시민의 다양한 정체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도시민을 동질적인 시민으로 정의하면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그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인데-의 특성만을 반영하여 그와 다른 차별적 집단을 배제하는 것에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은 이를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민의 다양성이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의 다양성을 찾아내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민이 이질적이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특정 도시에서 과연 어떠한 집단들이 차별받

는 집단인가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 도시에서 주요한 집단이나 정체성이 다른 도시와 일치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특정 도시에서 도시민의 다양성을 어떠한 집단 혹은 정체성으로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다.

도시민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들을 보면 도시민의 사회적 정체성을 계급, 성별, 인종, 섹슈얼리티로 범주화하는 것이 우세하다(Fenster, 2005; Bondi, 2003). 발렌타인은 인종, 계급,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성적 소수자로 범주화하고 있고(Valentine, 2001), 영은 성별(여성), 연령(노인), 장애, 섹슈얼리티(게이/레즈비언), 계급(노동자계급), 인종/국적(소수인종) 6개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Young, 1990).

도시와 인종문제는 백인을 인종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중립적인 혹은 보편적인 집단으로 상정함으로써 궁극에 다른 인종을 배제하는 차별성에 대해 문제시한다. 유색인종의 문제는 빈곤, 문화적 관습에 대한 이해, 종교의 차이들과 같이 결부되기도 한다.

계급 범주는 도시에 거주하는 하층계급, 빈민가, 빈곤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차지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 빈곤층의 공공복지의존, 실업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한다.

발렌타인의 논의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주요 범주로 제시한 것은 흥미롭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글로벌 도시에서 법률, 은행, 금융과 같은 서비스 부문과 음악, 광고, 미디어, 패션, 디자인과 같은 창조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 수준이 높고, 고임금의 창조적인 중산층 전문가 집단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을 젠트리(gentry)라고 한다. 이들은 상당수가 도시 중심부에 거주하기를 선호하는데, 이러한 입지는 직장과 거주지가 인접해 있어 이들에게 다양한 유희 및 여가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은 장시간의 근무로 인해 사교시간이 부족하므로 직주 근접이 매우 중요하다(Valentine, 2001).²⁾

발렌타인의 논의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중심부에 거주하는 중상층의 창조산업 전문가 특수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따로 분리하였지만, 도시민의 계층 혹은 계급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성적 소수자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서구에서는 19세기말, 20세기 초부터 게이와 퀴어들이 대도시에서 게이 근린지구를 형성하였고 카페, 레스토랑, 목욕탕, 무허가 술집 등을 운영하였다. 성적 소수자들의 도시 공간으로 잘 알려진 곳이 샌프란시스코

2) 젠트리피케이션은 전통적인 핵가족의 쇠퇴, 베이 붐과 같은 인구변화, 새로운 가구 패턴의 출현, 도시 생활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형성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젠트리 여성에게도 도심의 고급 주택가는 유용한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공간적 제약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야간텔리상점이나 세탁소는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감소시켜 주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동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Rose, 1984).

코 카스트로 지구의 게이와 레즈비언 근린지구이다.

성적 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고 이들의 시민권 옹호가 가능해지는 것은 도시에서 소수자 공간을 창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도시의 일상적 공적 공간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결혼식을 하거나 포옹을 하는 등 경계초월적인 이벤트를 통해 이성애 제도의 규범성에 대해 도전을 하게 된다.

레즈비언도 도시 내에서 그들만의 공간을 창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가시적이다. 레즈비언은 게이에 비해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며 남성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드러내기를 꺼린다고 한다. 그래서 레즈비언은 상업공간보다 주거 공간을 창조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도시 내에서 지지자 집단 만들거나 대안 카페 혹은 우호적인 서점과 같은 비상업적 공간을 만드는 데 힘쓴다.

도시는 이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성적 소수자들이 쉽게 공격의 대상,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는 사회 공간, 공적 공간에서 가장 취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트랜스 젠더 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일생동안 폭력을 겪으며 25%가 심각한 폭력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Doan, 2007). 이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도시 내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 정책에서 성적 정체성의 문제는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표 4-1 ■ 도시민의 사회적 정체성 범주화 예

이론가	주요 범주
Fenster, Bondi 등	성별,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Valentine	인종, 계급, 젠트리피케이션, 성적 소수자
Young	성별, 연령, 장애, 섹슈얼리티, 계급, 인종/ 국적

위의 논의를 정리해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민의 다양한 정체성을 범주화하면 성별,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연령, 장애 범주를 설정해 볼 수 있다.

3) 도시 여성의 다양한 정체성

도시의 여성의 정체성의 차이는 계급, 연령, 인종, 장애, 섹슈얼리티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범주들은 도시민 일반의 정체성을 분류하는 성 중립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험은 이 범주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여성들만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상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도시 여성들의 삶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 생활에서 여성들의 경험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더 살펴보면 일, 가족, 여가, 주거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따라 여성의 일상생활이 달라진다. 일의 경우 임금노동, 가족 내 노동, 비정규직 노동, 가사노동으로 분류해야 하고 가족의 경우 자녀 양육노동, 가사노동, 부모의 양육지원정도, 자녀도우미 고용, 여가는 여가와 집안일의 구분, 여가시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Lykogianni, 2008). 이는 도시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삶은 여성의 고용 상 지위 및 형태, 돌봄 노동 수행 및 지원 정도, 일/가정/여가정도에 의해 경험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과 교통 및 이동의 문제를 다루었던 로(Law)는 계급, 성별, 장애, 연령, 거주지역, 주거상황에 따라 여성의 경험이 다르고, 소득, 가사노동유무, 혼인 여부, 고용유무, 자녀유무에 따라 이동성의 문제가 다르다고 하였다(Law, 1999).

여성의 여가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에서는 계급, 가구의 계층, 개인의 소득, 고용형태 및 고용 상 지위, 연령, 혼인유무, 가족 주기별로 여성 내에서도 여가 활동이나 여가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였다(Woodward, 1988).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도시민의 일반적 정체성인 연령,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 장애 외에도 사안 별로 고용 형태 및 지위, 혼인여부, 생애주기 등에 따라 여성들의 도시에서의 일상적 삶들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 여성의 일상적 삶의 경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더 추가하여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 표 4-2 ■ 도시 여성 내 차이와 변인

분 야	변 인	
도시민 일반 공통	계급(계층), 연령, 인종(국적, 민족), 장애	
일상적 삶	일	취업유무, 임금노동, 가족 내 노동, 비정규직 노동, 가사노동
	가족	자녀양육노동, 가사노동, 친족의 양육지원 서비스, 자녀돌보미
	여가	여가시간, 여가/집안일의 구분기준
이동성	계급, 성별, 장애, 연령 거주지역, 주거사항, 소득, 가사노동 유무, 혼인여부, 고용유무, 자녀유무	
여 가	계급, 가구의 계층, 개인소득, 고용형태 및 고용상 지위, 연령, 혼인유무,	
주 거	계급, 인종, 장애, 연령, 혼인여부, 독거, 가족주기	
공통 요인	계급(계층), 연령, 인종(국적, 민족), 장애, 섹슈얼리티 일, 가족(자녀유무, 돌봄노동), 혼인	

앞서서 도시 여성의 일상생활에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정리하여 검토한 결과 계급(계층, 소득), 연령, 인종(국적/민족), 장애, 섹슈얼리티, 일(고용상태, 고용 상 지위), 가족(자녀유무, 돌봄 노동), 혼인(이혼, 비혼, 한 부모) 등의 변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각 영역별로 이러한 변인들이 여성들 내에서 어떠한 경험의 차이를 유발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영역별 도시 여성의 차이

교통과 이동성(mobility)

교통과 이동성은 자원보유의 차이(시간, 돈, 숙련기술)가 이동빈도, 이동장소, 시기, 교통수단 선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동에서는 신체적인 힘의 차이도 무시하기 어려운데 이동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인여성이나 임신부 여성, 장애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시에서의 여성들의 이동행태는 계급, 성별, 장애, 연령, 거주지역, 주거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고, 소득, 가사노동유무, 혼인여부, 취업유무, 자녀유무에 따라 다르다(Law, 1999).

예를 들어 일하는 여성은 출퇴근과 자녀 픽업, 시장보기를 병행해야 하므로 전업주부보다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한 부모 여성은 소득이 낮을 경우 개인차량을 보유하지 못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고 교통이 편한 주거지역을 얻을 수도 없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Rosenbloom, 2005).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이 자녀와 함께 이동을 하는 것은 제한이 많고,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접근성이나 이동성의 제약이 더 크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동장애 여성의 이동장애는 어떤 다른 집단의 여성보다 크고 그 외에도 아이들이 있는 여성, 짐이 있는 여성, 노인여성, 비영어권 여성들도 대중교통에서 물리적으로 배제된다. 장애인의 경우 직원의 태도나 운전자의 행동,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정보나 도움이 부족하면 이동 장벽이 더 커진다(Audirack, 2008).

여가

여성들의 여가와 공간 이용도 여성들이 동일하게 여가를 즐길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성들 차이에 따라 여가의 종류나 여가를 즐기는 장소가 다르고 여가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여성의 여가를 보편적인 경험이나 범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 내 차이, 권력관계의 복잡성,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여가 경험/여가 실천의 다중성을 논의해야 한다.

여성과 여가 경험은 연령, 가구소득, 계층, 고용 상황, 혼인유무, 가족주기별로 다르고, 인종, 연령(나이든 여성, 젊은 엄마), 섹슈얼리티에 따라 차이가 있다(Woodward, 1988; Scraton and Watson, 1998; Aitchison, 1999).

영국 리즈(Leeds) 시의 젊은 여성, 나이든 여성, 백인과 남아시아 계, 노동자 계층 여성들의 여가 차이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여성들의 연령, 인종, 계층에 따라 도시 공간 이용과 여가 활용이 다르다고 한다. 젊은 여성들은 여가를 보낼 때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가장 중심을 둔다고 한다. 이들은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여가를 보낼 것인가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선호하는 도시 공간을 이용하고, 학교와 교육과 관련된 여가 공간을 방문한다. 아이들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쇼핑이 여가가 될 수도 있고 공원이나 복합시설에서 아이들과 함께 일상적 삶을 누린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시장이 있는 지역을 규칙적으로 방문하면서 필요한 쇼핑을 하는데 이것이 이들에게는 주요한 여가 활동이 된다. 나이든 여성들은 시장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품을 돌아보고,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차를 한잔 마시기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여가라고 할 수 있다.

남아시아 계 여성들은 백인 중심사회에서 그들만의 종교와 관습을 인종적으로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지역 공간(local public)을 만들고 이 곳에서 자기들만의 특수한 여가 문화를 만들어 낸다. 남아시아 계인들이 많이 거주 하는 지역에서 이들은 식사를 하면서 사교를 하고 친척들을 만난다. 젊은 여성들은 지역 에어로빅 강좌에 참여하기도 하고 나이든 여성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해 활동을 한다. 이들은 인종적으로 특수한 자기들의 몸이나 체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들만의 고유한 종교 의상이나 전통의상을 입기도 하고, 자기 문화에서 아이를 기르는 육아법에 대해 배우기도 한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서로 공유하는 인종화된 여가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서 가장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Scraton and Watson, 1998).

여성의 여가를 고려할 때 백인, 이성애, 중산층, 고학력의 여성만을 그려서는 안 된다. 한 예로 80년대 중반 영국의 지방정부에서 여성의 여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주로 하는 운동, 여가, 레크레이션 시설을 많이 만들었다. 여성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간대에 여성만을 위한 레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설립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여가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성공하였으나 다양한 여성들의 여가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Aitchison, 1998). 여성만을 위한 시설 혹은 여성이 선호하는 여가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정형화된 여성, 즉 주부를 전제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여성들의 여가 공간이 여성이 선호하는 특정한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공간들이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도시 여성의 여가와 문화 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계층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여가 생활과 공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건강

건강에서도 연령, 빈곤, 문화적 요인, 여성역압, 기술발전 정도에 따라 여성들 내에서 건강상태나 보건 서비스 이용 등에서 차이가 난다(Kettel, 1996; Ruzek et. al, 1997).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망률이 더 높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부모 여성이 건강 문제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 집단이다. 어린 소녀나 나이드는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 보다 건강에 취약하다. 노인 여성의 경우 신체적인 노쇠함과 보호자 부재, 의료보건 비용의 부담 등으로 건강 서비스 접근성에 차별화된다.

여성들의 직업적 특성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낮으며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여성들은 불안정한 고용 지위로 인해 건강 검진이나 복지 급여 수혜도 받기 어렵다. 이러한 열악한 고용 조건들이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가사와 일을 이중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Ruzek et. al, 1997).

빈곤과 건강위험의 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위험하다. 여성이 일을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영양 상태는 좋지 않기 때문이다. 빈곤층의 경우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방, 공간이 협소하고 습기가 찬 방, 온수가 나오지 않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데 이러한 환경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Kettel, 1996).

건강은 인종적으로도 차별화된다. 미국에서 보면 쓰레기 매립지 주변의 거주지에 사는 사람의 3/4가 빈곤층이며 이들은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라고 한다(Kettel, 1996).

성적 소수자들의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인구의 약 10%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과 건강권은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족'과 관련된 의료 보험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Ruzek et. al, 1997). 이들은 젠더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였다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으로 인해 내분비계 질환이 많으나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다(Doan, 2007).

안전

안전은 모든 여성들이 도시 공간에서 느끼는 공통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안전 인식은 연령, 거주지역,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화된다. 밤길 안전 위협은 젊은 층

여성보다 나이든 층에서 더 위협하다고 느낀다. 젊은 층에서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오히려 공간 이용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느끼기도 한다. 고용상태 별로 보면 전일제든 시간제든 일을 하는 여성들이 실업상태의 여성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실업자의 경우 거주하는 환경이 나쁘므로 위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여성 내에서도 안전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세를 사는, 나이 많은, 도심에 사는 실업상태의 여성이다(Ganjavi, Lebrasseur, Whissell, 2000).

주거

주거 정책도 핵가족 가구에 초점을 두면 저소득 여성가장 가구, 일하는 여성, 미혼자, 독거부모, 고령자, 장애인, 소수 인종, 레즈비언, 여성 젠트리파이어 등의 상이한 생활방식이나 사회관계를 보지 못할 우려가 있다(Kakad, 2000; Valentine, 2001; Hayden, 2005).

도시 여성들에게 주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여성들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주택의 규모, 입지조건, 부대시설, 주거 환경 등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크고 대중교통을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해 주거지 주변에 보육 시설이나 저녁시간에도 문을 여는 보건소나 진료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주거지 근처에서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여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주택 문제를 아이가 있는 핵가족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면 비혼 여성, 독거노인 여성, 노인여성, 이혼 여성 혹은 싱글맘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Valentine, 2001). 이들은 생계를 부양하는 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돌봄 노동 지원도 받기 힘들다. 이들에게는 다른 여성 집단보다도 우선적으로 주택 구입비용 지원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할 것이다.

주거는 장애인의 관점에서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택 구조는 정상인을 전제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가족 내부에서도 턱을 없애야 하고,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재도구의 위치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거만큼 계급과 인종에 따라 거주 지역이 분리되는 공간도 없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적절한 주택을 구입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 선정은 계급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인종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문화적인 배타성으로 인해 주거지역이 확연히 분리되고 있다.

주거 정책은 이혼하거나 폭력피해를 당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Hayden, 2005). 여성들 중에는 이혼하여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가정 폭력으로 피해야 하는 여성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언제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주택이나 쉼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주거 정책은 일하는 가난한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들은 주택을 구입하기도 어렵고 주택 임대료의 부담도 크다. 자녀 양육은 근처에 보육시설이 없거나 운영 시간이 일하는 시간과 맞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도우미를 고용해야 할 형편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교통 접근성이 좋고, 보육서비스가 잘되는 지역에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주거 단지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5) 도시 여성의 다양성 범주화

이제까지 도시 여성정책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정체성들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들을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메트로폴리탄 도시 서울시에서 여성들의 다양성을 어떻게 범주화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도시 여성정책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을 조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사전 절차와 같은 것이다. 물론 도시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범주화하는 것은 보편타당해야 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성애 핵가족 내 여성’ 범주 밖에 있는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을 담을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서울시 여성들의 다양성 범주화 1단계는 도시민의 정체성을 범주화 한 논의를 토대로 연령, 계급, 인종, 장애, 섹슈얼리티를 주요 범주로 선정하였다. 계급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계층의 차이 혹은 소득의 차이로 대체하였다. 인종 범주에는 국적이나 민족의 차이를 함께 포괄하는 것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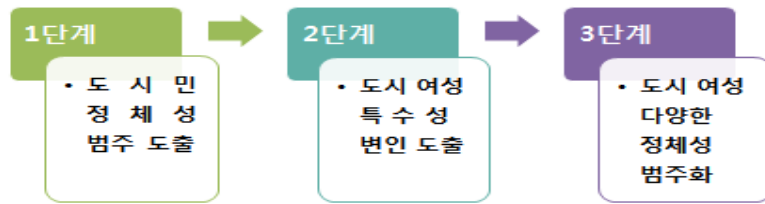
2단계는 1단계에서 선정된 기본 범주 외에 도시 여성들의 삶의 영역에서 차이를 유발하는 변인들을 찾아내어 추가하였다. 여성 특수한 변인은 크게 일, 혼인, 자녀, 돌봄으로 나누었다. 혼인, 자녀, 돌봄 노동은 가족 변인으로 통합할 수도 있으나 가족과 관련된 영역에서 여성들의 차이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해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3단계는 1단계의 범주와 2단계의 변인을 통합하고, 이를 다시 도시 여성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인들로 세분화하여 14개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각 변인들 중 범주화된 집단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이들이 도시 생활에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계층이나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문직 여성보다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여성 집단을 선정하였고, 혼인에서도 이혼, 비혼, 재혼, 사별, 동거 등

규범적 혼인 밖에 있는 집단을 선정하였다. 연령에서도 30~40대 아이 있는 여성보다도 10대, 20대, 60대 이상 노인 집단을 포함시켰다.

┃ 그림 4-1 ┃ 도시 여성정체성의 범주화 단계

도시 여성의 정체성 범주화 절차



이 3단계를 거쳐 도시 여성의 다양성을 탐구하기 위해 선정한 주요 범주집단은 아래와 같다.

┃ 표 4-3 ┃ 도시 여성의 다양한 정체성 범주 집단

변인	범주 분류 및 집단
연령	10대 여성
	20대 여성
	60대 이상 여성
계급/계층	빈곤층, 중하층 여성
인종/국적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여성
장애	장애여성
섹슈얼리티	성적 소수자 여성
일	취업 여부: 미취업 여성
	종사상 지위 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2: 영세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혼인	규범적 혼인 여부 (비혼, 이혼, 재혼, 사별, 동거)
자녀	자녀 유무 (불임, 입양자녀, 무자녀)
	혼인 유형별 (이혼자녀, 재혼자녀, 싱글맘)
돌봄	돌봄 유형별 (자녀, 노인 돌봄)

3. 도시계획에 다양성 반영하기

1) 공간의 다양성과 사회 정체성

도시 계획에서 도시민의 다양성을 다루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페인스타인은 도시계획 전통에서는 다양성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첫째는 도시 설계가들이 주로 이해하는 것으로 도시의 다양성으로 물리적 공간의 이질성 혹은 복잡성을 의미한다. 즉 공간이나 건축물의 다양성, 다양한 시민이 복합적으로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둘째는 사회학자나 문화학자들이 주장하는 도시민의 이질성을 의미한다. 도시민의 정체성이 계급이나 인종 등에 따라 다양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Young, 1990). 공간의 다양성과 정체성의 다양성은 연결되기도 하지만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도시의 다양성은 도시민을 구성하는 정체성의 다양성이다. 이는 도시에는 서로 다른 집단들이 공존하는 곳이며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와 다양성이라는 주장이 도시 정책에서 도시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 디자인에서 다양성은 다양한 빌딩이나 건물이 고층과 저층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거리마다 특색 있는 건축물, 동질성이 있으면서도 이질성이 있는 건물, 주거/사무실/여가 공간을 동시에 구성하는 것, 복합적인 레저 공간,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물론 도시 공간의 다양성이 도시민에게 주는 유익은 여러 가지이며 이를 여성의 다양성을 논하면서 배제할 것은 없다. 도시민의 다양성, 그리고 여성시민의 다양성 주장은 공간의 다양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대학가의 공간이나 도심의 변화가가 있을 수 있으나 하면 중년여성은 쾌적하고 탁 트인 녹지 혹은 다양한 물건을 갖춘 소비 공간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일터와 사무실과 여가 공간이 동시에 있다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더 활용할 수도 있다. 도시민의 다양성은 도시공간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도시 공간의 다양성은 도시 공간을 복합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다. 도시 공간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면 과밀하고 혼잡한 도시 공간에서 서로 낯선 도시민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공간을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도시를 보다 매력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도시의 경제를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다(Jacobs, 1985).

때로는 도시 공간은 익명성과 다중성으로 다양한 집단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익명성으로 도시민들은 효율성, 형평성을 넘어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될 수 있다. 여성들이 가정이나 의무들로부터 해방되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쾌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Sandercock, 1997).

그러나 도시 건물의 다양성이 곧 사회적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간적 다양성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우려가 있다. 도시에 새로운 복합 공간을 창조하거나, 도심의 공적 공간을 시민 모두에게 배려하는 것이 반드시 이질적인 시민 모두의 도시 공간에 대한 권리를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다.

뉴욕의 배터리 파크시티(Battery Park City)는 인공적으로 대규모 복합공원을 만들어 새로운 명소를 만들었지만 공원 이용에서는 계급적으로 분절되었다. 공원을 이용하였던 시민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고소득 계층의 일부 시민들이었다. 도시의 하층 계급의 시민들도 이곳에 접근하기는 하였는데 공원을 청소하거나 유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또 다른 예는 뉴욕의 이스트 빌리지 톰킨스 스퀘어 파크(Tompkins Square Park)를 들 수 있다. 이 공원은 앞의 예와는 달리 다양하고 이질적인 시민 모두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소음이나 안전 문제가 생기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공원을 이용하던 홈 리스들을 추방하게 되었다. 모두에게 공개된 공원이었지만 결국 공원 주변의 전문직 중상층(gentrifier) 이상의 이해가 홈리스를 배제해버렸다.

도시 공간의 다양성을 경제성 혹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의 측면에서 보면 도시를 양극화하고 다른 집단을 배제할 수 있다. 도시의 경제적 발전의 측면에서 도시민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도시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도시의 예산을 거대한 축구장이나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적당한 가격으로 주거지를 구입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로서 대표적으로 꼽는 곳이 암스테르담이다. 암스테르담 시처럼 적절한 지역에 주거지를 공급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워터 프론트를 개발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임금 보장, 교육투자 확대, 공정한 노동 기준 준수, 반차별 법안 시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다(Fainstein, 2005).

특히 여성들과 관련된 도시의 수요들은 도시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늘 뒤로 밀려왔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측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성, 여성들 내에서도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 여성 집단을 위해 도시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도시의 다양성, 시민의 다양한 정체성을 논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이질적이면서도 정의로운 도시

영은 '공정한 사회(just city)는 대중의 이질성을 이상(ideal)으로 채택해야 한다. 성별, 연령, 섹슈얼리티의 집단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들의 차이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이 차이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Young, 2005).

그러나 도시는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서로 다르다. 이럴 경우 도시정책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정책 수요를 지원해야 하는데, 계획수립에서부터 서로 집단 간에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이 있을 수 있고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 경우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하는가? 다양한 시민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차별화된 집단의 대표성이 낮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공적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여성들의 경우도 장애여성, 성적소수자 여성, 빈곤 여성, 싱글맘은 이들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이해나 주장을 이야기 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서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이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공청회라든지, 도시계획관련 위원회 등에 일정 비율로 다양한 집단을 대변하는 여성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책 담당자는 사회적 소수자 여성 집단의 정책 수요와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순위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평가하고 어떤 집단에 대해 가장 먼저 필요를 충족해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에 가치를 부여하면 여성, 여성내의 소수자 집단의 이해는 반영되기 어렵다. 어떤 집단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능력우선주의(the concept of merit)에 기반 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필요우선주의(the concept of deserving needy)에 의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어떤 집단의 요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 또는 어떤 집단이 재정적 기반이 약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상인 여성보다는 장애인 여성의, 이성애자 주부보다는 성적 소수자 여성에, 정규직 여성보다는 비정규직 여성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도시 여성의 다양한 집단들이 스스로 집단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스스로 집단을 구성할 수 있어야만 집단으로서의 이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각 집단도 전체 사회 맥락

에서 각 집단의 공통된 경험과 문제를 성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 담당자들은 이들이 사회적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고 각 집단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이나 정책을 분석하여 가능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여행 프로젝트와 여성의 다양성

이 장에서는 도시 여성정책에서 여성과 공간의 문제를 다룰 때 여성을 동질적이고 보편적 범주로 다룰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시 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도시 정책에 여성의 이해를 드러낼 수는 있다. 그러나 여성을 보편적인 범주로 상정하면 중산층 핵가족 내 여성을 위한 정책이 되고 여성적 역할에 고착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여성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파악하여 도시정책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 공간을 공/사 영역으로 이분화 하는 것이나 고정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개념화하는 것에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의 도시 여성정책인 ‘여행 프로젝트’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여행 프로젝트도 서울시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어떻게 서울시 여성들의 다양성을 규정할 것인지, 이들을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 1단계로 도시에서의 이질적 시민의 정체성에 대해 규정한 후기구조주의자들의 논의를 검토하여 연령, 계급, 인종, 장애, 섹슈얼리티의 주요 범주를 설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여성들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혼인, 자녀, 돌봄노동, 일과 관련된 변인들을 추가하였다. 3단계는 이 두 변인들을 세분화하여 도시 여성의 정체성을 총 15개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 범주들은 다음 장에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업그레이드를 위한 FGI 조사의 대상 집단을 선정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 정책에서 다양한 집단의 정체성의 대표성 확보의 문제, 그리고 주변화된 여성 집단의 이해가 다른 집단과 상충될 때 어떠한 수요자가 그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 번 연구에서 이 부분은 기본 원리만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1. 조사 목적 및 의의

앞 장에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 생활 전반에서 성평등을 제고하고 도시 여성들의 다양성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장에서는 실제 서울시 여성들이 도시 생활의 각 분야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들 내에서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각 집단별로 정책수요를 제시할 것이다.

글로벌 도시는 이질적이고 다중적인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도시 주민들의 경험들을 가시화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전 도시민들의 이해를 포괄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도시민의 다양성 혹은 여성들 내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성정책에서도 이주자, 장애, 한부모 여성 등 소수자 여성에 대한 정책들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정책의 한 부분으로만 다루어지고 복지 정책과도 경계를 짓기 어렵다. 특히 이들이 도시 공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성친화 도시 개념화 틀에 따라 서울시 여성들의 다양한 도시 생활 경험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는 서울시 도시 여성을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이고 둘째는 이들의 경험을 어디까지 조사할 것인가이다.

서울시 여성을 어떻게 범주화 할 것인가는 제 4장에서 제시한 범주를 기초로 조사 집단을 정하였다. 조사대상은 연령, 계급(계층), 장애, 성적지향성, 일, 돌봄, 혼인, 자녀 번인을 교차시켜 총 15개의 집단을 선정하였다. 조사 내용은 3장에서 개념화한 틀에 따라 일, 돌봄, 문화여가, 건강, 주거, 안전, 대중교통에 대한 경험들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집단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수요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도시 여성정책의 수요를 조사하면 여성들 내의 차별화된 경험을 드러낼 수 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여성 집단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일, 돌봄, 문화, 여가, 도시 공간 이용, 주거 및 교통 등 도시 생활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도시 여성정책의 지평을 확대하고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집단

서울시 여성의 다양한 도시 생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먼저 조사 대상그룹을 정하였다. 집단 분류는 도시 여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연령, 계급, 인종/국적, 장애, 성적지향성 범주와 여성 특수적인 삶의 조건들, 즉 혼인, 자녀, 돌봄, 취업 등의 변수를 교차하여 분류하였다. 각 변인별로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집단은 가능한 배제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목록을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15개 집단을 선정하였다. 15개 집단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령 변인으로 나누어 10대 여성, 20대 여성, 60대~70대 여성의 3개 집단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혼인 변인으로 이혼, 재혼, 사별, 비혼, 동거 등 규범적 혼인에서 벗어난 집단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 자녀 변인은 입양자녀, 불임, 자녀 없음 선택한 집단과 이혼 자녀, 재혼에 의한 자녀, 싱글맘 집단 2개 집단을 선정하였다.

취업과 관련한 집단은 비정규직 종사 집단, 가족 종사자 및 영세자영업자 집단, 취업을 하지 않은 집단이다. 소득의 변인은 빈곤층과 중하층 집단과 중산층 집단 2개로 설정하였다. 돌봄 변인은 아이를 돌보는 여성과 노인을 돌보는 여성을 포함하여 1개 집단이다. 국적/인종 변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집단, 장애 변수는 장애 여성 집단, 성적 지향성 변수는 성적 소수자 집단 각각 1개씩으로 선정하였다.

다양성 조사를 위한 집단 분류는 여성들의 차이를 유발하는 변인을 중심으로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집단을 선정하였다. 중산층의 정규직 노동자 여성, 아이를 키우는 30-40대 여성 등 보편적인 여성범주는 중산층 여성 집단으로 대변하였다.

【 표 5-1 】 서울시 여성 다양성 조사를 위한 집단 분류

변인	주요 대상 집단 범주	조사대상 집단수 (개)
연령	10대/ 20대/ 60대 이상	3
혼인	비혼, 이혼, 재혼, 사별, 동거	1
자녀	입양자녀, 재혼자녀/ 싱글맘 불임, 무자녀	2
취업	취업, 창업, 취창업 준비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무급가족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직종별 경력단절, 미취업	3
소득	빈곤층, 중하층	2
돌봄	자녀 돌봄, 노인 돌봄	1
장애	장애여성	1
섹슈얼리티	성적소수자	1
국적	이주노동자	1
계		15

조사 대상자는 각 그룹별로 그룹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상들을 4명씩 선정하여 총 60명의 여성을 면접하였다. 동일 그룹 내에서는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들을 다변화하였다. 각 집단별로 조사 대상의 자세한 구성은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5-2 대상 집단별 면접대상자 특성

연번	대상 집단	FGI 대상자 특성
G 1	10대 청소년	소녀가장, 아르바이트생, 중산층 학생, 빈곤층 학생
G 2	20대 여성	대학생, 대학원 준비, 유학준비, 취업준비 여성
G 3	60-75세 여성 노인	3세대 남편 사별 여성, 독거노인 여성, 2세대 노인 부부, 1세대 노인 부부
G 4	비혼/사실혼/이혼/재혼	비혼, 사실혼(동거), 이혼, 재혼 여성
G 5	입양자녀/싱글맘/이혼·재혼자녀	이혼 한부모, 재혼 자녀(자신 아이/남편 아이), 입양 자녀, 싱글맘
G 6	불임 여성/무자녀 여성	불임 여성(10년차, 5년차) 이혼 무자녀 여성, 결혼 무자녀 여성
G 7	자녀 돌봄 노인 돌봄	시아버지 부양, 시부모 부양 여성 전업주부 자녀 돌봄, 취업주부 자녀 돌봄
G 8	비정규직 여성 (시간제, 계약직, 일용직)	마트 캐셔, 학습지 교사, 백화점 판매원 맥주 판촉영업, 약국 전산업무, 의류회사 비정규직
G 9	특수고용 (무급가족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노래방 영업, 백화점 푸드코트 무급가족종사자
G 10	미취업 여성 (경력단절 여성)	취업공백기, 혼인/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 전업 주부
G 11	빈곤층 중하층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영세자영업, 식당 아르바이트
G 12	중산층 여성 (취업여성/ 전업주부)	자영업자, 취업주부 시어머니 부양 전업주부, 노모부양 전업주부
G 13	장애 여성	사지기능지체(4급), 하지기능지체(2급) 하지기능지체(3급), 척추기능지체(4급)
G 14	이주자 여성	몽골(결혼 8년, 구청계약직근무) 베트남(결혼 4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근무) 중국(결혼 6년, 보험설계사) 방글라데시(결혼 1년 9월, 직장 없음)
G 15	성적 소수자 여성	레즈비언(26세, 휴학생) 바이섹슈얼(23세, 대학생) 레즈비언(32세, 사업 후 휴직) 레즈비언(21세, 대학생)

2) 조사 방법

도시 여성의 다양성 조사를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목적이 다양한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므로 설문조사 보다는 다양한 여성들을 심층 면접하여 이슈를 발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를 개별로 심층 면접할 수도 있었으나 조사 대상자가 60명으로 수가 많았고, 그룹별 특성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별로 4명 씩 초점집단 면접법을 시행하였다. 조사는 집단 별로 공통질문을 하고, 각 집단별로 특수한 상황에 맞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조사는 각 그룹별로 약 2~3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면접 내용은 녹음하여 다시 풀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조사 개요 및 조사 절차³⁾

서울시 여성 집단별 수요 조사는 2009년 6월에서 8월까지 수행하였으며, 서울시 거주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내용은 집단별로 일자리, 생활경제, 일/가정 양립, 돌봄, 여가 문화, 건강, 안전, 주거, 대중교통, 주관적 행복/불행 요소를 질문하였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무엇을 행복으로 정의하는지, 무엇을 불행이라고 보는지를 질문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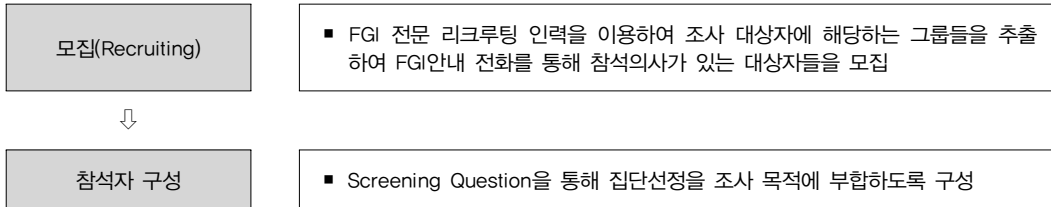
- 서울시 여성 집단별 수요 조사 개요
- 조사 방법 : 조사 대상 집단 별 FGI(초점집단 면접조사) 실시
- 조사 대상 : 서울시 거주 각 집단별 특성에 적합한 여성 60명
- 조사 시기 : 2009. 6월 ~ 8월
- 조사 내용 : 각 집단별 일자리·생활 경제, 일/가정 양립, 돌봄, 여가문화
건강, 안전, 주거, 대중교통, 주관적 행복요소 등으로 질문함
- 집단별 조사대상: 15개 집단 선정, 집단별 대상을 세분하여 4명씩 조사

조사 진행 절차는 15개 집단의 세부 대상자가 결정된 뒤 FGI 전문 리크루팅 인력을 이용하여 조사 참석자를 구성하였다. 조사 진행을 위해 조사 지침서를 작성하고 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모더레이터와 사전 회의를 개최하였다. FGI 조사는 질문에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면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는 각 그룹별로 주제별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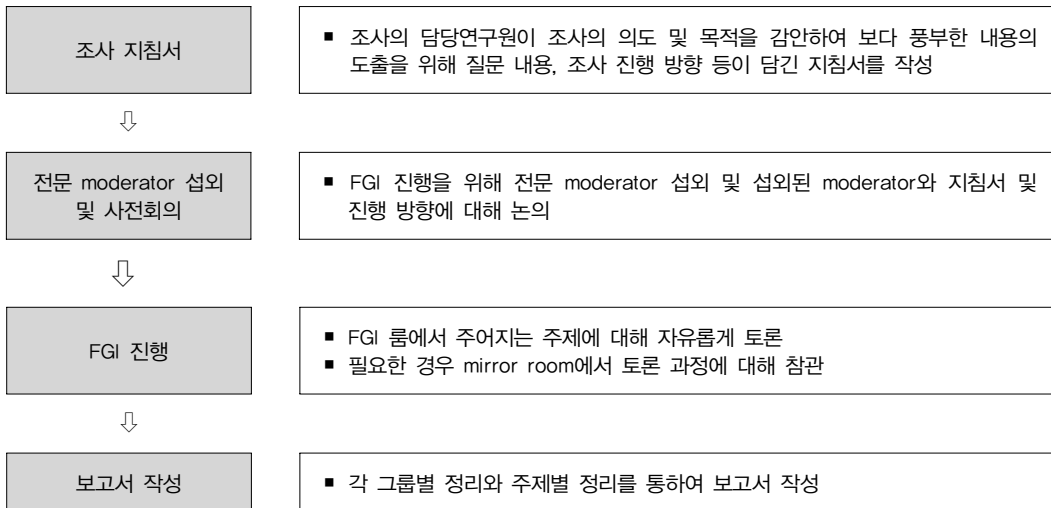
3) 이 조사 절차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오즈 리서치에서 수행한 절차를 기록한 것이다.

【 표 5-3 】 FGI 조사 진행 절차

(1) 참석자 구성



(2) 조사 진행 및 보고서 작성



3. 서울시 여성 집단별 도시 생활 경험 분석

1) 연령별

1.1. 10대 여성 집단

10대 여성 집단 면접은 소녀가장(16세), 아르바이트 학생(16세), 중산층 고교생(18세), 빈곤층 고교생(18세)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녀가장은 조부모와 함께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은 이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10대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사춘기 고민, 학업 부담, 불확실한 미래, 대학진학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례들에서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어려운 것과 대학 진학 시 학비 부담 문제가 더 있었다.

10대에게 있어서 일이란 ‘미래에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며 이를 위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현재는 미래의 좋은 일을 얻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여성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거나 여성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10대는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2번째 사례는 생활비 보조를 위해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소녀가장이나 빈곤층 사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을 하려고 하나 학업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 일하는 10대는 일로 인해 학업이 소홀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다음이 일하는 시간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이었다. 2번째 사례는 한달에 약 5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10대 고용은 나이도 어리고 배달이나 서빙 등의 단순직 일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밀돌고 있다. 이들이 고용되어 있는 작업장도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아 10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10대에게 여가와 문화는 중요한 사안이다. 10대의 여가는 또래 친구들과 보내는 여가와 가족 단위로 즐기는 여가가 있다. 친구들과 보내는 여가는 컴퓨터를 하거나, 주변 큰 상가를 구경하고 다니기, 영화 관람이나 공개 방송 참가 등이다. 여성들이어서인지 스포츠 보다는 영화, 방송, 쇼핑을 즐기는 편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는 휴일에 식사를 하거나,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 TV 시청이었다.

10대에게 여가란 학업의 부담을 해소하고 신체적, 정신적 여유를 얻는 것이기도 하고 장래의 삶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10대에게 다양한 문화 여가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10대 내에서도 여가와 문화는 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중산

층 사례를 제외하고는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다고 하였고 특별히 취미활동을 하는 것도 없었다.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10대 빈곤층 여성들에게 이들이 선호하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표 5-4 10대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10대 여성	생활 경제	-불확실한 미래, 학업부담, 사춘기 고민 -경제적으로 어려운 10대는 대학진학 시 등록금 걱정 -소녀가장은 경제적 어려움, 학교 체험활동, 야외활동 프로그램, 학원 다니지 못함 -집안 경제도움위해 아르바이트 (이혼 후 한부모 가정)
	일자리	-진학에 대한 부담, 좋은 일자리 찾기 위해 -아르바이트 고용조건 열악
	일/가족 병행	-
	돌봄	-
	여가·문화	-여가시간, 문화 공간 부족 -친구 집에 놀러감, 가족과 함께 TV 시청 -공개방송 놀러가기, 거리 돌아다니기, 복합 상가 방문
	건강	-신체건강 보다 스트레스 해소 필요 -아토피나 치아가 좋지 않음 -건강 관심이나 실천 부족
	안전	-학원이나 일 끝나고 돌아가는 밤길 불안 -치한(바바리 맨) 두려움 -큰 길로 돌아가거나 가족 동반함
	주거	-
	대중교통	-도보, 버스로 등학교 -학교에 한번에 가는 버스 노선 필요
	주관적 만족	-평온함, 웃음, 자기만족, 자유

10대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시기이므로 신체적 건강 문제는 별로 없었다. 사례에 따라 아토피나 충치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빈곤층의 경우 치료비 부담으로 치과 진료를 적절한 때 받지 못하고 있었다. 10대 여성들은 신체건강보다는 학업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내성적인 성격, 자신감 저하 등이 문제였다. 10대이기 때문인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고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이나 영양, 실천 등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었다.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컸고 계층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10대 여성들은 밤에 학교나 학원에서 귀가하거나 일을 끝내고 돌아올 때 혼자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여고 앞에 나타나는 치한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10대들의 경우 밤길

안전을 위해 늦게 귀가할 때는 가족들이 동행하거나 큰 길로 우회해서 다니기도 한다.

10대들은 도로나 버스를 이용해서 다닌다. 버스로 등하교 하는 경우 한번에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없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학교까지 한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10대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평온함, 웃음, 자기만족, 자유라고 하였다. 기성세대들이 가족이나 자녀, 경제적 안정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외에 주거나, 돌봄, 일/가족 병행은 10대 여성과는 별로 관련이 없었다.

1.2. 20대 여성 집단

20대 여성 집단 면접자는 대학생, 대학원 준비, 유학준비, 취업준비를 하는 여성들로 중산층 미혼 여성이다. 현재 모두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턴경험이 있는 사례가 2명이고, 직장 경험이 있는 사례가 2명이다.

20대 여성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일자리였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인턴, 취업경험이 있었으나 단기, 불완전 고용, 저임금 등으로 정규적인 직업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아르바이트는 임금이 낮고 단기 고용이어서 경험을 얻는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인턴 업무도 2개월의 단기고용이나 급여수준이 낮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취업을 하였던 사례는 안내 업무를 하였는데 회사 부도로 그만두었다.

20대 여성들에게는 결혼도 중요하지만 일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 때부터 장래의 일에 대해 고민하고 취업을 위한 외국어 실력도 쌓는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전공적합성, 취업정보, 취업경로, 적절한 일자리부족으로 인해 정규직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이들은 직업관련 강의 수강, job fair 참여, 인터넷 취업정보 검색, 학교 취업센터 이용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20대 여성들은 다른 연령 대 보다 구직 수요가 높다. 선호하는 직업 조건은 정규직일 것,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 급여 및 복지 혜택이 좋은 것이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려는 없다.

20대 여성의 또 다른 특성은 문화와 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취향이 있고 가정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롭다. 20대 여성들은 전시회, 공연관람을 하기도 하고 쇼핑이나 맛있는 음식 먹기 등으로 여가 시간을 보낸다. 도심 에 탁 트인 녹지 공간이나 자생적인 문화 공연 거리 등에 대한 수요도 높다.

표 5-5 20대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20대 여성	경제	-대학생 및 대학원 진학자들로 부모님 지원 혹은 직장생활로 경제적 어려움 크지 않음
	일자리	-정규직 취업 희망, 취업준비 어려움(대학생 사교육비 부담) -일자리 경험은 아르바이트, 인턴이나 단기 계약직 취업이 많음 -일자리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 -대학에서 개최하는 일자리 박람회, 학교의 추천제, 취업강좌 이용
	일/가족 병행	-결혼도 중요하지만 일 중요
	돌봄	-
	여가·문화	-문화와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 가장 큰 집단임 -전시회, 공연관람 즐김, 쇼핑이나 맛있는 음식 먹기 등 -공연, 미술관, 영화관람 즐기나 대학생 할인이 없어 부담 -도심에 탁 트인 녹지 공간 조성 필요
	건강	-건강문제 그리 크지 않으나 스트레스는 문제 -건강과 미용을 위한 헬스하나 규칙적 운동 어려움 -문화생활, 소비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안전	-밤길 안전, 치한 두려움, 외진 곳에서 핸드폰, 호신용품 소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 시 두려움 -직장에서의 상사 성희롱, 성적농담, 잔심부름 부담함
	주거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주거 원함
	대중교통	-대중교통 주로 이용 -대중교통에서의 성희롱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이 문제
	주관적 만족	-행복은 평범한 일상, 문화생활, 원만한 인간관계, 자신의 일에 대한 즐거움, 경제적 풍요로움

20대 여성들은 건강 문제는 신체적 건강보다 스트레스가 문제이고, 건강과 미용을 병행해서 고려한다. 20대의 건강 유지는 미용을 위한 헬스를 하거나 문화생활, 소비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안전 문제는 20대 여성들도 공유하는 문제이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가족에 의존하거나 피하기보다 핸드폰이나 호신용품을 소지하여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취업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상사의 성희롱, 성적 농담, 성차별에 대해 민감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20대 여성들은 부모와 독립된 주거 공간에 대한 욕망이 크다. 이들은 직장을 갖게 되면 직장 근처에서 주거할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원한다. 도심에 환경이 좋은 원룸 형태의 주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한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출퇴

근 시간의 혼잡을 해소하고 지하철 내에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대 여성들이 생각하는 도시 생활에서의 행복은 ‘평범한 일상’, ‘문화생활’, ‘원만한 인간관계’, ‘자신의 일에 대한 즐거움’, ‘경제적 풍요로움’이다. 이것이 바로 도시의 20대 여성들이 바라는 삶이다.

1.3. 60대~70대 노인 여성

60대~70대 노인여성 집단 조사 대상은 모두 60대이며, 독거노인(10년), 노인부부가구, 2세대(남편과 아들 내외)가구, 3세대 가구(남편 사별, 아들내외, 손주) 노인여성이다. 경제적으로는 3세대 노인가구만 가게를 운영하여 생활하고 나머지는 자녀의 용돈이나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노인 여성들의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가족 내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기 어렵다. 조사 결과 노인여성들은 국민연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인 여성들도 일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이 60대 여성들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노인 여성들이 원하는 일은 노동 강도가 세지 않고 용돈 벌이 정도의 일이다. 그러나 시의 희망근로와 같이 단순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근로참여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없는 일에 대한 반감이 크다. 노인 여성들은 노동 숙련도가 떨어지므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출장요리, 도시락, 원예 등)을 중심으로 숙련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노인 여성 집단에서는 손자를 봐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 가족 내 돌봄 노동은 30~40대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인 여성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이 공백을 가족 내 노인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여성도 여가에 대한 수요가 컸다. 이들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 문제는 노인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많았고 노인 우울증도 문제도 심했다. 여가와 건강 모두 노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이었다. 빈곤층 노인 은 여가를 즐길 여유도 없었고, 신체적 질병은 많으나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표 5-6 | 60~70대 노인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60~70대 여성	경제	-자식들로부터 용돈이나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음 -절약이 몸에 밴 세대이나 경조사비는 부담 -노인이라도 재산이 필요, 노후보장 필요 -연금을 많이 보지 않은 것이 후회
	일자리	-출장뷔페 아르바이트 상담, 자녀가 하는 과일가게 도움 -시에서 하는 희망근로는 60세 이상 4시간 근로 제한, 잡초 뽑기 시켜 기분이 나쁨. 임금 43만원 중 2/3만 현금, 나머지는 쓸 수 없는 쿠폰(구멍가게 쿠폰)을 줘서 그만둠 -일을 희망하지만 노동 강도 약하고 의미가 있는 일 -용돈 벌이정도의 임금 수준 원함
	일/가족 병행	-
	돌봄	-손자 양육 부담, 개인시간 부족, 신체적 부담 -가족 내 의사소통 부재, 자식에게 이야기 하면 부담
	여가·문화	-중산층 노인은 쇼핑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노인 옷 파는 곳 없어 불편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수영, 탁구, 주민센터, 영화보기 등)
	건강	-만성질환(혈압, 관절염, 폐경 등) -무료함이나 외로움, 우울증, 자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중산층은 건강 검진을 하나 독거노인, 빈곤층은 건강 검진 -영양제, 식이 보충제 섭취로 건강 확보/ 간단한 운동 -보건소는 저렴한 약, 중고기계 사용해서 불만
	안전	-안전문제는 주택가 줌도둑, 놀이터 불량청소년이 위험
	주거	-노인세대 단독거주 시 대체로 만족 -자녀와 거주 시 며느리관계, 손자 돌봄 문제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지역에서 살기를 원함 -실버타운 비용이 저렴하고 시설이 많아야 함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 -지하철 무료승차 이용, 갑갑하고 계단불편. 버스를 더 선호
	주관적 만족	-행복은 신앙생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함, 젊음 추억 -가족원에 대한 즐거운 기억들

여성 노인들이 도시 환경에서 문제시 하는 부분은 주거 부문이다. 이들은 평균 수명의 증가와 가구 형태의 다양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 한다. 이들의 주거 수요는 특이하다. 낯선 곳보다는 오래 살던 곳을 좋아하고 자녀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을 선호한다. 주거비가 많이 들지 않아야 하고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내부 구조를 갖추기를 원한다. 필요시에는 실버타운을 원하기도 하는데 일반 여성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고 한다. 주거 문제 역시 경제적인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연령이 높고,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의 여성 노인 혹은 노인 단독가구를 위한 공공 주택이 필요하다.

여성 노인들이 대중교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동성의 문제이다. 지하철은 무료이

용이 가능해서 선호하나 계단이 많아 불편하다고 한다. 노인 여성들은 이동 시간의 제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선호하기도 한다. 노인 여성들을 배려하는 버스 운행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 여성들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을 때, 젊은 시절에 대해 추억을 할 때, 가족들 간의 즐거운 기억을 떠올릴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하였다. 노인 여성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 적절한 주거 환경, 자녀와의 좋은 관계들을 유지시켜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혼인별/자녀유무

한국은 규범적 혼인규범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난 가족이나 가구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쉽다. 따라서 이들이 도시 생활에서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 공간적으로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비혼, 이혼, 재혼, 사실혼 집단과 싱글맘, 이혼/재혼자녀 있는 여성, 입양자녀가 있는 여성 집단, 그리고 자녀가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들의 도시 생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2.1. 비혼/이혼/재혼/사실혼 여성

비혼/이혼/재혼/사실혼 여성 집단은 38세 비혼 여성, 39세 사실혼 여성(동거 2년), 38세 이혼 여성, 42세 재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이었다. 이혼한 여성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직업도 없어 생계가 어려웠다. 사실혼, 비혼, 재혼 여성도 모두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30~40대 연령대로 이전에 일을 한 경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수기 판매나 마트 직원 등 단순, 저임직에 종사하였으며 고용기간도 길지 않았다. 비혼 여성은 유치원 교사직을 그만두고 보다 장래성 있는 직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 그룹의 여성들은 숙련 기술이 없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자격증을 따기에도 연령이나 자녀양육으로 인해 제한이 많은 집단이다. 그러나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생활을 꾸려야 하므로 집중적인 직업 교육이나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자녀 돌봄의 문제도 컸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자녀를 데리고 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 것, 그리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가족관이나 결혼관의 문제가 크다. 이들이 가장 문제시 하는 부분이 우리의 가족 가치관에 대한 것이었다. 즉 이혼녀, 혼자 사는 여성을 무시하는 것, 정상 결혼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불쾌한 시선들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집단에서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여가와 문화를 즐길 겨를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집단이야 말로 삶의 여유와 쉼이 필요한 집단이다. 이들은 집 근처에 가족 단위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표 5-7 비혼/이혼/재혼/사실혼 여성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비혼/이혼/ 재혼/ 사실혼 여성	경제	-이혼 후 정기적 수입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큼 -이혼 후 남편으로 양육비 받기 어려움 -사실혼 여성은 수입이 일정치 않아 어려움 -비혼 여성은 노후 불안
	일자리	-기술 익히기에 나이가 많고 연수기간 채우기가 어려움 -복지관에서 인테리어 자격증 취득, 건강 나빠 쉬고 있음 -정수기 코디, 마트 캐셔 등 근무 -비혼 여성은 장래가 있는 업종으로 창업 계획
	일/가족 병행	-이혼여성은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일/가정 양립 부담
	가족관/결혼관	-결혼 제도는 여성에게 희생 요구, 결혼으로부터의 자유 필요 -이혼녀,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무시 불만 -정상결혼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불쾌한 시선
	돌봄	-이혼여성은 자녀와 분리(시부모에 맡김), 경제적, 자녀양육문제로 -사춘기 아이와의 정서적 갈등문제
	여가·문화	-여가나 문화시설 이용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 없음
	건강	-건강문제는 우울함, 삶에 대한 불안, 성취감이 없는 것 -허리 디스크, 척추 측만증 증세 -정규적 운동은 어려움, 필요시 동사무소 헬스 이용 -보건소는 멀고, 예약제, 신뢰도 문제로 이용하지 않고 병원이용 -간단한 검사는 저렴한 보건소를 이용하기도 함
	안전	-폭주족이 무서움 -경비가 잘된 아파트는 문제가 없음. 저소득층 일반 주거지는 사건, 사고가 많고 치안이 불안한 것이 문제
	주거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에서 전세로 살므로 주택 임대비 부담 -안정된 주거 공간 확보가 중요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시 혼잡도 문제, 지상을 운행하는 버스 선호, 지하철은 빨라서 이용
주관적 만족	-경제력, 건강, 행복한 일상	

이들의 건강, 안전, 주거, 대중교통 문제들은 모두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롯되고 있다. 건강상으로는 스트레스, 우울함, 삶에 대한 불안,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등 정신 건강의 문제가 컸다. 저소득층 주거지에 거주하다 보니 치안이 불안하고 사고가 많은 것이 위험 요소이었다. 주거 문제도 컸는데 전세나 임대비 부담이 큰 것과 공간이 좁은 것, 주거환경으로 적절치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들은 가족이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 사는 것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컸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고 출퇴근 시 혼잡도와 주거지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들은 경제력을 갖추는 것, 건강, 행복한 일상을 행복 요소로 꼽았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배제가 문제가 이들에게 심각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2. 싱글맘/입양/이혼·재혼 자녀 있는 여성

이 집단은 싱글맘(30세), 입양자녀 양육하는 여성(47세), 이혼 후 자녀 양육하는 여성(41세), 재혼 후 자신과 배우자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44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싱글맘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이혼 여성은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재혼여성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 집단에서도 생활비와 자녀양육비, 교육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 두 사례는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있으나 싱글맘과 이혼 한부모 여성은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재혼 여성은 아이들이 많아져서 자녀 교육비가 부담되고 싱글맘과 이혼 한부모는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례들에서는 일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들은 계약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이 낮고 경기에 민감하여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다. 모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공공근로나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자영업을 선호하고 있다. 남편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공공 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자 폭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영업은 자본 투자와 운영에서 어려움이 많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가문화, 건강, 안전, 주거, 대중교통과 관련된 수요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많은 앞의 집단과 유사하다.

이들은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사회의 고정 관념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상 가족에서 벗어난 여성이나 아이에 대해 낙인찍기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한다.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보면 '정상적인 가정',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 '가족을 이루는 것', '가족간의 화목함'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집단이 가장 고통 받는 것이 혈연 중심의 가

족, 이성애적 핵가족을 규범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특정 가족만을 정상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자녀 관계에 대해 포용하도록 해야 도시의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5-8 ■ 싱글맘/입양/이혼·재혼 자녀 있는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싱글맘/ 입양/ 이혼·재혼 자녀있는 여성	경제	-생활비, 자녀양육/교육비 부담이 가장 큼
	일자리	-계약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에 종사하나 임금 낮고, 경기에 민감함 -희망근로(소득제한, 가족이 있는 경우 제한)는 제약이 많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자영업에 대한 수요 큼(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경제적 보상) -그러나 자영업은 운영 부담이 큼
	일/가족 병행	-퇴근 후에도 집안일, 아이돌보기 힘들 -시부모의 도움도 받기 어려움
	가족관/ 자녀관	-정상 가족에서 벗어난 여성, 아이에 대한 낙인찍기 문제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의 한계(급식비, 학비지원이 아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줌)
	돌봄	-싱글맘은 경제적 문제 부담, 보육은 도우미에게 맡김
	여가·문화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경제적 여유 없음
	건강	-건강은 우울함이 문제, 건강증진이나 운동할 여유 없음, 그냥 씬 -디스크, 위장병 질병 -병이 있어도 병원비 부담으로 가기 어려움 -심할 때는 병원이나 약국 이용
	안전	-주거지 사건, 사고, 치안 문제
	주거	-주거지 마련 비용 부담, -녹지, 치안, 자녀 학군이 좋은 주거지 선호
	대중교통	-대중교통 주로 이용 -출퇴근 시 혼잡함, 쾌적하지 못함 문제(냄새), 취객
주관적 만족	-정상적 가정, 아이들의 모습, 가족을 이루는 것, 가족간의 화목함 -직장과 아이로부터의 자유	

2.3. 불임/자녀 없는 여성

자녀 없는 여성 집단의 조사대상은 모두 30대 여성으로 이 중 두 사례는 불임클리닉을 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이혼 후 자녀가 없는 여성, 결혼 한지 1년이 갓 넘은 여성이다.

불임 혹은 자녀 없는 여성들은 자녀 양육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생활의 어려움이 없었고 취업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았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일/가족 갈등도 없고 돌봄 노동의 부담도 없다.

이들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부부 중심으로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문화 공연을 즐기기도 한다. 개인 가족 차원에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공

공 부문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이제까지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이 집단은 건강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연령대가 젊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질병이 있어도 병원을 이용하여 치료한다. 보건소는 신뢰도가 낮아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 건강을 위해 건강 보조제나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등 건강 증진에 적극적이다.

이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녀의 문제이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녀가 없는 가구를 일탈적인 가정 혹은 불행한 가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자녀 없는 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이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를 낳기 위해 불임클리닉을 이용하는데 시술비가 비싸고 시술과정이 복잡해서 어려움이 많다. 불임 시술의 성공률이 높지 않아 여러 번의 시술을 받아야 하고 이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된다. 시술 과정도 복잡하여 몸에 무리가 가고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심리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상담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 문제를 제외하고는 도시 생활에서 불편사항은 그리 많지 않다. 주거 지역도 경비원이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의 위험도 적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주거지와 대중교통의 거리가 먼 것, 대중교통의 환승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 지하철 모든 구간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것, 버스는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행복 요소는 '아이의 웃는 모습', '부모, 조카, 형제자매와의 여행', '휴가와 휴식'으로 자녀와 가족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다.

표 5-9 불임/자녀 없는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불임/ 자녀없는 여성	경제	-대체로 생활이 안정되어 있음, 자녀 교육비 부담이 없으므로 -불임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담이 됨
	일자리	-취업에 대한 수요 크지 않음
	일/가족 병행	자녀가 없으므로 일/가족 양립 어려움 없음
	가족관 자녀관	-자녀 없는 가족을 비정상 가족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돌봄	-
	여가·문화	-부부와 함께 여가 보내기(여행), 운동(요가, 헬스, 등산) 즐김 -구청의 음악회 공연 보기
	건강	-건강을 위해 보조제, 건강식품 섭취 -불임클리닉 이용 비용부담으로 중단 -불임 클리닉 이용 시 심리적 부담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보건소 이용 거의 하지 않고, 신뢰도 낮음
	안전	-경비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걱정 없음
	주거	-주거 안전에 대한 수요 큼 -주거지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
	대중교통	-대중교통의 환승이 원활할 것 -승용차도 필요시 이용 -대중교통 거리가 멀, 마을버스 연계 및 환승문제, 스크린 도어시설 -버스는 기다리는 시간이 김, 목적지도착까지 시간예측 불가 -늦은 시간 귀가할 때는 택시 이용
	주관적 만족	-부모, 조카, 형제자매와의 여행이나 모임 -휴가와 휴식, 아이의 웃는 모습

3) 돌봄 노동 유형별

3.1. 자녀 돌봄 여성

자녀 및 노인을 돌보는 여성 집단은 30대에서 40대 여성으로 취업주부 2사례와 전업주부 2사례로 구성하였다. 모든 사례에서 자녀는 2명이며 취업 주부 2사례는 시부모까지 부양하고 있다.

자녀 및 노인을 돌보는 집단에서는 자녀 학원비, 노부모 용돈, 경조사비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이 비용은 줄이기가 어려워 외식비를 절약하거나 대형 마트에서 싸게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절약을 한다.

위의 사례 중 취업주부가 있고 노인과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업을 그만 둔 사례도 있다. 일이 있으면 자녀 돌봄이나 노인 돌봄과 병행하기 힘이 들지만 일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돌봄 노동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사례들에서는 취업한 주부가 2사례나 되었으므로 취업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었다.

자녀 돌봄에서는 물리적인 돌봄 외에도 자녀의 교육, 학습,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컸고 자녀의 정서적 문제, 생활태도, 학습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전업주부일 경우 모든 삶이 자녀 우선으로 되어 있다. 자녀의 성적이나 교육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주거지도 자녀의 안전과 학군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안전도 자녀의 밤길 안전이 문제가 되고 대중교통도 자녀가 안전한 대중교통을 원하고 있다.

돌봄 노동을 하면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일/가족 병행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가 크다. 가정 내에서는 남성들의 가사, 양육, 노인 돌보기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대상 15개 집단 중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집단에서 남편의 가사 참여 및 돌봄 노동 공유를 주장하는 요구가 가장 크다.

돌봄 노동으로 인해 이들 역시 여가나 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보내는 활동이 여가인데, 산책, 등산, 요가, 체조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행복에 대한 인식도 '남편과의 원활한 소통, 여행, 가사분담'으로 남성의 가족 책임 공유를 들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자기에 대한 투자, 자기만족, 현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등 가족과 자신의 발전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다.

표 5-10 자녀 돌봄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자녀 돌봄 여성	경제	-자녀 학원비, 노부모 용돈, 경조사비 부담 -자녀 소비는 줄이지 못함, 식비 절약, 저렴한 마트에서 대량 구입으로 생활비 절약
	일자리	-자녀를 돌보는 경우 취업 수요 크지 않음,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그만 둔 경우도 있음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시도는 하지 않는 편임 -노인을 돌보는 경우는 일을 계속할 예정임
	일/가족 병행	-남편이 적극적으로 집안일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 개선 필요 -일하면서도 자녀/노인을 돌볼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
	돌봄	-자녀 보육, 학습, 사교육에 대한 부담 큼 -자녀의 정서적 문제, 생활측면, 학습 등에서 자녀 돌봄에 깊이 관여
	여가·문화	-여가문화 시간적 여유 없음 -가족과 산책, 등산, 요가, 체조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
	건강	-자녀성적문제, 직장 없음, 자녀 교우관계로 스트레스 -보약, 운동, 스트레스 해소 -질병 발생 시 병원 이용 빈도 높음
	안전	-경찰 치안이 닿지 않는 지역은 안전문제 위험인식 높음(도둑) -자녀들의 밤길 안전 문제
	주거	-주거지 교통, 쾌적한 환경, 안전, 학군이 주거지 선정에서 중요
	대중교통	-자녀가 안전한 대중교통
	주관적 만족	-남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여행, 가사분담 -자기에 대한 투자 -자기 만족, 현실에 대한 감사

3.2. 노인 돌봄 여성

노인을 돌보는 여성들도 자녀의 교육비와 노부모 용돈, 경조사비 등 가족과 관련된 경제적 지출이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 돌봄은 자녀 돌봄보다 여성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시부모가 치매인 사례에서 보면 시부모를 모시면서 매일 식사 준비를 하는 것, 병원을 다니는 것, 치매지원 인력보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시부모를 부양하는 것 자체가 정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치매노인을 모시다 보니 신체적인 피로가 심하게 누적되어 있다.

표 5-11 노인 돌봄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노인 돌봄 여성	경제	-노부모 용돈, 경조사비 부담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자녀 교육비
	일자리	-노인부양으로 일을 그만둠. -일이 있는 여성은 노인 부양이 부담이 되지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이 있는 것이 더 긍정적
	일/가족 병행	-
	돌봄	-노인을 모시므로 매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 부담 -시부모 모시기에 신체적, 정서적 긴장과 스트레스 -노인 모시고 병원 다니기도 힘이 듦. -치매노인 시설 이용을 선호하지 않음(가족, 자녀들) -요양보호사 제도를 잘 홍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족/형제간에 노인 부양 부담 공유(경제적 지원, 돌봄) -남편의 노인 돌봄 노동 부담이 필요 -요양 보호사 자택 방문으로 돌보는 여성이 자기시간 확보
	여가·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정도 -개인적 여가 활동 별로 없음
	건강	-노인 돌봄 스트레스, 자녀, 직장 스트레스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 등산 -행복한 마음가지기 -질병발생시 병원을 주로 이용
	안전	-밤길 안전 문제
	주거	-교통편리성, 안전함, 대형마트 등이 중요
	대중교통	-노인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
	주관적 만족	-경제력, 남편 직장 재계약 -남편의 가사 부담, 자기만족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서 일을 하는 주부는 경제적인 비용은 많이 들어도 대체 인력이 노인을 돌보므로 전업주부에 비해 신체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긴장감이 덜하다.

노인을 돌보는 여성은 자녀도 같이 돌보고 있으므로 이중의 돌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가나 문화를 즐길 여유도 없고 노인과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하여 노인을 모시고 병원을 가거나 이동을 할 때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노인을 돌보는 여성들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보호사 제도를 잘 홍보하여 여성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여성을 위한 일시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심리 상담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4) 취업 유무 및 고용형태별

취업과 관련하여 집단은 비정규직 노동과 무급가사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미취업자 모두 3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고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열악한 상태에 있다. 가족 내에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여성들은 노동가치도 인정받지 못한다. 여성취업의 문제가 경력단절 여성에 집중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여성 중에서 불안정한 고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4.1. 비정규직 노동 여성(일용직, 계약직,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 여성 집단은 대형마트 캐셔(51세), 학습지 교사(38세), 백화점 판매직(47세), 주류 판촉(36세) 일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일은 전형적인 여성 직종이고 근무 형태는 단기 계약제였다. 모두 혼인하여 자녀가 있었고 일/가정 양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근로를 하는 여성들은 생계유지자 남편의 해고나 감봉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을 하고 있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급여의 차이, 업무의 차이가 가장 불만스럽다고 하였다. 비정규직이므로 실적이 없으면 감원될 수 있고 계약이 만료 시기가 되면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신경 쓰인다고 한다. 이들은 일/가족 양립을 위해 집에서 거리가 가깝고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업무를 선호하고 있었다. 장시간 노동과 고객을 상대하는 감정노동, 서서 일하는 신체적 노동으로 어려움이 크다. 기존의 고용이 불안정한 것과 이직을 하여도 단순 저숙련의 비숙련

노동으로 수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도 다른 주변화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가나 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고, 가족과 함께 주거지 근처에서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여가이다.

이들의 건강은 직업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이므로 무릎이나 다리 통증이 있고 근육이 뭉치거나 하는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다. 치료를 받을 시간도 없고, 치료비도 부담이 되어서 직장 내 건강 상담소나 진료소가 필요하다.

【 표 5-12 】 비정규직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비정규직 (시간제·계약직·일용직) 여성	경제	-물가가 오르나 급여 삭감으로 생활비 감소 불안 -남편의 감원에 대한 불안 -자녀의 교육비 가장 큰 부담, 대학 등록금 부담
	일자리	-비정규직이라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필요 -비정규직 차별과 무시(급여, 업무 차이) 해소 필요 -장시간 노동을 하나 급여는 많지 않음, 그래도 생활보탬이 됨 -집에서 가깝고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업무(마트 업무 종사) -고객응대(감정노동)와 서서일하는(신체적 노동) 부담 큼 -이직을 원하나 다시 비정규직으로 취업 악순환 -비정규직이라 (영업직) 실적이 없으면 감원 대상이 될까봐 두려움
	일/가족 병행	-자녀가 어린 경우 시간제, 집에 가까운 곳으로 일을 정함
	돌봄	-보육시설 종일반 프로그램 필요 -아이들 질병이나 학교방문을 위한 휴가 필요
	여가·문화	-여가나 문화생활 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 없음 -딸과 함께 영화보기, 대공원 다니기, 집에서 맥주마시기, TV -가족과 함께 집이나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
	건강	-무릎, 다리 통증, 고객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업 건강문제 -직업 건강 프로그램 필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관리하기도 하나 규칙적으로 하기어려움 -운동, 건강보조제 섭취보다 쉽 -멀리 갈수 없으므로 주변 생활환경 내 녹지 환경 조성 -큰 병이 생기면 병원 이용, 근육이 뭉칠 때는 한의원, -비용이 부담될 시 약국 이용
	안전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므로 안전 문제 큼 -밤길 안전 문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많으나 고용불안정으로 문제제기 어려움 -성적 농담, 엉덩이 만지기 등 고통 심함
	주거	-주택전세자금 부담이 큼 -저소득 주거 지역이므로 연결 교통망이 부족한 것이 문제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집단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므로 대중교통이나 이동편의성 확보
	주관적 만족	-가족의 건강, 자녀들에 대한 사랑, 자녀의 재능 -봉사활동, 자기만족, 긍정적인 마음 -자녀 취업

4.2. 무급가족종사자 및 영세자영업자 여성

이 집단은 백화점 푸드 코트에서 남편 일을 돕는 사례(50세), 노래방 자영업자(49세)와 비정규직(41세), 아르바이트(40세)를 하는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40~50대 기혼 여성들로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하고 열악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네 사례 모두 일을 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이 불안정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며,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지만 보상이 잘 되지 않고 고용 상 지위도 보장이 되지 않는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 집단은 현재의 일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하지만 연령이 많고 숙련도가 낮아 여의치 않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금, 그리고 경영지원 등을 필요로 한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불안정 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 자녀 교육 외에도 학습 능력 향상에도 관심이 많아 공공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가나 문화를 즐길 시간이 없고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의 문제는 있으나 병원비 부담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건강은 운동, 등산, 산책 등으로 유지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고, 일을 해야 하는 여성 집단과 대체로 동일하다.

심야에 퇴근을 하는 사례가 있어 밤길 퇴근 시 위험, 자동차 안전 위험, 심야 시간 방범체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도심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쓰는 화장실은 성폭력의 위험이 있을까 두렵다고 하였다.

주거 문제는 전세금이 상승하는 것과 집값이 오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주던지 서민 주택을 많이 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공공 주택은 일터와 가까운 도심지에 위치를 정하여야 하고 주거 단지의 안전체계 및 주택 환경의 질이 민간부문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기 때문에 출·퇴근시 혼잡 문제를 지적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대중교통의 혼잡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냄새, 서로 몸이 닿는 것, 성희롱 등을 특히 불쾌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선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차시간, 노선, 안전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도 행복 요소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으로 꼽았고, '건강', '자녀사랑', '자녀의 성공', '평범한 일상과 자기만족'으로 다른 집단들과 유사하다.

【 표 5-13 】 무급 가족종사자 및 영세 자영업자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무급가족 종사자 · 영세 자영업자 여성	경제	-소득감소 및 물가인상으로 생활비 부족이 문제 -빚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혼 -자녀 학자금, 사교육 부담 -생활고로 마트에 가지 않고 재래시장 이용
	일자리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장시간 노동 어려움 -하루 종일 일하거나 늦은 퇴근 시간(밤 3시), 주말 없이 근무 -직원 월급 절약하기 위해 참여 -경제가 어려워져 일감이 줄고 장사가 잘 안되는 것이 문제 -자영업자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정규직 인력 지원 있었으면 -자영업자 운영자금 장기 저리 융자 필요 -취업 시 나이제한 금지, 미숙련 여성 일자리 제공 필요
	일/가족 병행	-장시간 노동, 퇴근시간 일정치 않아 집안일 양육 부담 해소 필요
	돌봄	-구립어린이집이 사설유치원보다 교육지도(영어, 학교학습) 미흡함 -구립유치원 선생님이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어 보육에만 치중 -사립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
	여가·문화	-여가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여 생활지역 내 쉼터, 녹지 조성 필요
	건강	-병원비 부담으로 병이 있어도 의료기관 이용하지 않음 -운동, 등산, 산책 등으로 건강 유지
	안전	-밤길 퇴근 시 위험, 자동차 안전 위험, 심야 시간 방범체계 확립 -남녀 화장실이 같이 되어있는 곳에서 성희롱, 치한 두려움
	주거	-전세금 상승, 집값 상승이 문제, 주택마련이 최고의 현안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정부 지원 확대 필요 -저소득층 주거 지역 환경, 안전 체계 확립 -직장 가까운 곳에 주거지 결정
	대중교통	-대중교통 주로 이용 -대중교통 환승체계, 지선버스 확대, 출퇴근 시 혼잡도 문제
	주관적 만족	-경제력, 건강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사회적 인정받음 -평범한 일상과 자기만족

4.3. 미취업 여성(경력단절, 이직준비, 취업준비)

미취업 여성은 전업을 위한 임시휴직 사례(미혼, 34세), 혼인으로 인한 사직(41세, 2년 근무, 15년 경력단절), 임신으로 인한 사직(31세), 전업주부(46세, 홈패션 정리) 4 사례를 면접하였다.

이들은 이전에 일을 했다 해도 현재 경제적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는 불편한 의식이 있다. 일반적인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노후 준비 걱정, 자녀의 교육비 걱정을 하고 있다.

이들이 일을 그만둔 것은 결혼, 임신, 고 3인 자녀 뒷바라지로 가족의 돌봄 노동을 위해서였다. 미혼의 경우는 보다 나은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만두었다. 이들이 비록 경력단절이 있기는 하나 모두 일에 대한 욕구는 강하였다. 이들은 일/가정을 양립해야 하므로 근로 시간과 급여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유연 적이되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는 보수가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취업 의사가 있기 때문에 취업 정보를 탐색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희망하는 직종은 출장 뷔페 요리사, 베이비 시터 자격증, 학원 경영, 학원 상담사, 자영업 등이다. 이들이 취업정보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이다.

이들 집단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가족 양립 어려움이 없고, 여가나 문화를 즐길 시간적 여유가 높다. 전형적인 중산층 기혼 여성의 여가 활동인 문화센터 이용, 친구들과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기를 즐기는 집단이다.

연령이 높은 사례에서는 비만이나 관절의 문제가 있고, 출산 직후의 사례는 산후 우울증의 건강 문제가 있었다. 이들은 규칙적인 운동이나 산책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 수요도 높았다.

밤길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밤 시간대에는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녀의 학원 귀가 시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데리러 다니고 있다.

이들이 대부분 중산층이기 때문에 주택 마련보다는 학군, 마트, 공원, 교통이 잘 갖춰진 주거지를 요구한다. 대중교통에서도 자녀를 동반한 경우 승용차를 이용한다. 승용차 이용 시 자녀 안전, 주차 안전 문제에 대한 수요가 높다.

주관적인 행복요소는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는 것, 아이의 재롱, 가족 식사나 여행 등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행복요소로 꼽고 있다.

표 5-14 미취업/경력단절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경제	-경제가 어려워져 생활비(식비, 외식비) 줄임 -노후 준비 걱정, 자녀 대학등록금 부담 -일을 하지 않으니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여유나 명분이 없음 -중산층 여성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음에 불만
	일자리	-고 3자녀 지원, 사춘기 자녀, 결혼, 임신, 전업희망 등으로 미취업 -자격증 취득 수요 강함(베이비 시터, 학원경영, 학원상담, 장사) -아르바이트, 취업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얻음 -직업훈련 교육(인터넷, 자격증 취득 지원) 참여 -재취업 시 급여, 근무시간이 가장 중요(일/가정양립)-적절한 일자리 연결 필요
	일/가족 병행	-
	돌봄	-자녀 학습, 정서, 생활 모든 면에서 돌봄 역할 담당
	여가·문화	-여가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 높음 -문화센터 이용, 친구들과 맛있는 것 먹으로 다니기
	건강	-미혼, 출산 직후 여성은 우울증, 스트레스 문제 -비만, 관절 등의 문제 -규칙적인 운동, 산책으로 건강 유지 -정기적인 건강 검진 수요 있음
	안전	-밤길 잘 나가지 않음 -자녀 학원이 늦게 끝날 때 데리러 나가야 함 -운전면허 연수 때 강사가 언어 성희롱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성희롱
	주거	-학군, 마트, 공원, 교통이 잘 갖추어진 주거지 선호
	대중교통	-대중교통과 승용차 이용 -아이들과 이동할 때 승용차가 편리 -사람 많은 지하철의 성희롱
	주관적 만족	-아이들 성적 오름, 아이의 재롱 -가족 식사나 여행 -자기만족, 긍정적인 마음

5) 계층별

5. 1. 빈곤·중하층 여성

빈곤·중하층 여성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이 집단은 무급가족종사자(36세), 자영업(40세), 사무직(34세), 식당아르바이트(47세)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빈곤·중하층의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 생활비, 주거비, 자녀교육비 수요가 크지만 소득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생활비 보충을 위해 식 재료는 시골

에 있는 부모에게 지원을 받고 있다.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집세이며, 월세나 전세로 살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면 타격이 크다. 이들은 정부의 주거정책, 3자녀 수당 정책, 영세민 지원책이 실효성이 없고 생색내기에만 그친다고 비판한다. 빈곤층 자녀에 대한 무료급식을 받고 싶어도 아이들 자존심이 상할까봐 신청하지도 않고 있다.

모두 일을 하고 있으나 단순 사무직, 시간제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장시간 근로에 단순직, 저임이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자본이 적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이들은 희망근로 등 공공 부문 일자리에 관심이 많았다. 공공 부문 일자리에 참여하려고 해도 남편이 있거나 기준 연령 이하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어려우므로 일자리 참여 대상의 확대나 근로 형태 및 근로 시간의 다변화를 요구하였다.

빈곤층 집단은 다른 주변 화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도시 생활에서 여유를 찾기 어렵다. 건강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의 문제로 우울증, 스트레스가 높고, 불규칙한 노동시간으로 위장장애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휴식도 취하기 어려워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지역도 저소득 주거지에 거주하므로 치안문제,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한 수요가 높고 지역에 싸고 이용하기 편한 재래 장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거나 전세금 안정을 시켜야 한다는 수요가 높다.

교통은 도보를 많이 하고 차로 이동해야 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이힐이 끼지 않는 길도 좋지만 걷기에 편한 길이 되어야 할 것이며 환승이 잘 되는 대중교통 체계를 원하고 있다.

이들의 행복요소는 '경제적 풍요로움', '건강', '아이들의 모습', '가족의 화목함'이다.

【 표 5-15 】 빈곤층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빈곤 여성	경제	-생활비 보태기 위해 일함, 과도한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 낮음 -생활비 중 집세에 가장 지출을 많이 함. -주택 구입이 최대 목표, 전세금 올라가는 것이 부담 -정부의 주거정책이나 3자녀 수당 정책, 영세민 지원책 불만
	일자리	-경제적 필요로 일하는 비율 높음 -단속 사무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에 참여하나 단순직 업무에 저임에 불만 -자영업의 경우 자본이 적어 수익이 나기 어렵고 운영 어려움 -공공 부문에서 가정주부를 위한 희망 근로제 지원 필요 (생계부양자 있어도 가능, 고려제한 해소, 자녀양육과 병행가능한 시간제 운영)
	일/가족 병행	-
	돌봄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
	여가·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마음의 여유 없음 -쉽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가, 문화 공간 필요
	건강	-경제적, 자녀양육, 심리적 문제로 스트레스, 우울증 심함 -불규칙한 노동시간으로 식사 시간 일정치 않음 -규칙적인 운동이나 휴식취하기 어려움 -병원비 부담으로 아파도 병원 잘 가지 않음
	안전	-저소득층 주거지 방법과 치안 -좁도둑, 치한, 폭력 -밤길 안전 문제, 자동차 안전, 아이들 귀가길 걱정
	주거	-전세, 월세 거주자가 많음 -전세금 지원, 주택 용자 확대, 저렴한 주택 보급 확대 -저렴한 동네 장터(이동 시장) 개설 -저소득 층 주거지 치안 및 안전 확대
	대중교통	-도보 이동 많음 -대중교통 이용이 많으므로 환승체계, 다양한 노선이 필요
	주관적 만족	-경제적 풍요로움, 건강 -아이들의 모습, 가족의 화목함

5. 2. 중산층 여성

본 장에서는 서울시 여성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주변화된 여성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집단은 서울시 여성들 중 전형적인 이성에 핵가족 여성들로 이들의 경험도 다루어야 다양한 서울 여성의 생활상 지형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집단은 취업여성과 전업주부 각 2사례씩 선정하였으며 전업주부의 경우는

시부모와 노모를 모시고 있었다.

이들은 중산층으로 생계유지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노후 생활자금 준비, 가장의 고용안정 우려,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은 느끼고 있다.

이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능력 계발'을 위해 일을 찾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나 컴퓨터 학습을 하는 등 자기 계발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도 자녀보육 기회비용 이상의 수입을 원하고 있다. 전업주부 사례들은 육아로 경력단절을 한 여성들이었으며 이들은 연령이나 숙련도에서 기존 직장으로 유입이 어려우므로 자영업에 대한 요구가 컸다.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는 자영업을 시도할 때 위치나 업종 선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집단은 중산층 여성들로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들 중 일을 하는 여성은 자녀 돌봄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 연령이 어렸을 때는 자녀가 아플 때 등 돌보는 문제가 크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사례는 자녀의 학업, 정서, 생활 모든 면에서 부모가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갈등을 느낀다.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질병 발생 시 병원 등 민간 전문의료 기관을 이용한다. 안 전문제는 일반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유사하며 이 집단만의 특성은 없다.

주거지의 경우 아파트를 선호하고 자녀 학군이나 생활 편의시설, 치안, 교통을 고려하는 등 전형적인 중산층의 주거지를 선호한다.

이 집단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용 불편사항을 지적하였는데,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아널 때 배차간격이 긴 것, 지하철 이용 공간이 협소한 것, 차량의 쾌적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다. 버스는 대기 시간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해 줄 것과 환승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수의 여성들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지상으로 다니는 버스를 선호하는데, 한번에 목적지까지 갈아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노선들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의 행복 요소 역시 가족의 행복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았다. 자기 일에 대한 만족, 일을 통한 성취감을 행복 요소로 꼽았다는 것이 특이하다.

표 5-16 | 중산층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중산층 여성 (전업/ 취업주부)	경제	-생활비는 충족되나 자녀의 교육비는 부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의 고용불안정, 자영업자의 영업악화 우려 -남편 명예퇴직 후 자영업 시작으로 가계 안정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함
	일자리	-40대 이후 여성들은 자영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경향이 있음 -자녀나 노인 돌봄의 부담이 큰 경우는 일자리 수요가 크지 않음
	일/가족 병행	-
	돌봄	-자녀 양육기에 있는 여성은 자녀의 학습, 정서, 생활 모든 면에서 돌봄 역할 담당
	여가·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건강	-건강 검진에 대한 수요 높음 -보건소는 저소득층 이용, 예방접종하는 곳이란 인식, 정식 의사 없음, 전문적인 진료가 되지 않아 신뢰도 낮음 -질병이 발생하면 병원에 가는 것이 낫다고 인식함 -보건소를 이용한 경우는 저렴한 진료비에 양질의 서비스에 만족하나 집에서 멀다는 점, 예약제가 불편하다고 함
	안전	-주거지 안전문제 크게 걱정 없음
	주거	-아파트 선호, 학교, 편의시설, 치안, 교통이 좋은 주거지역 선호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대기시간 안내, 무료전화 이용 서비스 -대중교통 환승체계(버스) 개선, 한번에 가는 버스 선호 -버스 서비스 제고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 지하철 배차 간격이 너무 김 -지하철 이용공간이 좁음, 플랫폼도 좁아 이동어려움, 오래된 노선은 차가 낡았음
	주관적 만족	-자녀의 성취 및 성공, 모든 일이 잘 될 때 -아이 낳고 사는 평범한 일상,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것 -가족의 건강 -자신이 창업했을 때 성취감

6) 장애 여성

장애 여성 집단은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 내에서도 차이가 크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조사해야 하므로 정신 지체장애나 지체등급이 높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된 조사 대상은 사지기능지체(4급), 하지기능지체(2급), 하지기능지체(3급), 척추기능지체(4급)이다.

장애 여성 집단은 조사 대상 15개 그룹 중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이다. 대상자 대부분이 수입이 거의 없고 국가 보조금이나 가족 내 도움으로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의식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외부의 전적인 지원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

장애 여성 집단은 일을 하기도 어렵고 고용 조건이 열악하다. 하지 지체의 경우는 장애인 공공 근로로 동사무소에서 일하기는 하나 저임의 단기계약이고 상지기능지체나 척추기능지체는 신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성 장애인들은 경제적 필요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도 일이 필요하다. 장애의 장벽 외에도 여성 장애인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편견도 문제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확대하고 직업재활이나 장애인 취업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 여성은 신체적으로 자녀 돌봄 자체가 어려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 여성의 돌봄 노동은 본인의 장애, 장애아동 돌봄으로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들은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여유도 없다. 복지차원에서 이들에게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만 장애여성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인데다 문화시설까지 이동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가 심각하며 가족들의 건강까지 나빠 건강측면에서도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치료비 부담으로 공공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장애여성에게 도시는 안전하지 못하다. 이들은 이동 안전을 위해 보도나 건물의 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장애인 화장실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 여성의 경우 성폭력의 대상이 쉽게 되고 이에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장애여성에게 주거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들은 경제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단칸방이나 월세, 전세, 혹은 다른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다. 독립적인 주거에 대한 열망이 크지만 이를 지불할 능력이 거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 문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접근성을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다. 조사 대상자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공간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히 갖추어있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한다. 장애인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거의 없고 일반인도 이 버스를 타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장애인 이동권 정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므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장애여성들의 행복 요소도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으로 다른 집단과 유사하다. 다른 집단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직장을 다니는 기쁨’, ‘영구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등 기본적인

인 삶의 요건을 갖추는 요소를 언급하였다는 것이 장애 여성의 도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 표 5-17 】 장애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장애 여성	경제	-대상자 대부분 수입이 거의 없음 -장애인 생활 보조금이나 자녀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가족들도 모두 직업이 없거나 경제력 없음 -신용불량자도 많음 -생활은 복지관, 푸드 코트,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
	일자리	-장애로 직장 다니는 것이 불가(상지기능지체) -30분 이상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 일하기 겁이 남(척추 지체) -하지 지체자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나 임금 낮고 단기근로계약임
	일/가족 병행	-
	돌봄	-뇌성마비 장애아동 돌봄 어려움으로 이중고
	여가·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시간적, 경제적, 신체적 상황이 안 됨 -장애가 된 후에는 여가 생활을 즐길 적이 거의 없음 -장애인 수련회 참여(연 1회) -서울시 문화 공연이나 행사에 대한 정보 부족 -무료 공연에 대한 메시지가 오기도 하나 참여해보지는 않음
	건강	-장애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본인, 가족들도 건강이 좋지 않음 -음식을 제대로 못해 영양섭취가 잘 되지 않음 -일하는 경우 신체적 무리가 많이 감 -동사무소에서 약 값 보조, 보건소 이용율 높음 -보건소 건강검진 이용, 필요 시 병원(수술 등) 이용하기도 함
	안전	-장애인용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사용 -장애인 구역에 대한 배려 필요 -장애인을 위한 건물의 턱 제거
	주거	-단칸방, 다른 가족과 동거, 전세, 월세로 거주 -독립적 주거지 필요 -영구임대주택 분양 받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임
	대중교통	-상지지체는 대중교통 이용 -하지지체는 지하철만 이용, 버스 이용 불가 -저상버스 이용 시 어려움 해소 -전동 스쿠터 이동 시 건물에 턱이 있어 다니기 불편
주관적 만족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면 행복, 자녀와 손녀 탄생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기쁨,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7) 이주 여성

이주 여성 집단은 결혼 이민자 여성 중 일하는 여성과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주 여성노동자를 포함하려 하였으나 섭외의 어려움으로 결혼 이민자 중 일하는 여성으로 대체하였다. 출신 국은 몽골,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이며 이 중 3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이주 여성의 도시 생활 문제는 가부장적 가족생활과 문화적 편견에 대한 것이 가장 컸다. 이주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자녀 양육법, 음식 만들기, 인사법, 제사 등 일상적 삶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 가족 문화로 인해 본국(여성)의 문화를 공유할 수 없어 불만이다. 사회적으로도 이주자의 피부색이나 경제 정도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문제라고 한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타문화에 대해 존중을 해야 하고 인종적 차별주의를 개선해야 된다고 비판하였다.

언어문제도 어려움이 크다. 자녀가 어머니 나라의 억양을 배울까 걱정하는 것부터 병원 이용을 할 때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대중교통 노선도 및 안내도를 읽기 어려운 것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사례 여성들은 상담이나 사무직 등의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는 높지 않다. 언어문제나 직업 숙련도를 높여 급여도 높은 직종을 원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 생산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의 일은 노동 강도가 세고 장시간 노동으로 고용 환경이 좋지 않다.

여가 문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좋고 자기 출신국의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가족과 함께 다닐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컸다.

이들은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이주자 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적 취득과 관련된 법률적 상담,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이용 시 통역서비스 제공, 남편 상담을 위한 방문 서비스, 다문화 가족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 일자리 제공 등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들도 행복 요소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꼽았다. 국적과 문화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국적인 행복 관을 공유하고 있다.

표 5-18 이주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이주 여성	경제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부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음
	일자리	-생산직보다 상담, 사무직, 보험설계사 등의 일을 함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급여는 높지 않음 -일터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경험 있음 -생산직의 경우는 장시간 노동, 노동 강도가 세어서 힘이 듦 -외국인이라 구직에 어려움 -컴퓨터 수리, 조립, 미용, 요리 등 자격증, 취업교육 원함
	일/가족 병행	-일과 가정 양립은 어려움 -시부모의 도움으로 해결
	돌봄	-자녀 양육에서 문화적 차이가 큰 문제 -언어문제로 말을 배우는 시기부터 어린이집 보냄 -구립이 저렴하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사립을 보내 부담이 큼 -자녀 양육법은 시어머니나, 본국의 친정식구에게 문의 -다문화 가족이라 자녀 양육에 최우선
	여가·문화	-본국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문화 행사 참여(크리스마스, 국가독립일) -극단 프로그램 참여 -주말에 문화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건강	-젊은 나이어서 건강 문제 없음 -본국을 낮게 보는 것, 인종차별, 한국의 습관이나 사고를 강요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임 -가족 갈등, 시집/남편의 무관심, 무책임이 스트레스 -아이가 아플 때 병원 이용 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문제, 통역서비스가 필요 -건강검진이 필요하나 비용부담으로 하지 못함 -보건소에서 아이들 예방 접종 서비스 이용
	안전	-한국은 안전은 잘 되어있다고 만족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부부간의 강제적 관계에 대해 불만
	주거	-큰 문제의식이 없음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함(출퇴근, 이동) -버스 노선이 간략하게 표시되어 이해 어려움 -지하철, 버스의 노선도 및 이용안내, 표시판 등이 잘 되었으면 함 -지하철 역의 안내실 문이 잠겨있음 -노약자, 임신부에 자리 양보가 없음
	주관적 만족	-경제적 풍요로움 -자녀가 잘 되는 것
	문화적 요인	-문화갈등(매번 인사하기, 육아법의 차이, 음식의 차이) -언어소통의 문제 -서울지리를 몰라 이동 불가 -또래, 이웃, 친구가 없어 고립감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남성중심, 시어머니 권력, 제사, 다른 사람만나는 것 싫어함)에 대한 불만 -이주자에 대한 사회의 무시와 편견(피부색, 못사는 나라) 문제 -이슬람권 문화(방글라데시)에서는 남편이 이슬람종교를 믿어야 결혼이 가능, 재혼 불가능(이혼하면 돌아가지 못함)
	이주자 지원정책	-서울시의 이주자 지원이 미흡(정보부족, 시의 홈페이지 홍보 부족) -법률적으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 필요(국적취득 등) -병원 이용 시 다문화 가족 대상 통역서비스 지원 필요 -이주자가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원 필요 -집으로 방문하는 상담시설 필요(남성의 상담을 위해) -다문화 가족만을 위한 보육비 무료 지원 필요 -다문화 가족 아이들의 정체성 혼란, 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문화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 -다문화 가족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지하철 안내표시 및 방송 보완(지하철 문에 어디 행 열차인지 표시)

8) 성적 소수자 여성

성적 소수자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연령대의 레스비언과 바이섹슈얼 4사례를 조사하였다. 성적 소수자는 레스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 젠더를 포함해야 하나 본 조사에서는 트랜스젠더 대상 접근이 어려워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두 사례는 대학생이고 한 사례는 휴학생, 그리고 32세 사례는 사업을 하고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었다.

이들은 가족 내에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을 했고 이 중 세 사례가 부모로부터 주거를 독립해서 살고 있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이 필요하다. 세 사례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학생지도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해도 직장에서 성적 정체성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차별을 겪지는 않고 있다. 이들의 일자리 문제는 '정규직의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으로 20대~30대 여성의 취업 요구와 유사하다.

여가, 문화, 건강, 안전, 대중교통의 문제도 동 연령 대의 일반 여성과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퀴어 문화제에 대한 관심이 컸고,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성 동성애자가 주로 이용하는 상점이나 바,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이들은 자유로움을 느낀다.

성적 소수자들의 특수한 문제로 주거문제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대학생이고 아직 젊은 층이어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가족 내에서 동성애 정체성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주거 독립을 해야 할 경우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의 주거지는 환경이 열악하고 월세 부담과 자취생활의 부담이 크다. 일부는 성적 소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택하기도 하나 집단 거주지는 기존 사회로부터 성적 소수자들을 공격의 타깃으로 노출시킬 수도 있다.

이들이 가장 크게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성애 규범에 기초를 둔 가족관, 결혼관이다. 이들은 동성애자의 파트너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입양도 가능해야 하고 의료보험에서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동성애자에 대한 도착적인 시선이 개선되어야 하고 이들도 동등한 시민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도시 공간적으로 성적 소수자들의 요구는 매우 선명하다. 성적 소수자들이 도심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도 동등한 도시민으로서 도시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생성될 수 있다.

이들의 행복관은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사귀는 것을 우선으로 꼽았다. 도시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을 포용하여야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표 5-19 】 성적 소수자 여성 집단 도시 생활 경험

집단	영역	도시 생활 경험
성적 소수자 여성	경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였으므로 생활비, 주거비 부담 큼 -학생인 경우 취업 준비로 학원비 부담
	일자리	-취업 시 동성애자라고 밝히지 않아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음 -학생은 아르바이트(사무보조, 학생지도)를 하고 있음 -창업을 하였다 실패하고 취업을 원하나 마땅한 자리 없음
	일/가족 양립	-
	돌봄	-
	여가·문화	-영화관람, 친구들과의 만남 -운동, 포켓볼이나 오락 -퀴어 문화축제 등에 참여
	건강	-젊은 세대이므로 건강문제는 크지 않음 -스트레스가 가장 문제(여자애인이라 다닐 때 시선, 취업 스트레스) -보건소에 대한 편견(차상위 계층이 무료로 치료 받는 곳) -실제로 보건소를 이용하면 깨끗하고 잘 되어 있어 만족
	안전	-어두울 때 골목을 걸어갈 때 두려움 -외모 상으로 남자이므로 성희롱, 성폭력 위험은 없음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 일반여성과 같이 남성들의 성희롱 위험있음
	주거	-성적 정체성이 가족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4명 중 3명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함 -월세, 자취를 하므로 주거 환경이 열악함 -밤늦게 까지 시끄럽고, 주변에 이주노동자가 많아 환경이 더러움, 주차공간 부족,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
	대중교통	-주 이동 수단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지하철은 빠르지만 답답하고 느림, 버스는 전용차선이 없으면 막히고, 버스 노선을 알기 어려움
	주관적 만족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사귀는 것 -부모님의 사랑 -안정되고 편안한 가정
	가족관/자녀	-가족 내에서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 -부모의 결혼 압박 -동성애자의 결혼 및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입양제도 개선으로 동성애자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성적 소수자를 위한 상담 기관이 있지만 이용하지 않음
	문화적 편견	-성적 소수자의 인권 존중 필요, 동등한 시민임을 인식해야 할 것임 -성적 소수자의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성적 소수자들의 공간(레즈비언 여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흥대 근처에 약 10곳이 있음. -공개적으로 성적 소수자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동성애자를 위한 축제인데 장소를 내어주는 곳이 거의 없음

4. 소결

이제까지 도시 여성의 다양한 생활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15개 그룹의 6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15개 그룹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집단별로 공통적인 요소도 있고 차별적인 요소들도 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여성, 이혼/이혼/재혼/한부모 여성, 싱글맘 여성, 빈곤층 여성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생계유지자이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직업숙련도도 낮고, 고용도 불안정하다. 이들의 주거 생활은 열악하고 일/가족 병행이 어렵다. 이들의 특성은 중산층 주부 여성의 삶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따라서 이 조사 분석은 '이성에 핵가족 내 여성'이라는 보편적 여성을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넘어서 주변화된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해 이 결과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결과를 각 실국 담당자들과 공유하여 관련 대상별로 신규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 프로젝트 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사업 다각화를 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다. 각 자치구 단에 있는 여행 포럼단을 교육하는 자료로도 활용하면 일반 시민 여성들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생활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집단별로 이들에게 적합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집단별로 TFT를 운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VI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다양한 여성 집단의 도시 생활정책 수요에 기반 하여 향후 여행 프로젝트에서 추진해야 할 도시 여성정책들을 영역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제언은 각 영역별로, 대상 집단별로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각 영역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경제·일자리 영역

경제·일자리 영역을 살펴보면 기존 여행 프로젝트에서는 30-40대 미취업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비중이 높았으나 앞으로는 연령별, 혼인별, 취업지위별, 장애유무에 따라 세분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 일자리 영역에서는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주변화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연령별, 혼인별 취약계층 집단의 여성들-10대, 20대, 50~60대 여성, 이혼여성, 한 부모 여성, 비혼, 장애, 이주자 여성-대부분은 생계를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저임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출하는 일자리도 결국 단기의 비정규직이 많아 고리를 끊기 힘들다.

일있는 서울에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임금실태, 고용조건, 4대 보험 보장여부,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제도 활용, 여성장애인 고용비율, 이주자 여성고용비율 등에 대한 점검(audit)이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관련된 지원책은 중앙정부 소관이 많으나 지역정부에서도 실태파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규직 진입을 위한 지원 확대(외국어, 학원 수강지원 등), 이혼/비혼/싱글맘을 위한 온라인 직업 교육 및 공공 일자리 우선 배정, 중년층 여성을 위한 여성 취업 나이제한 철폐 유도, 여성영세자영업자에 장기 저리 융자지원, 직장과 거주 거리를 고려한 취업 연계 등의 사업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장애 여성의 취업을 위해 재활센터나 직업훈련원에서 여성장애인 대상 직업 훈련 및 취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여성을 위한 사업은 패션기술 교육 사업 하나만 있는데 지역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직장 내에서 이주 여성에 대한 문화적 차별 해소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 표 6-1 ■ 경제 · 일자리 영역 정책 제언

영역	집단	정책 수요 및 제언
경제 · 일자리	연령별	-10대 아르바이트 실태 점검 및 임금 현황 파악 평생 직업 준비를 위한 직업교육, 멘토 지정 -20대 정규직 진입을 위한 직업 능력 지원(외국어, 학원수강 지원) 졸업 후 대학에서 취업정보 및 강좌 수강 기회 확대 청년 여성취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급여는 높지 않아도 노동 강도가 낮은 일자리 창출
	이혼/비혼/ 한부모	-이혼, 비혼, 싱글맘, 한부모 여성에 공공 일자리 우선 배정 -일/가정 양립을 위해 주거지 근접한 곳에 취업 연계 -자영업에 대한 수요가 크므로 저리 자금 우선 지원 및 운영 지도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차별(급여, 업무차이, 계약만료) 정기적인 모니터링 -비정규직 노동자 4대 보험 가입 확대 -비정규직 순환 취업을 단절하도록 직업교육 강화 -기업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으로 전환 시 인센티브
	영세자영 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여성 취업 나이 제한 금지 -미숙련 여성도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개발 -여성 영세 자영업자에 저리 용자 지원 -빈곤 여성에게 공공 부문 가정주부를 위한 희망 근로제 지원 (생계부양자가 있거나 고령자가 아니어도 가능, 자녀양육과 병행가능한 시간제 운영)
	미취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 -취업 연계 시 임금, 근로시간, 직주 거리를 고려함
	장애	-재활센터나 직업훈련원에 여성 장애인 훈련 및 근로 우선 확대 -장애급수 및 유형에 따라 여성 장애인 고용 확대 -일반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모니터링
	이주	-생산직 이외의 사무직, 판매직에 이주 여성 고용 확대 -언어 교육 및 이주자 대상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직장 내에서 이주 여성에 대한 문화적 차별 해소
	성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로 커밍아웃하여도 취업에 차별이 없는 제도적 방안 모색

2. 돌봄·일/가정 양립 영역

여행 프로젝트 돌봄 영역을 분석해 보면 23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자녀 돌봄과 관련된 사업이고, 노인 돌봄 사업은 1개 사업, 나머지 7개 사업은 결혼 이주자, 한부모, 노숙자,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다.

여행 프로젝트는 보육과 관련된 사업의 비중은 높으나 노인 돌봄 지원에 대한 사업은 그리 많지 않다. 향후 여행 프로젝트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사업의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 노인을 돌보는 여성들에 대한 가족간호제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이용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자녀를 돌보는 노인 여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사업들도 필요하다.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서 한부모 가족, 싱글맘 여성의 자녀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하나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들 자녀에 대한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입소, 보육비 지원 확대, 교육 서비스(영어, 학원) 지원 등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꿈나래 교실, 방과 후 보육학습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인 여성의 손자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가족 내에서 손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돌봄 노동이 가족 내 노인에게 전가되는데 대한 불만이 크다. 지역사회 단위로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일/가족 양립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자 여성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 비정규직에서도 아이들 질병이나 학교 방문을 위한 휴가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저소득층 지역에서 장시간 노동, 교대노동을 하는 여성의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직장의 여성친화제도 활용정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든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기업에 대한 여성친화성 평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여성의 아이 돌봄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장애 여성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수요는 크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 여성에게 임신, 출산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 외에 아이들의 학습 지원이나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공부방 운영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표 6-2 돌봄·일/가정 양립 영역 정책 제언

영역	집단	정책 수요 및 제언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연령별	-노인여성의 손자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 확대 -마을단위로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품앗이 운영 -저렴하고, 접근가능한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확대
	이혼/비혼/ 한부모	-가족 내에서 자녀 돌봄 지원이 없으므로 집중적인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국공립 보육 시설 우선 입소, 보육비 지원 확대) -경제적 이유로 자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저렴한 주거지 제공 -사춘기 아이들과의 정서적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 급식비/학비 지원 시 자존감 배려 -빈곤층의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아동 수당 강화
	노인돌봄	-요양 보호사 자택 방문으로 노인 돌봄 노동 지원 -노인 돌보는 여성 가족 휴가제 -요양 보호사 제도 및 이용 대상에 대한 자세한 홍보 -노인 병원 방문 시 차량 이동 서비스 지원
	정규직	-가족 친화적 제도 확대(탄력근무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시설)
	비정규직	-저임 직종,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보육시설 종일반 프로그램 확대 -비정규직에도 아이들 질병이나 학교방문을 위한 휴가제도 허용 -자녀가 어린 경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직장 배치
	영세사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장시간 노동에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 집안 일 양육 부담 -국공립 어린이 집에서 교육지도(영어, 학교학습 등) 강화
	미취업	-취업 준비 교육 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자녀의 정서, 학습, 생활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확대
	장애	-장애 여성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 돌보미 확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애여성의 자녀 양육/보육비 우선 지원 -장애아동 돌봄을 위한 이동 서비스 제공
	이주	-아이들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비 지원 -양육에서의 문화적 차이 존중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자녀의 언어 능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3. 문화·여가 영역

여행 프로젝트의 넉넉한 서울의 사업은 모두 12개이다. 이중 여성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67%,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33%이다. 사업을 보면 브런치 콘서트, 여행 콘서트, 여성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 등이 50%, 온라인상에서 여성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41.7%이다. 특정한 집단 여성들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기혼 여성의 가족생활이나 문화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 대부분이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 여가 영역에서 여성 집단별 정책수요의 차이를 보면 연령별로 차이가 가장 뚜렷하다. 10대를 위한 독립적인 여가, 스포츠 공간을 마련해 주고, 10대가 호응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대는 도심 광장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행사 개최 및 질 높은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할 것이다. 노인세대를 위해서는 지역 문화 강좌를 개최하거나 다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 여가 영역에서 여성 내 계층별 차이도 크다. 한부모, 이혼 가족,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빈곤층, 장애 여성 모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문화생활이나 여가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 이들은 거주지 혹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편히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원하고 있었다. 적은 비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도심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여성의 경우 공공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이동차량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장애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시설이나 공원, 놀이 시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공간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은 본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며 각 문화별 문화, 음식, 종교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성적 소수자를 위한 문화제나 축제를 시행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이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표 6-3 】 문화 · 여가 영역 정책 제언

영역	집단	정책 수요 및 제언
여가 · 문화	연령별	-주부 대상 문화프로그램에서 세대별,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10대를 위한 여가 활동 및 스포츠 공간 확대 -10대가 호응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프로그램 제공 -20대 대상 광화문광장/청계광장/한강공원 등에서 공연, 미술관, 영화관람 등 문화 프로그램 실시 -노인세대 여성들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 강좌 및 행사 기획 -도심 공원이나 광장에서 다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기획
	비혼/이혼/ 한부모	-이혼/재혼/사실혼/한부모/싱글맘 가족 대상 문화프로그램 무료 초대권 제공 -가족 단위 놀이 시설 이용 시 입장료 할인 쿠폰 제공
	돌봄 노동	-자녀와 함께하는 생태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개발 -노인을 돌보는 여성들에게 공원이나 문화시설 이용 할인권 제공 -가족단위로 지역에서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여가공간 정보제공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빈곤층	-가족 단위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 -적은 비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도심 녹지 공간 확대 -직장이나 지역에서 월 1회 휴식 휴가 제공
	미취업	-여성 토래 모임 공간(한강 시민공원, 전망대) 조성 -가족과 함께하는 공공 문화 프로그램 확대
	장애	-공공 문화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참여 지원(이동차량) -지역사회 근린공원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공간조성 -일반 놀이시설, 문화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이동성 확보
	이주	-이주자 여성의 분국 문화 체험 행사 개최 -각 문화별 문화/ 음식/ 종교 관련 정보 공유 및 교류 확대 -이주자 여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교양 강좌 확대
	성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들이 공동으로 모여 생활하는 공간 보호(상업지역, 주거지역, 거리 등) -성적 소수자의 영화제, 문화제, 축제를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및 행사 지원

4. 건강 영역

여행 프로젝트에서 여성건강 사업은 6개이며 여성폭력피해자, 폐경기 여성, 임산부,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요조사를 통해보면 모든 집단에서 건강 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고, 연령별, 계층별, 직종별로 정책 수요에 차이가 있었다. 향후 여행 프로젝트에서는 여성건강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며, 여성들 내의 연령, 환경, 직업, 계층에 의한 차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스트레스, 20대는 미용, 50대 이상은 관절염, 혈압, 우울증이 주요 이슈였다. 연령별로 적절한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쉽게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 중 건강에 취약한 계층은 노인 여성과 불안정 고용 여성, 빈곤여성, 장애여성들이었다. 비정규직 여성들의 경우 열악한 직업 환경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위장장애가 많았다. 일하는 여성들의 직업 환경 및 질환 상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가정 내 유해 환경(페인트, 세제, 살충제 등)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성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빈곤 장애여성에게 음식 배급 서비스를 실시하여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중증 장애인이 병원이나 보건소 이용 시 이동 도우미를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 이주 여성에게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적 소수자 여성들을 위한 건강문제(호르몬) 및 성 정체성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건강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다원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학적인 정기 검진과 치료 외에도 여성들이 선호하는 대체 의료서비스(한방, 아로마, 쑥뜸, 수지침 등)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사회 보건소 외에도 지역사회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녹지 공간 등을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여성들의 신체적 건강 외에도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환경 전반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표 6-4 건강 영역 정책 제언

영역	집단	여성 정책 수요 및 제언
건강	연령별	-10대 스트레스 해소 및 운동 증진 프로그램, 아토피 치료 서비스 -20대 건강보다 미용이나 몸매 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제공 -50대 이상 60대, 70대 여성은 관절염, 혈압, 디스크, 폐경증후군 -주부우울증, 노인계층의 외로움, 우울증 상담 및 극복 프로그램 -어린이나 노인이 있는 가구에 오존주의보, 황사 정보 문자제공
	이혼/재혼/ 한부모	-우울증, 삶에 대한 불안, 실패감 등의 스트레스 해소법 -지역 주민자치센터, 녹지 공간을 활용한 운동 프로그램 -여성 및 자녀의 심리적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강화 -보건소 이용 예약시간 우선 배정, 무료 건강 검진 실시
	돌봄	-노인을 돌보는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긴장 해소 -자녀 돌봄 스트레스, 과도한 가사노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로 해소를 위한 서비스(아로마 요법, 생태공원 방문, 흙길 걷기 등)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무급가족 중사자 /빈곤계층	-직장 및 지역사회 인근에 근골격계(무릎, 다리, 허리 통증 등) 질환 치료 서비스 제공 (맞사지, 물리치료 이용실) -위장 장애 치료를 위한 보건 서비스 -여성들의 직업 건강 실태 조사(비정규직 포함) -직장에서 자세 바꾸기,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정기적인 건강 검진 참여 독려(문자서비스, 직장 인접 지역의 검진 센터 안내)
	미취업	-가족 건강 외에도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 -정기적인 건강 검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병원치료 외에도 대체 의료 서비스(한방, 아로마, 쑥뜸, 수지침 등)제공 -가정 내의 환경(페인트, 세제, 살충제 등)과 대기 오염 등에 의한 가족원의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	-영양 섭취를 위한 음식 배급 -보건소 이용 시 우선 시간 배정 -병원, 보건소 이동 차량 및 이동 도우미 지원 -자녀 건강 서비스 함께 지원 필요
	이주	-의료 기관이나 보건소 이용 시 통역 서비스 제공 -건강 검진 서비스 확대 -문화차이, 자녀 양육, 가부장적 가족 문화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성적 소수자	-의료보험 서비스 확대(파트너의 부양자로 인정) -트랜스 젠더의 건강 문제(호르몬 등) 상담 -성적 소수자로 자기 발견하는 과정에서의 정체성 혼란 문제 및 가족과의 갈등 문제에 대한 전문상담지원

5. 안전 영역

여행 프로젝트의 안전한 서울 영역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9개이다. 도시안전을 위한 환경설계, 지하 보차도 관리, 여성을 위한 콜택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 모든 집단의 여성들이 도시 공간 이용에서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였고, 특히 밤길 안전에 대해 두려움이 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주거지, 학교, 학원가, 놀이터, 공원, 길, 주차장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공간의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연령별로는 10대를 위해 학원이나 학교 주변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20대 여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의 안전시설 확보 및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 중산층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가로등 조도를 높이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곳에는 가로등을 증설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곳에는 CCTV를 설치하여 방범체계를 확립하며, 인적이 드문 곳에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로 주거지를 개발하는 경우 설계단계부터 여성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환경안전설계를 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법이나 조례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여성들이 자기가 거주 하는 지역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는 것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장애여성이나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대처를 위한 사업도 확산되어야 한다. 이들은 여성들 내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있으므로 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 교육이 필요하며, 쉼터 등 피해자 여성 지원 서비스 시설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표 6-5 안전 영역 정책 제언

영역	집단	정책 수요 및 제언
안전	연령별	-10대 야간 학교 및 학원 주변의 귀가길 안전 확보 -밤길 안전, 엘리베이터 이용 시 두려움 해소 (CCTV, 비상벨 설치, 엘리베이터 투명 문, 호신용품, 핸드폰 문자 연락) -20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대체를 위한 제도적 기구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놀이터, 지역 시설) 안전 확보
	이혼/재혼/한부모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주거 지역의 치안, 사건, 경비 불안
	돌봄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Safety Zone, Food Safety Zone 확대
	비정규직/영세사업자/무급가족종사자/빈곤계층	-직장에서 늦은 귀가길 안전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 CCTV 설치 -심야 시간대 방법 체계 확립 -공용 화장실 심야 시간 안전 확보(남녀 분리) -주택 단지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로등 조도 향상 및 인적이 드문 곳에 정기적인 순찰 필요
	미취업	-마트, 주차장, 놀이터, 주거 지역 등 생활공간에서의 안전시설 확보
	장애	-장애인 구역에 대한 배려(화장실 남녀 구분, 화장실 개방) -장애인 이동이 용이하도록 건물 내 턱을 제거 -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대처법 교육 강화
	이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이주여성 및 기업의 성폭력 교육 강화 -결혼 이민자 가족 내 성폭력(강제적 관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피해자 여성 지원 서비스 시설 확대
	성적 소수자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 인식 공유 -여성 동성애자를 도착적인 존재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큰 폭력이므로 이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할 것임

6. 주거 영역

여행 프로젝트에서 주거 영역은 안전한 서울에 속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친화적인 뉴타운 건설, 주부 프로슈머제, 여행 아파트 등이 있다. 주거 영역이 여성들의 주요 생활 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프로젝트에서는 주거관련 사업이 적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영역은 단순히 주거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의 위치, 주거 공간 내의 복지시설,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등 도시 개발계획 전체와 관련된 폭넓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주거 수요는 연령별, 계층별, 혼인별로 차이가 많았다. 20-30대는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수요가 높았고 노인 세대의 주거 독립 욕구도 높았다. 이혼, 한부모 가족 여성,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자 여성, 빈곤계층 여성들은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우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주거 수요에 따라 교통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1인 가구 혹은 2세대 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려야 할 것이다. 특히 빈곤층, 싱글맘,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들에게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여성에게 전세금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혼 여성들의 경우 주거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마트, 장터, 공원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여성들의 돌봄 노동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주거 지역 내의 빈 공간들을 이용하여 보육시설,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녹지공간을 확대하도록 한다. 새로 주거지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여성들의 돌봄 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한다.

다양한 여성들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이나 뉴타운 개발 시 다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복합적인 주거 단지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한부모, 비혼, 기혼, 노인, 부부가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주거 공간 설계를 다변화하여 세대별, 연령별로 선택의 폭을 넓힌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장애 여성의 경우 무료 집수리를 해주고 주택의 턱을 없애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주 여성 중 이혼한 여성, 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표 6-6 주거 영역 정책 제언

영역	집단	정책 수요 및 제언
주거	연령별	-20~30대 비혼 여성들의 독립된 주거 공간 수요가 크므로 1인가구 주택 개발 및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 -노인여성들을 위한 단독가구, 실버타운 공급 확대 -가족 생애주기별, 세대별로 주거 공간 설계 다변화
	이혼/재혼/한부모	-주거문제가 가장 크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건립 및 우선 입주권 제공 -주거지 인접한 곳에 보육시설, 가족 생활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주택단지 건설 -월세, 전세 비율이 높으므로 전세금 저리 융자 확대 -주거지 안전시설 확보 -주거지 인근에 녹지 확보 및 간이 공원 확보
	돌봄	-주거지 인근에 아동 보육 시설, 학습시설을 설치 -주거지에서 근접한 곳에 노인 단기보호 시설 설치로 돌봄 노동자의 휴식 보장 -주거 지역의 교통 편리성, 안전함 중요 -주거 생활 편의를 위한 대형마트나 직거래 장터 개설
	비정규직/영세사업자/무급가족종사자/반근계층	-교통접근성 좋은 지역에 저렴하고 안정된 공공 주거단지 건립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장기 저리 대출 및 정부 지원 확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치안 확보 -집 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각종 부동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
	미취업/중산층	-중산층을 위한 주거단지는 마트, 공원, 교통, 보육시설, 학군이 잘 갖추어진 단지로 구성 -주거단지 쾌적한 환경, 녹지 확대
	장애	-장애인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분양 확대 -단칸방 거주자, 거주 환경이 나쁜 가구 대상 집수리 서비스 -저렴한 비용으로 장애인 주택의 턱을 없애는 주택 리모델링
	이주	-이혼한 이주 여성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 제공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성적소수자	-가족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므로 독립된 주거를 위한 비용 지원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폭력이나 질시를 받지 않도록 주거지 사생활권 보호 강화 -성적 소수자 주거 공간 및 생활공간 제공

7. 대중교통 영역

여행 프로젝트에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업들은 편리한 영역에 속해있다. 버스 및 전동차 손잡이 개선, 교통시설물의 여성 배려, 여행 승용차 요일제, 여행 버스, 여성자동차 운전교실, 지하철 여성 보행환경 개선 등이 있다.

대중교통 수요는 연령별, 취업별, 계층별, 자녀유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컸다. 10대 학생들을 위한 통학 버스 노선 개설, 일하는 여성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 확대, 노인여성을 위한 대중교통 환승거리 단축, 엘리베이터 증설 및 이용안내 등의 사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위한 혼잡도 개선, 배차 간격 단축, 쾌적하지 못한 차량 내부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들은 여성들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여성 승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전화 번호 안내, 신고 시 즉각적인 처리, 주변 승객의 지원 요령 안내문을 부착해야 할 것이다.

아이를 동반한 여성을 위한 차량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에 아동이 안전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만들고 노유약자 좌석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유모차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로를 확보하고 대중교통 내에 이용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하철 역사 및 화장실 등에 아동을 동반한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버스 정류장을 투명한 구조물로 개선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밤 시간에 이용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들을 위해 배차간격, 도착시간 등 운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버스 정류장과 보도의 장애물을 정리하여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 여성의 이동성 증진을 위한 정책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거의 없다. 버스 정류장의 턱을 없애야 하고, 운전기사과 승객들이 저상 버스 이용 장애인을 지원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 여성을 위해 외국인이 이해하기 편한 대중교통 노선 안내도나 환승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표시판은 가능한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디자인을 하고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한다. 이주자를 위해 서울의 지도와 교통을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어 비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표 6-7 대중교통 영역 정책 제언

영역	집단	정책 수요 및 제언
대중교통 · 이동성	연령별	-중고교 통학버스 노선 확대 및 통학 시간 대 운행 빈도 높힘 -20~30대 여성의 대중교통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신고전화 번호 안내, 신고 시 즉각적인 처리, 주변 승객의 지원 요령안내문 부착) -출퇴근 시 혼잡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배차 확대 -노인여성 대중교통 환승거리 단축하는 설계 -계단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위치 안내 -노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운행 서비스
	이혼/재혼/ 한부모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 함 -대중교통 배차 간격 단축, 출퇴근 혼잡도 해소, 쾌적하지 못한 내부, 취객 문제
	돌봄	-아동 동반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불편 해소(유모차 통행 편의, 아동이 안전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 -노인을 동반하고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노인콜택시 운행 서비스 추가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빈곤계층	-마을버스와 대중교통의 연계 및 환승 편의성 제고 -지선 버스 확대(다양한 노선)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대 지선 버스 운행 서비스 제공 -도보 이동이 편리하도록 보도의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정리
	미취업/ 중산층	-대중교통의 환승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 설치 확대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길므로 운행 정보 무료 안내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 배차 간격 적절하게 조절
	장애	-저상버스 장애인 이용 활성화(버스 정류장의 턱 없애기, 운전기사 지원 교육, 승객들의 기다리는 문화) -장애인 이동 도우미 파견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이 가능한 역사, 정류장 주변 무장애 공간 설계
	이주	-이주 여성이 이해하기 편한 노선 안내도, 환승 안내도 -대중교통에서 이주자 여성에 대한 불편한 시선 해소 -이주 여성에 서울 지리 및 교통 정보 안내 책자 송부
	성적 소수자	-일반 여성들 대상 대중교통 편의 서비스 제공

8. 문화적 인식 및 가치관 전환

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정체성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의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해야 하고 국적이나 인종에 따른 다양한 문화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서울에서는 비혼, 이혼, 싱글 맘, 부부가구 등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인구학적 변화에 맞추어 도시 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규범적인 가족에서 벗어난 여성들에 대한 낙인찍기와 동화 주의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혼 내에서의 남녀의 가사분담이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피부색이나 국적에 따라 차별하거나 우리와 다른 문화를 배제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이를 위한 포스터 제작, 사진/동영상 제작 및 다문화 축제 개최 등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도시민권 인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6-8 문화적 인식 전환을 위한 제언

영역	집단	정책 수요 및 제언
문화적 인식 변화	가족/결혼가치관	-결혼 및 가족제도의 가부장적 문화 및 인식 개선 -가사 및 육아의 남녀 분담, 시집 위주의 의사결정을 지양 -가족 내 노인 부양책임 분담(경제적 지원, 돌봄) -정상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존중 -비혼 여성의 삶을 하나의 선택으로 보는 인식 전환 -자녀 없는 가정에 대한 낙인찍기 지양
	다문화 존중	-국내 거주자들의 다양한 문화 존중 -피부색이나 국가에 따른 차별 시정 -도시 거주민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의 선진 문화라는 인식 정착 -우리 문화/우리 관습만이 우월하다는 인식 버림 -타 인종의 종교적 관습 이해 확대
	성적선택 인정	-성 정체성의 차이를 병리 화하고 도착 화하는 성문화 개선 -사회적으로 타인의 차이를 수용하는 관용의 가치 확산 -사회적으로 성 정체성을 일종의 성적 선택으로 인정하여 성적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시민 문화 정착 -동성애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의 시민권과 도시권을 확대

9. 소결: 여행 프로젝트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

이제까지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로 다양한 여성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경제, 일자리를 비롯한 8개영역에서 연령, 혼인, 취업, 장애, 이주 등 8개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정책 제언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도시 여성정책에서 더 다루어야 하는 정책들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너무 방대한 정책들을 제시하거나 서로 중복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 장에서 시도한 것은 앞으로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 정책 전반에서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역과 집단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교차시켜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집단별로 Task Force Team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서 이주여성, 다문화 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폭력 예방 및 대처, 여성 일자리, 보육, 사회적 일자리 TFT가 운영된 바 있다. 앞으로 이혼/재혼 여성지원, 입양자녀 및 재혼 자녀 양육 프로그램, 10대, 20대, 노인 여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TFT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종합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의 다양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TF Team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각 부처와 공유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부서에서 여성들의 경험과 수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VI 결론 및 제언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정책의 지평을 확대하고 도시 정책의 성주류화를 이루었다고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사업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과 정책 대상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는 여행 프로젝트의 정체성의 문제, 즉 이론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친화 도시 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양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행 프로젝트의 이론적 쟁점을 여성친화 도시 정책의 범위 설정과 도시 여성의 범주에 대한 문제로 집약하여 여행 프로젝트가 포괄적 여성정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의 다양한 여성들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의 적합성, 수혜자별 특성, 사업영역, 사업방법의 지표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총 90개 사업의 수혜자별 특성을 연령, 취업여부, 혼인여부, 자녀유무, 다문화, 장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 부록으로 실었다.

분석 결과 다수의 사업들이 수혜대상으로 특정 여성 집단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특정 집단을 타깃으로 하였을 때 연령별로는 30~40대 여성, 취업 여성보다는 비취업 여성, 자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여성이나 이주 여성을 위한 사업 비율도 낮았다.

사업 영역별로 살펴보면 돌봄 영역에서는 자녀 돌봄에 집중되어 있고 노인 여성, 다문화 여성 및 장애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에서는 30~40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이 많았고 기존의 취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었다. 여성 취업자 중 비정규직, 무급가족종사자, 영세자영업자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넉넉한 서울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회적 사업이 많았다. 앞으로 10대, 20대, 노인, 이주자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안전한 서울은 다른 영역에 비해 여성친화 도시 정체성에 적합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으며 물리적인 공간의 안전 확보에 만 치중해있다. 편리한 서울에서는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30-40대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았다.

특히 여행 프로젝트 분석에서 ‘여성 친화’의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여성친화’, ‘여행’, ‘여성 맞춤형’등의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개념의 기준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행 프로젝트를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발전시켜 도시 여성정책으로 정착하도록 ‘여성친화 도시’ 정책의 개념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여성친화 도시 이론들에 맞추어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를 보완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의 장점을 살려 발전시켜 국내외적으로 여성친화 도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여성친화(women friendli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거나 합의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여성친화’ 개념은 광의로는 ‘성평등’을 의미하나 협의로는 ‘일/가족 양립’,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 편의성 증진’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친화 도시를 도시 생활전반에서 성 평등을 제고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 생활의 불편, 불안, 불쾌 요소를 해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도시 생활 전반에서의 성평등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친화 도시를 이루기 위해 고용, 돌봄, 일/가정 양립, 문화, 건강, 폭력, 대중교통, 주거 등의 영역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들이 완전한 시민권을 향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여성친화 도시 정책은 여행 프로젝트의 일, 돌봄, 넉넉, 안전, 편리 5개영역을 확대하고 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들을 좀 더 세분화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여성친화 도시 정책 틀은 기존의 5개영역 7개영역으로 확대하였다. 건강과 환경 영역을 추가하고 안전, 편리 영역은 도시 공간으로 바꾸어 대중교통 및 이동성, 주거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추가된 영역들은 엄밀하게 보면 각각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각 영역별로 추가된 사업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일 영역에서는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일/가정 양립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 및 취 창업에 집중하는데 비해 취업 한 여성의 임금과 고용안정, 일/가정 양립 지원 부분을 강화하였다.

돌봄 영역에서는 보육시설 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 외에 한 부모, 싱글 맘, 동거자녀, 입양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노인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다.

문화 및 여가 영역에서는 10대, 20대 여성의 문화기회를 확대하고, 성별 화된 문화활동에 도전하는 새로운 문화 창조를 추가하였다. 이주민, 비규범적 혼인, 성적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개선하는 분야도 포함되었다.

건강 분야에서는 보건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성별분석을 추가하였다.

안전 분야에서는 도시 시설의 안전 문제 외에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포함하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것과 생활환경에서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켰다.

도시 공간에서는 교통 및 이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로, 교통시설 설계,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비 지원분야를 추가하였다.

여성친화 도시 정책의 영역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여성친화 도시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주류화와 여성시민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시민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 부분을 독립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보면 행정 체계에서의 성주류화 정착과 여성시민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행정추진 체계에서의 성주류화를 위해서는 여성친화 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친화 도시 지수를 개발하여 측정을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 정책 전 분야에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시민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조직된 자치구 여행 포럼단의 활동을 내실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의 풀뿌리 여성단체와 연대를 강화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여하는 여성들을 다원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의 여행 포럼단은 기혼 주부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주여성, 장애여성, 10대, 20대, 노인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여성정책으로서 여성친화 도시 정책의 목표와 영역,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는 것에서 나아가 도시 생활 전반에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들은 앞으로 여행 프로젝트가 어떠한 사업들을 더 개발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틀은 지역정부에서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일부 정책 과제들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도 있다. 도시단위에서 이 틀을 활용할 때에는 각 영역의 사업들은 추진하되 도시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차원으로 낮출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부문의 여성종사자가 많고 이들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다면, 도시 단위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이고 있는 직장을 선정하여 여성들의 고용상태를 감사(audit)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 중앙정부가 비정규직 법을 제정한다면 지역에서는 미시적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두 번째 이슈는 ‘도시 여성’을 보편적인 정체성으로 범주화하지 않고 이질적이고 다양한 정체성으로 범주화하는 것이었다. 도시민이 연령, 계급, 국적, 성별, 장애, 성적 정체성 등에 의해 다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정책 분야에서 이를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 여성정책은 여성의 다양성을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여성들이 도시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다. 문제는 도시 여성의 다양성을 어떻게 범주화해야 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연령, 계층, 국적, 장애, 성적정체성 외에 혼인여부, 자녀유무,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돌봄 노동 유무로 나누었다.

도시 여성을 집단별로 분류하는 것에서 나아가 집단별로 도시 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각 집단별로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수요조사는 앞에서 개념화한 여성친화 도시 정책의 영역 틀에 맞추어서 시행하였다. 총 15개 집단으로 나누어 일, 경제, 일/가족 병행, 돌봄, 여가문화, 건강, 안전, 주거, 대중교통, 주관적 행복기준에 대해 FGI 조사를 하였고 각 집단별 도시 생활 경험은 5장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도시 여성들의 연령, 계층, 혼인유무, 규범적 혼인관계, 취업유무, 종사상 지위, 장애, 이주, 성적정체성에 의해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집단별로 유사한 정책수요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연령, 계층, 취업유무, 장애, 이주는 차이를 유발하는 범주였다. 비정규직, 이혼, 한 부모 여성들은 빈곤층의 정책수요와 유사성이 많았다. 예를 들어 이들 집단은 경제적 주거비 부담, 안전문제, 대중교통 이용 불편, 경제적 어려움, 아이돌보기 어려움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가를 즐길 수 없다는 것도 공통 적이었다. 이러한 공통된 수요들은 하나로 묶어 영역별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정책 수요 조사에 따라 영역별로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은 6장에서 다루었다. 도시 여성을 15개 범주로 나누고 10개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수요를 정리하다 보니 정책 수요가 너무 광범위하였다. 정책 제언은 유사한 내용들은 종합하여 추진하고, 정책 중 우선순위를 두거나, 특정한 타깃 그룹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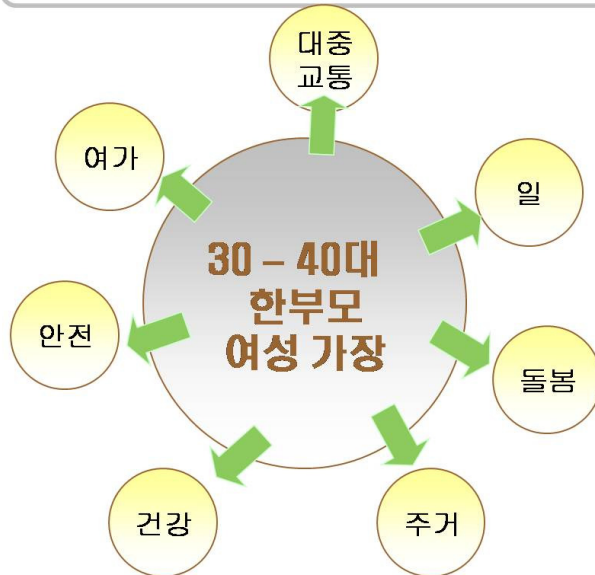
앞으로 여행 프로젝트에서는 일자리 부문에서 비정규직 및 고용불안정에 대한 사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 돌봄,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 여가 활동 증진, 건강한 지역 환경 만들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 저소득층 주거 안정 대책, 대중교통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진 등의 사업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영역별 추진 과정을 단계 별로 제시해 보면 1단계는 일자리, 돌봄, 안전 영역을, 2단계는 건강과 환경 영역을, 3단계는 문화, 여가와 도시 공간 영역을, 4단계는 이를 종합적으

로 추진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서울시 행정서비스시민고객 평가(2009)에서 영역별 수요도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정책 환경의 변화나 여성시민 정책 수요도에 따라 영역별 단계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주변화된 여성 집단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도시 정책에서도 노인, 장애인, 이주자, 한부모 여성을 위한 사업들이 있다. 이들 사업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 생활환경 부분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사업들에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하는 것도 여행 프로젝트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상별 통합정책 수립(예시)



본 연구는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 여성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정착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를 관련 각 실국에서 공유하여 여행 사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정책 부서 혹은 관련 부서에서는 각 타깃 집단별로 전문가 팀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개발한다면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도시 여성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선자·김경혜(2008),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양희 외(2008),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김영순·정미강(2008), “공간텍스트로서 ‘도시’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텍스트언어학』 24, pp.167~192.
- 김향아(2004), 「젠더 개념을 통해 본 잡지에 게재된 주거 공간의 특성과 변화:1980년~2003년까지 게재된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이대 학논.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7), 『여성이 디자인하는 도시 女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8), 『여행 프로젝트 개선방안 및 신규사업 제안』
- 서울특별시(2008), 「여행프로젝트 사업별 4개년 계획: 2008년 연동계획」
- 서울특별시(2009), 『행정서비스시민고객평가』
- 이미원(2009), 『여성친화 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여성부.
- 이봉화·조영미(2007), “여성의 도시권을 통해 본 도시여성정책 전망: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 23차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이상문 외(2006), 『경기도 김포신도시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 이윤호(2000), 「성남시 여성의 일상과 소비문화 공간을 통해본 지역의 차별적 생성과 변화」, 이대 학논.
- 이은아 외(2008),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이행점검 및 향후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조명래(2002),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울아카데미.
- 조영미 외(2006), 『서울시 여성정책 중기계획』, 재단법인 서울여성.
- 조영미·김창연·백경재(2008),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발전 방안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영미(2009), “여성친화 도시 만들기 정책의 실제와 과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전의 시대, 공간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회 제 25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여성건설인협회(2007), 『여성친화 도시 서울 방향과 과제』.
- 한국정치연구소(2009), 『서울, 매트릭스로 여성을 읽다』, 2009 여행 토론광장 자료집.

〈국외문헌〉

- Aitchison, Cara(1999), "New cultural geographies: the spatiality of leisure, gender and sexuality", *Leisure Studies*, vol. 18, pp. 19-39.
- Arresen, Kari and Anne Sofie Laegran(2003), "Playing gender in Public and Community Spaces", *Norwegian Journal of Geography*, vol. 57, pp.164-172.
- Audirac, Ivonne(2008), "Accessing Transit as Universal Design",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vol.23, pp. 4-16.
- Berke, Phillip R.(2008), "The Evolution of Green Community Planning, Scholarship, and Practice: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74, No. 4, pp. 393-407.
- Bondi, Liz & Damaris Rose(2003), "Constructing Gender, Constructing the Urban : a review of Anglo-American Feminist Urban Geography", *Gender, Place and Culture*, vol. 10, No. 3.
- Borchorst, Anette and Birte Siim(2008), "Woman-friendly policies and state feminism: Theorizing Scandinavian gender equality", *Feminist Theory*, vol. 9, no. 2, pp. 207-224.
- Brown, Michael and Lynn A. Staeheli(2003), "Are we there yet? Feminist political geographies", *Gender, Place & Culture*, 10: 3, 247-255.
- Caiazza, Amy(2002), "Does Women's Representation in Elected Office Lead to Women-Friendly Policy?" Research-in-Brief,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 Doan, Petra L.(2007), "Queers in the American City: Transgendered Perceptions of Urban Space", *Gender, Place & Culture*, vol. 14, no. 1, pp. 57-74.
- Fainstein, Susan S. (2005), "Cities and Diversity: Should We Want It? Can We Plan for it?", *Urban Affairs Review*, Vol. 43, No.3, pp 3-19.
- Fainstein, Susan S. and Lisa J. Servon(2005), "Introduction: The Intersection of Gender and Planning", *Gender and Planning: A Reader*, eds. by S. Fainstein and Servon, Rutgers University Press.
- Fainstein, Susan S.(2005), "Feminism and Planning: Theoretical Issues", *Gender and Planning: A Reader*, eds. by S. Fainstein and Servon, Rutgers University Press.
- Feldman, Roberta M.(1999), "Participatory Design at the Grass Roots", *Design and*

- Feminism: Revisioning Spaces, Places, and Everyday Things*, Rutgers University Press.
- Fenster, Tovi(2005), "The Right to the Gendered City : Different Formations of Belonging in Everyday Life", *Journal of Gender Studies*, 12: 3, 217-231.
- Fincher, Ruth(2007), "Space, Gender and Institutions in Processes Creating Difference", *Gender, Place & Culture*, vol. 14, 5-27.
- Ganjavi, Lebrasseur and Whissell(2000), "Night Walking Safety and Overall Satisfaction with Police Services",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 23. no. 1.
- Hayden, Dolores(2005), "What Would a Nonsexist City Be Like?: Speculations on Housing, Urban Design, and Human Work", *Gender and Planning: A Reader*, eds. by S. Fainstein and Servon, Rutgers University Press.
-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2004), The Best and Worst States for Women in 2004 : Politics, Economics, Reproductive Rights, Health, fact Sheet, November, 2004.
- Iveson, Kurt(2003), "Justifying exclusion: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and the dispute over access to McIvers ladies baths, Sydney", *Gender, Place & Culture*, 1:3, pp. 215-228.
- Jacobs, J.(1985), *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Vintage.
- Kakad, Krishna(2000), "Gender, Culture, and Architecture in Ahmedabad and Berlin", *Gender Technology and Development*, 4, 201.
- Kettel, Bonnie(1996), "Women, Health and the Environment", *Soc. Sci. Med.* vol. 42, No. 10, pp 1367-1379.
- Law, Robin(1999), " Beyond 'women and transport': towards new geographies of gender and daily mobil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23 no. 4, pp.567-588.
- Lykogianni, Rouli(2008), "Tracing Multicultural C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s Everyday Lives",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vol. 15, pp. 133-143.
- Martin, Deborah G.(2002), Constructing the 'Neighborhood Sphere': gender and community organizing, *Gender, Place and Culture*, Vol. 9. No. 4, pp. 333-350.
- Massey, Doreen and Linda McDowell(2005), "A Woman's Place?",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Ockman, Joan(2005), "Mirror Images: Technology, Consumption, and the Representation of Gender in American Architecture since World War II" *Gender and Planning: A Reader*, eds. by S. Fainstein and Servon, Rutgers University Press.
- Purcell, Mark(2002), "Excavating Lefebvre: The Right to the City and its Urban Politics of the Inhabitant", *Geo Journal* , 58: 99-108.
- Raabe, Phyllis Hutton(2005), "Women-Friendly"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Inequalities among U. S. States", IWPR Conference, June 2005.
- Raco, Mike(2007), "Securing Sustainable Communities: Citizenship, Safety and Sustainability in the New Urban Planning",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4, 305.
- Reichl, Alexander. J(2005), "Fear and Lusting in Las Vegas and New York: Sex, Political Economy, and Public Space", *Gender and Planning: A Reader*, eds. by S. Fainstein and Servon, Rutgers University Press.
- Ruzek, Clarke and Olesen(1997), "What are the Dynamics of Differences?", *Women's Health : Complexities and Differences*, Ruzek, Clarke and Olesen ed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pp. 51-95.
- Sandercock, L. (2003), "Toward Cosmopolis: Utopia as construction site", *Readings in Planning Theory*, ed. by Campbell and S. S. Fainstein, pp.401-410, Oxford, Blackwell.
- Scaraton, Sheila and Beccy Watson(1998), "Gendered cities: Women and public leisure space in the postmodern city", *Leisure Studies* vol. 17, pp.123-137.
- Spain, Daphne(1993), "Gendered Spaces and Women's Status" *Sociological Theory*, Vol.11. no. 2, pp137-151.
- Sweet, Stephen & Raymond Swisher & Phyllis Moen(2005), "Selecting and Assessing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daptive Strategies of Middle-Class, Dual-Earner Couples", *Family Relations*, 54, pp596-606.
- Toth, Csaba(2008), "J-Pop and performances of young female identity: Music, gender and urban space in Tokyo", *Young*, Vol. 16, pp. 111-129.
- Valentine, Gill(2001), *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Pearson Education Limited, 박경환 역, 『사회지리학』, 논형, 2009.
- Valentine, Gill(2009), "A Right to the City? : Gender and the Production of Public

- Space", 「한국여성학회 제 25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Voydanoff, Patricia(2001), "Conceptualizing community in the context of work and family", *Community, Work & Family*, Vol. 4, No. 2, pp. 133-156.
- Walker, Lynne and Sue Cavahagh(1999), "Women's Design Service: Feminist Resources for Urban Environments", *Design and Feminism: Revisioning Spaces, Places, and Everyday Things*, Rutgers University Press.
- Wekerle, Gerda R.(2005), "Gender Planning in Public Transit: Institutionalizing Feminist Policies, Changing Discourse, and Practices", *Gender and Planning: A Reader*, eds. by S. Fainstein and Servon, Rutgers University Press.
- Woodward(1988), "Research note: The Sheffield study of gender and leisure: its methodological approach", *Leisure Studies*, Vol. 7, no. 1, pp. 95-101.
- You, Nicholas(2007), "Sustainable for whom?: the urban millennium and challenges for redefining the global development planning agenda", *City*, vol. 11, pp.214-220.
- Young, I. Marion(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 Young, Iris Marion (2005),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Gender and Planning: A Reader*, eds. by S. Fainstein and Servon, Rutgers University

1. 여행 프로젝트 성과분석틀

이 부분은 앞에서 제시한 여성친화 도시 개념화와 도시 여성의 다양성 범주화에 근거하여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를 평가 분석하는 장이다. 향후 여행 프로젝트가 새로운 여성친화 도시 개념과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면 여행 프로젝트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가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 여행 프로젝트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성과분석틀을 통해 여행프로젝트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제까지의 여행프로젝트 사업이 여행프로젝트의 본래의 목표와 범주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하는 여행적합성을 평가한다. 두 번째 여행프로젝트가 다양한 여성들의 시공간별 정책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업의 수혜자별 특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여행 프로젝트의 각 사업을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더 개발되어야 할 사업의 영역을 제안하도록 한다. 네 번째로 여행프로젝트의 사업의 방식을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여행프로젝트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개발되어야 사업의 내용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의 방식 등을 발굴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각 영역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종합하여 여행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각 영역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1) 여행 적합성 및 수혜자 특성 분석

90개의 사업의 여행적합성과 수혜자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여행적합성은 각 사업이 여행프로젝트에 적합한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어 평가하였고 각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1 ■ 여행적합성의 기준

평가정도	기 준
상	사업이 대부분 여성을 위한 계획되고 실제 사업의 수혜자의 대부분 여성인 경우
중	사업의 일부가 여성을 위해 계획되고 실제 사업의 수혜자의 일부가 여성인 경우
하	사업의 대부분이 여성을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고 실제 사업의 대상이나 수혜자가 불특정 시민인 경우

수혜자 특성은 연령대, 취업유무, 혼인여부, 자녀유무, 다문화, 장애 변수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였고 각 변수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2 ■ 수혜자 특성 분류

특성	분류
연령	10대, 20대, 30-40대, 50대, 60대, 연령고려하지 않음
취업여부	취업여성, 비취업여성, 취업여부 고려하지 않음
혼인여부	기혼여성, 혼인여부 고려하지 않음
자녀유무	자녀 있는 여성, 자녀유무 고려하지 않음
다문화	다문화여성, 다문화여성 고려하지 않음
장애	장애여성, 장애여성 고려하지 않음

2) 여행 프로젝트 사업 내용 분석

다섯 가지 영역 사업의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각 영역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각 사업의 대상, 세부 내용, 지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질적, 양적 수준을 평가하고 각 영역의 사업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와 정책적 지원이나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 등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한다.

3) 여행 프로젝트 사업 방식 분석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을 인프라구축, 인적 지원, 물적 지원, 프로그램(서비스) 운영 등의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은 위의 네 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진행되지만 해당사업의 주 진행방식을 선택하여 분석해 보도록 할 것이다. 사업 방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3 ■ 사업방식 기준

사업방식	내용
인프라 구축	시설물 설치, 시설물 배치, 법.제도 개발, 평가모델 등
인적 지원	보육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 인적 지원
물적 지원	창업자금 대출 등의 물적 지원
프로그램(서비스) 운영	교육, 정책,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 운영

4) 성과분석 종합 및 문제점 도출

여행프로젝트 각 영역의 사업을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각 영역의 사업의 대상적 측면, 내용적 측면, 방식의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여행프로젝트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전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하도록 한다.

2. 여행 프로젝트 성과 분석

1) 돌보는 서울

(1) 사업내용

돌보는 서울 영역은 총 23개 사업(2009년 신규과제 포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4 ■ 돌보는 서울의 사업 내용

세부영역	사업내용
서울형 어린이집	동정사를 등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강화 보육시설 배상보험 지원, 보육도우미 운영,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보육료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 지원	영유아 플라자 설치,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지원
가족돌봄 지원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검사, 소외된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기회 제공,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저소득 취업모 가정을 위한 꿈나래교실, 중학교 방과후 보육, 학습 프로그램 교실 운영, 아리수와 함께 하는 복 동이 행복지원 프로젝트
소외 여성 지원	여성재활쉼터 설치, 운영, 여성장애인지원(홈헬퍼)사업, 모자가정을 위한 세계개선 추진, 성인지적 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토탈 맞춤형 보호서비스,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설치, 운영

(2) 사업 분석

23개의 사업을 첫 번째로 사업의 여행 적합성과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연령, 취업여부, 혼인여부, 자녀유무, 다문화 해당, 장애 해당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수혜자 측면에서의 사업성과를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각 사업의 세부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돌보는 서울 사업의 여행 적합성 및 수혜자 고려 정도

23개의 돌보는 서울 사업의 여행적합성 및 수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5 돌보는 서울 사업의 여행적합성과 수혜자 특성

특성	분류	사업수	빈도(%)
여행 적합성	상	20	87
	중	3	13
	하	-	0.0
	계	23	100.0
연령	10대	-	0.0
	20대	-	0.0
	30-40대	17	73.9
	50대	-	0.0
	60대	-	0.0
	여성 일반	6	26.1
	계	23	100.0
취업 여부	취업여성	5	21.7
	비취업여성	1	4.4
	여성 일반	17	73.9
	계	23	100.0
혼인 여부	기혼여성	20	87
	여성 일반	3	13
	계	23	100
자녀 유무	자녀 있는 여성	20	87
	모두 고려	2	8.7
	고려하지 않음	1	4.3
	계	23	100
다문화	다문화 여성	3	13
	고려하지 않음	20	87
	계	23	100
장애	장애여성	3	13
	고려하지 않음	20	87
	계	23	100

먼저 사업이 수혜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여행프로젝트의 당초 목표인 도시를 사는 여성의 편리와 행복을 도모하는 사업인지를 평가한 여행적합성에서는 ‘상’으로 평가된 사업이 20개, 87%이고, ‘중’으로 평가된 사업이 3개, 13%로 대부분의 사업이 여행프로젝트에 적합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중’으로 평가된 사업은 여성을 위한 사업이지만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보육료 지원’과 같이 여성공무원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혜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거나 ‘시 건강센터 운영’,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센터 운영’ 등과 같이 센터에서 하는 일부 사업이 여행 프로젝트에는 부합되나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은 포괄적이어서 그 수혜자가 ‘여성’으로 집중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23개의 사업이 당초 대상으로 했던 연령층, 또는 사업을 통해 정책적 수요를 받는 주요 연령층을 살펴보면 3-40대가 17개, 73.9%이고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의 여성이 수혜자인 사업이 6개, 26.1%이다. 돌보는 서울 영역에는 육아 및 보육에 관련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어린아이를 자녀로 둔 30-40대가 사업의 대상 또는 주요 수혜 연령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연령층을 고려하지 않고 전 연령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전반적인 연령대의 여성(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시 건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 전 연령대의 여성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여성장애인, 여성노숙인, 결혼여성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23개의 사업을 사업의 대상자 및 수혜자의 취업여부 고려 차원에서 살펴보면 취업여성을 위한 사업은 5개, 21.7%이고, 비취업(창업준비)중인 여성을 위한 사업은 1개, 4.4%, 취업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17개, 73.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의 수혜자이자 대상인 여성이 취업중인가 혹은 취업하지 않은 상태인가라는 고려 없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여성재활쉼터 설치·운영’사업으로 여성노숙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활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분적으로 직업재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알코올 중독, 우울증, 정신분열 등의 치료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이 ‘노숙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신적 치료와 함께 경제적 독립이 가장 먼저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직업 상담 및 직업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돌보는 서울 23개의 사업 중 기혼여성을 위한 사업은 20개 87%, 혼인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3개 13%로 나타났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돌보는 서울영역에는 육아 및 보육에 관련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기혼여성이 사업의 대상 혹은 주 수혜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여성재활쉼터 설치·운영’, ‘성인지적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토탈 맞춤형 보호서비스’등이다. 위의 세 사업 모두 혼인여부를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업으로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각각을 대

상으로 하는 사업의 다양화와 구체화가 필요하다.

23개의 사업 중 자녀가 있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20개 87%, 자녀를 가진 여성과 가지지 않은 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업은 2개 8.7% 이고 자녀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1개 4.3%이다. 육아 및 보육에 관련한 사업이 대부분이 돌보는 서울 영역에서는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자녀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여성재활쉼터 설치·운영’이고 자녀를 가진 여성과 가지지 않은 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업은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토탈 맞춤형 보호서비스’와 ‘이주여성 자활공간 터 설치·운영’사업이다 위의 두 사업은 보호 대상으로 자녀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여성의 보호 시 자녀에 대한 공동보호 등을 통하여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돌보는 서울 영역 중 다문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3개 13%이고 다문화 여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20개 87%이다. 또한 장애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 23개 사업 중 3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0개 사업은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지 않다. 23개의 사업 모두 다문화여성에게도 장애여성에게도 긴요하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여성 또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특수하게 계획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업에서도 장애여성이나 다문화여성에 대한 배려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보는 서울 사업 내용 분석

돌보는 서울분야의 23개 사업은 크게 자녀 돌봄, 노인 돌봄, 사회적 돌봄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23개 사업을 위와 같은 기분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6】 돌보는 서울 사업 내용 분류

분류	사업수	빈도(%)	사업내용
자녀 돌봄	15	65.2	등청사를 등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강화, 보육시설 배상보험 지원, 보육도우미 운영,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보육료 지원, 영유아플라자 설치,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시간강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검사, 장애아 가족 아동보육 지원사업, 여성재활쉼터 설치·운영, 여성장애인 지원(홈헬퍼) 서울형 어린이집, 저소득 취업모 가정을 위한 꿈나래 교실, 중학교 방과후 보육·학습 프로그램 교실 운영, 아리수와 함께 하는 복동이 행복지원 프로젝트
노인 돌봄	1	4.3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회적 돌봄	7	30.5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소외된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기회 제공, 여성재활쉼터설치운영 모자가정을 위한 세제개선 추진, 성인지적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토탈 맞춤형 보호서비스, 이주여성 자활공간 터 설치·운영

돌보는 서울 영역을 자녀 돌봄, 노인 돌봄, 사회적 돌봄으로 분류해보니 자녀 돌봄이 15개 65.2%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사회적 돌봄이 7개 30.5%, 노인돌봄이 1개 4.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이 전체 돌보는 서울 23개 사업 중 15개로 '돌봄'이 지나치게 자녀 돌봄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여성모자가정 등 전반적 사회적 돌봄의 영역과 노인 돌봄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여성의 삶에 있어서 일-가족 양립의 문제와 함께 보육 및 양육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보육과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이러한 사업의 전개가 '자녀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잘못된 성역할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적인 추세이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노인인구는 서울 전체인구의 8.2%인 85만 2000명이고 이는 10년 전 48만 5000명과 비교하여 75%(2008 서울통계연보) 증가했다. 앞으로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돌봄 관련 사업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돌봄 영역은 여성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여성모자가정 등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으로 사회적 돌봄의 영역이 다양한 대상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돌보는 서울 사업의 방식 분석

돌보는 서울 23개 사업의 사업방식을 분류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사업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프라 구축, 인적 지원, 물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여기에서는 해당 사업의 주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 표-7 】 돌보는 서울 사업 방식

분류	구분	인프라 구축	인적 지원	물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자녀 돌봄(15)	사업수	3	6	2	4
	분류내 빈도(%)	20	40	13	27
노인 돌봄(1)	사업수	-	1	-	-
	분류내 빈도(%)	-	100	-	-
사회적 돌봄(7)	사업수	2	-	-	5
	분류내 빈도(%)	29	-	-	71
	사업수 (23)	5	7	2	9
합계	전체 빈도(%)	22	30	9	39

돌보는 서울의 23개 사업 중 첫 번째로 자녀 돌봄 사업의 사업방식은 인적 지원 6개 40%, 프로그램 운영 4개 27%, 인프라 구축 3개 20%, 물적 지원 2개 1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 사업은 주로 아이돌보미, 육아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인적 지원을 통한 보육 및 양육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동 청사 등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영유아 플라자 설치 등이 계획되고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노인 돌봄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이 사업은 노인돌보미를 지원하는 인적 지원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로 사회적 돌봄은 총 7개 사업 중 5개의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71%)로 진행되어 매우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 밖에 여성재활센터 설치·운영, 이주여성 자활 공간 터 설치·운영 등 2건(29%)의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돌보는 서울의 전체 사업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9개(39%)로 가장 많았고, 인적 지원이 7개(30%), 인프라 구축이 5개(22%), 물적 지원이 2개(8%) 순이었다.

(3) 문제점 및 발전방안

돌보는 서울의 23개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로 제기된 문제점은 사업의 대상 및 수혜자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행프로젝트가 서울 여성의 행복한 도시 생활을 위하여 계획되고 진행된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의 수혜 대상의 집중 현상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돌보는 서울 사업의 대부분은 ‘30-40대, 기혼의, 자녀가 있는’ 여성에 집중되어 있다. 돌보는 서울 영역에 ‘보육 및 양육’ 관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집중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육과 양육을 담당하는 계층이 반드시 30-40대, 기혼의, 자녀가 있는 여성만으로 한정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돌보는 서울의 ‘돌봄’의 영역이 지나치게 ‘자녀 돌봄’의 영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23개의 사업 중 ‘자녀 돌봄’과 관련된 사업이 15개로 전체 사업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에게 분명 자녀의 양육과 보육은 가장 큰 관심사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양적 팽창은 자칫 ‘자녀 양육과 보육’은 여성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성역할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 노인들이 행복한 삶은 영유할 수 있고,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물적, 인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돌보는 서울 사업 중 몇 개의 사업(결혼여성이민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문화여성 및 여성장애인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23개 사업 모두 다문화여성 및 여성장애인들 또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일반여성들만을 사업의 수혜자 또는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여성들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사회적 돌봄의 영역에 속해있는 소외여성을 위한 지원 사업 또한 그 대상이 여성결혼이민자, 여성장애인 등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이제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성적소수자, 싱글맘, 빈곤층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성 소외계층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돌보는 서울 영역이 앞으로 서울 여성의 다양한 수요와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돌보는 서울 영역의 사업들은 기존의 친편일률적인 여성 및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친생활적 정책을 통해 생활전반에서 여성들이 깊어져야 할 자녀, 노인의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 의미를 살리고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돌보는 서울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 집중형 정책’에서 ‘목표 집중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돌보는 서울 영역 사업은 사업의 대상이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정 여성층을 위한 사업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30-40대, 결혼한, 아이가 있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대상별 사업에서 벗어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별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목표별 사업을 선정하고 대상 및 수혜자를 다양한 변인으로 나눈 후 변인의 다양한 집단을 결정 한 후 이들의 정책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2) 일있는 서울

(1) 사업내용

일있는 서울 영역은 총 12개의 사업(2009년 신규사업 포함)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업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8 ■ 일있는 서울 사업 내용

세부영역	사업내용
3040 일자리 창출 (3040외 취업교육 등)	맘프리너 창업스쿨 등 여성창업 지원, 여성직원 훈련생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실버케어 여성직업 교육훈련 확대, 맞춤형 여성직업교육 확대 여성일자리갯기 지원 프로젝트 개선, 결혼이주여성 패션기술교육 W-Gold Job 주식회사
창업·기업 지원	유관관계 연계 창업 지원 강화, SBA 여성기업 지원제도 운영, 여성기업인 지식도우미 서비스, 취득세 신고 여성납세자 지원서비스, 여성이 행복한 꽃가게-女幸花家

(2) 사업 분석

일있는 서울 12개의 사업을 첫 번째로 사업의 여행 적합성과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연령, 취업여부, 혼인여부, 자녀유무, 다문화 해당, 장애 해당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수혜자 측면에서의 사업성과를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각 사업의 세부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일있는 서울 사업의 여행 적합성 및 수혜자 특성

■ 표-9 ■ 일있는 서울 사업의 여행적합성 및 수혜자 특성

특성	분류	사업수	빈도(%)
여행 적합성	상	12	100.0
	중	-	0.0
	하	-	0.0
	계	12	100.0
연령	10대	-	0.0
	20대	-	0.0
	30-40대	6	50.0
	50대	-	0.0
	60대	-	0.0
	여성 일반	(6)	50.0
	계	12	100.0
취업 여부	취업여성	3	25.0
	비취업여성	9	75.0
	여성 일반	-	0.0
	계	12	100.0
혼인 여부	기혼여성	6	50.0
	여성 일반	(6)	50.0
	계	12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는 여성	2	16.7
	고려하지 않음	10	83.3
	계	12	100.0
다문화	다문화 여성	2	16.7
	고려하지 않음	10	83.3
	계	12	100.0
장애	장애여성	-	0.0
	고려하지 않음	12	100.0
	계	12	100.0

일있는 서울의 12개의 사업 모두 여행적합성이 '상'으로 나타났다. 주로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이 대부분인 일하는 서울 영역은 사업의 대상 및 수혜자가 여성으로 집중되어 있고 목표 또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있는 서울의 12개 사업의 주요 대상 및 수혜자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30-40대가 6개 사업으로 전체 12개 사업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일반이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일반은 사업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연령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이지만, 이 또한 주로 30-40대 기혼여성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일하는 서울의 거의 모든 사업이 30-4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있는 서울의 12개 사업을 취업여부 변수로 살펴보면 '취업'여성을 위한 사업이 3개, '비취업'여성을 위한 사업이 9개로 전체 사업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여성을 위한 3개의 사업은 주로 여성기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기업인을 제외한 일반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의 개발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취업여성을 위한 9개 사업은 취업(창업)관련 교육이 4개, 인적·물적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원이 5개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일있는 서울의 12개 사업을 혼인여부 변수로 살펴보면 '기혼'여성을 위한 사업이 6개, 혼인여부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6개 사업으로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다. '기혼'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는 사업은 결혼 및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3040 일자리 창출'의 5개 사업과 결혼이주여성 패션기술교육 사업이다.

일있는 서울 12개 사업을 자녀유무 변수로 살펴보면 사업명과 사업의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자녀'를 언급하고 '자녀'를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은 2개의 사업으로 전체 일하는 서울 사업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0개의 사업은 자녀유무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이 제한되어 있는 사업이다.

일있는 서울 12개 사업 중 다문화 여성을 위한 사업은 1개의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패션기술교육'사업이다. 나머지 11개의 사업에서 다문화여성을 위한 고려나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장애여성을 위한 단독사업은 전무하며 12개의 사업 모두 장애여성을 언급하거나 특별한 고려가 없었다.

일있는 서울 사업 내용 분석

일있는 서울 사업은 취·창업 교육과 교육을 제외한 취·창업 관련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10 】 일있는 서울 사업 내용 분석

분류	사업수	빈도(%)	사업내용
취업/창업 교육	4	33.3	맘프리너 창업스쿨 여성창업지원, 실버케어 여성직업 교육훈련 확대, 맞춤형 여성직업 교육훈련 확대, 결혼이주여성 패션기술 교육
취업/창업 기타 지원	8	66.7	여성직업 훈련생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프로젝트 개선, 유관기관 연계 창업지원 강화, SBA 여성기업 지원제도 운영, W-Gold Job 주식회사 여성기업인 지식도우미 서비스, 취득세 신고 여성납세자 지원서비스, 여성이 행복한 꽃가게-女行花家

일있는 서울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접적인 취·창업 교육은 4개 사업, 취·창업 기타 지원은 8개 사업으로 66.7%를 차지했다. 취·창업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교육의 내용 또한 아래의 표처럼 전문적인 직업 교육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직업교육이거나 창업의 기본적인 노하우정도만을 이수하는 교육이다. 경력단절 고학력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이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다. 실효성 있는 여성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여성의 사회적 상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시장의 수요에 통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근시안적인 취·창업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 표-11 】 일있는 서울 취업/창업 교육 내용

사업명	교육내용	비고
맘프리너 창업스쿨 등 여성창업지원	외식, 유통, 서비스, 쇼핑몰 등의 창업과정	
실버케어 여성직업 교육훈련 확대	실버케어 과정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일반병원, 노인복지관 등의 취업 인력)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경력단절 고학력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결혼이주여성 패션기술 교육	패션기술인력 양성	

교육이외의 취·창업 지원은 주로 여성기업인 지원과 여성직업훈련생의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물적 지원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일부 여성기업인과 직업훈련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지원되고 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적 혜택은 일자리를 얻기 원하는 비교적 많은 여성들에게 골고루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표-12 】 취업/창업 지원 방법

사업명	지원방법	비고
여성직업 훈련생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직업훈련생의 자녀 보육 (직업전문학교 교육관 증축시 어린이집 설계 반영)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프로젝트 개선	인턴 채용	
유관기관 연계 창업지원 강화	자금 지원	
SBA 여성기업 지원제도 운영	여성 기업 우대(제도 개선)	
W-Gold Job 주식회사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여성기업인 지식도우미 서비스	여성기업인에게 금융,세무,법률 지식 정보 제공	
취득세 신고 여성납세자 지원서비스,	직장여성에게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여성이 행복한 꽃가게-女行花家	소자본 대출	

일있는 서울의 사업 내용을 다시 취업계층과 비취업계층을 나누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표로 정리될 수 있다. 표를 보면 비취업여성에 대한 교육과 기타 지원이 사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창업)여성의 지원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의 분야는 전
무하고 취업/창업 지원 또한 여성기업인을 위한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일하는 환경을 위해서는 물론 아직 취업하지 않는 여성
들을 위한 사업이 우선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취업중인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 또한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표-13 】 취업/비취업별 지원 내용

구분	취/창업 교육	취업/창업 기타 지원
취업(창업)	-	SBA 여성기업 지원제도 운영 여성기업인 지식도우미 서비스, 취득세 신고 여성납세자 지원 서비스
비취업(창업)	맘프리너 창업스쿨 여성창업지원, 실버케어 여성직업 교육훈련 확대, 맞춤형 여성직업 교육훈련 확대, 결혼이주여성 패션기술교육	여성직업 훈련생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일자리갖기 지원프로젝트 개선, 유관기관 연계 창업지원 강화, W-Gold Job 주식회사, 여성이 행복한 꽃가게-女幸花家

일있는 서울 사업의 방식 분석

일있는 서울의 취업·창업 교육사업의 4개 사업 모두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취업/창업 교육 외 기타 지원 사업은 8개의 사업 중 2개의 사업이 마이크로 크레
딧 형태로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물적 지원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6개의 사업이 보육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형태도 진행되었다. 일하는 서울의 12개 사업 중 10개의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전체사업의 83%를 차지하였다.

■ 표-14 ■ 일있는 서울 사업의 방식

분류	구분	인프라 구축	인적 지원	물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취업/창업 교육(4)	사업수	-	-	-	4
	분류내 빈도(%)	-	-	-	100
취업/창업 기타 지원 (8)	사업수	-	-	2	6
	분류내 빈도(%)	-	-	25	75
합계	사업수 (12)	-	-	2	10
	전체 빈도(%)	0	-	17	83

(3) 문제점 및 발전방안

일있는 서울의 12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로 사업 대상의 과도한 집중성이다. 이는 앞서 넉넉한 서울 영역에서도 제기된 문제로 일하는 서울 영역 역시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실제로 '3040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부 목표 아래 진행된 사업이고 이 밖에는 직접적으로 연령대와 혼인여부를 언급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살펴 보면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물론 결혼이나 출산(육아 및 보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30-40대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행프로젝트는 당초 30-40대 주부만이 아닌 도시 여성의 다양한 권리와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적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 또한 앞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와 함께 다양한 여성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교육 및 지원이 비취업(창업)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이미 일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일부 여성기업가에게 주는 제도적 지원이 전부이다. 물론 비취업(창업)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는 말을 아니다. 비취업(창업)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과 함께 이미 취업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한 여성들의 취업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등을 조사하여 그들의 정책수요

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다각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여성들에게 다른 직업이나 직종의 업무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현재의 비취업(창업)여성의 일자리 창출 뿐 만 아니라 현재 취업(창업) 여성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취업(창업)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비취업(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창업)교육을 보면 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 또한 매우 한정적이다. 실제로 ‘맘프리너 창업 스쿨’의 경우 교육기간이 5-7일로 매우 짧으며 수료생 또한 50명 내외로 적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실버케어 여성 직업훈련’ 역시 연간 훈련생이 120명에 지나지 않는다. 실버케어의 경우 결국 여성이 접근하기는 쉽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는 반대로 ‘돌봄’의 영역은 여성의 주된 역할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여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맞춤형 여성직업교육’의 경우 또한 수료생은 연간 7500명에 이르고 이 중 4500여명이 취업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취업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분석과 함께 평가 후 프로그램 수정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일하는 여성 전반에서 다문화 여성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문화여성과 여성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신체적 조건과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일자리 정책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에서도 이들을 위한 고려나 배려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이 처한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은 일반여성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계획할 때는 다문화여성이나 여성장애인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의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일회적인 혹은 근시안적인 개별 사업의 개발보다는 일하는 여성 정책에 이들의 사회적 상황과 정책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적 해안이 필요할 것이다.

3) 넉넉한 서울

(1) 사업내용

넉넉한 서울 사업은 총 12개(2009년 신규사업 포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15 】 넉넉한 서울 사업내용

세부영역	사업내용
여성친화 문화프로그램	창동극장 활용-예술과 함께 하는 브런치 콘서트, 서울문화 예술탐방 여성전용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친화적인 문화예술기회확대, 엄마와 함께 하는 Cooking Class, 여성행복더하기 천원의 행복,
여성의 정보화 (교육)	인터넷 방송 여성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 제작 운영, 시민사이버 정보화 교육 확대 운영, 여성 중심웹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터넷 방송 「아름다운 여성」주제 UCC 공모전, 맞춤형 여성정보 방 홈페이지 구축, 여성편의시설 정보마당 구축, 여행 평생교육 네트워크, SH 여행 사랑방

(2) 사업 분석

넉넉한 서울 사업의 여행 적합성 및 수혜자 고려 정도

【 표-16 】 넉넉한 서울 사업의 여행적합성 및 수혜자 특성

특성		사업수	빈도(%)
여행적합성	상	10	83.3
	중	2	16.7
	하	-	0.0
	계	12	100.0
연령	10대	-	0.0
	20대	-	0.0
	30-40대	4	33.3
	50대	-	-
	60대	-	-
	여성 일반	8	66.7
	계	12	100.0
취업 여부	취업여성	-	0.0
	비취업여성	5	41.7
	여성 일반	7	58.3
	계	12	100.0
혼인 여부	기혼여성	6	50.0
	여성 일반	6	50.0
	계	12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는 여성	2	16.7
	고려하지 않음	10	83.3
	계	12	100.0
다문화	다문화 여성	1	8.3
	고려하지 않음	11	91.7
	계	12	100.0
장애	장애여성	-	0.0
	고려하지 않음	12	100.0
	계	12	100.0

넉넉한 서울 분야의 12개 사업 중 여행적합성이 '상'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83.3%를 차지하고 있고 2개 사업은 '중'으로 나타났다. '중'으로 평가된 2개의 사업은 '여성가족친화적인 문화예술기회 확대'사업과 '시민사이버 정보화 교육 확대 운영'의 두 사업이다. 두 사업은 여성과 가족이라는 경계가 모호하여 그 수혜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점과 전체시민사이버 정보화 교육 사업 중 여성 관련 강좌를 일부 추가하는 등의 전체 사업에 부분적, 소극적으로 여성 관련 영역이 들어간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으로 평가되었다.

넉넉한 서울 분야의 12개 사업을 연령 변수로 살펴보면 30-40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4개 사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나 고려를 하지 않은 사업이 8개 사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창동극장 활용 예술과 함께 하는 브런치 콘서트'등의 문화향수충족을 위한 사업이 주로 30-40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 밖에 정보화 관련 사업 등은 연령에 대한 고려를 특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관련 사업의 경우 연령대별로 원하는 정보가 다르거나 배우고자 하는 정보교육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보화 관련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연령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사업 외에도 전체적인 넉넉한 서울 분야의 사업 전반적으로 연령 변수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고려해야할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취업여부 변수로 넉넉한 서울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비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체 12개 사업 중 5개 사업이고, 특별히 취업/비취업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58.3%를 차지한다. 비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30-40대, 기혼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 사업들이 대부분 평소 문화예술 분야를 접하지 못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사업이기 때문이다. 취업과 비취업의 여부에 따라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장소 및 시간대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하는 문화생활의 유형이 다르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전반적인 넉넉한 서울 분야의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취업여부 또한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혼인여부 변수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연령변수의 30-40대, 취업여부의 비취업 여성의 집단군과 대부분 일치한다. 넉넉한 서울 분야를 혼인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을 위한 사업이 6개, 결혼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6개로 50%를 차지했다. 기혼 여성을 위한 사업은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향수 충족 사업이고 결혼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대부분 정보화 교육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이다. 정보화 사업 중 정보방이나 정보마당 같은 웹 콘텐츠 사업 등은 기혼과 미혼 여성의 원하는 정보는 상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문화향수 충족 사업은 지나치게 기

혼여성에게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기혼여성이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것이라는 일차적인 전제에서 벗어나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각각의 생활패턴, 문화수요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에 대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녀유무 변수를 중심으로 넉넉한 서울을 분석해 보니 직접적으로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은 12개 사업 중 2개의 사업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였다. 10개의 사업은 자녀의 유무 변수를 특별하게 고려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자녀유무 변수 또한 넉넉한 서울 사업을 발전시키고 계획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생활을 원하는가 또는 혼자 혹은 친구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지 등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자녀유무에 따른 다양한 문화수요의 파악 후 각각의 2차적 문화수요를 단계적으로 파악하여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문화욕구를 가진 여성들이 여유롭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넉넉한 서울의 12개 사업 역시 다문화여성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계획하지도, 사업 전반에서 그들은 언급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문화예술탐방 여성전용 프로그램’에 이주노동자 및 제3세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 기행 프로그램이 일부 있으나 연 2회 정도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편이다. 또 여성장애인이 처한 신체적 조건과 사회적 상황이 달라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여성보다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관련 사업은 전무하다.

넉넉한 서울 사업 내용 분석

■ 표-17 ■ 넉넉한 서울 사업 내용

분 류	사업수	빈도 (%)	사 업 내 용
문화향수 충족	6	50	창동극장 활용 예술과 함께 하는 브런치 콘서트, 서울문화 예술탐방 여성전용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친화적인 문화예술기회 확대, 엄마와 함께 하는 cooking class, 여성행복더하기 천원의 행복, SH 여행 사랑방
정보화	5	41.7	인터넷 방송 여성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 제작, 시민사이버 정보화 교육 확대 운영, 여성중심 웹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터넷 방송(UCC공모전), 맞춤형 여성 정보방 홈페이지 구축, 여성편의시설 정보마당 구축
교육 관련	1	8.3	여행 평생교육 네트워크

넉넉한 서울의 사업을 내용을 분석해보면 문화향수 증축, 정보화, 교육 관련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문화향수 증축 영역은 주로 서울문화 예술탐방 여성전용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직접적으로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체 12개 사업 중 50%를 차지한다. '여성정보방 홈페이지 구축' 등의 정보화 영역은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여행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 하나이다. 문화향수 증축 영역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일회적 행사이거나 시행빈도가 낮은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정보화 영역은 홈페이지구축, 정보마당 구축, 여성을 위한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의 웹-미디어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과 정보화 교육, 정보화 관련 제도화 등의 사업으로 나누어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다. 교육 관련 분야는 여행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으로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과 지역간 협력을 통한 여성 평생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신규사업 중 하나이다.

넉넉한 서울 사업의 방식 분석

넉넉한 서울의 12개 사업을 사업의 방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문화향수 증축 분야의 6개 사업은 대부분 프로그램(서비스)운영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보화 분야는 3개의 사업이 웹사이트 구축 등의 인프라 구축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2개의 사업은 정보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넉넉한 서울 12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8개 사업이 프로그램(서비스) 운영의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인프라 구축 등의 방법으로 4개 사업이 시행되었다.

■ 표-18 ■ 넉넉한 서울 사업의 방식

분류	구분	인프라 구축	인적 지원	물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문화향수 증축(6)	사업수	1	-	-	5
	분류내 빈도(%)	16.7	0	0	83.3
정보화 (5)	사업수	3	-	-	2
	분류내 빈도(%)	60	0	0	40
교육관련 (1)	사업수	-	-	-	1
	분류내 빈도(%)	0	0	0	100
합계	사업수 (23)	4	-	-	8
	전체 빈도(%)	33.3	0	0	66.7

(3) 문제점과 발전방안

넉넉한 서울 12개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로 사업의 대상 및 수혜자가 주부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문화향수 충족 부분이 더욱 심한데 대부분의 문화예술 체험 사업이 취업을 하지 않는 주부에 집중되어 있다. 넉넉한 서울의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에서 분석한 연령, 결혼여부, 자녀여부, 취업 여부 등의 다양한 변수의 여성들의 정책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취업중인 여성과 취업하지 않은 여성은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시간과 장소가 상이할 수 있다. 또 더 자세히 들어가면 자녀를 가진 여성들도 자녀와 함께 이러한 사업에 참가하고 싶은 여성들이 있을 수 있고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홀로 또는 또래집단과 문화예술을 접하고 싶은 여성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여성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현재의 넉넉한 서울 사업의 수가 매우 적고 종류 또한 다양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넉넉한 서울 사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성의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개발과 이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문화향수 충족 사업의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거나 사업이 주기적(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실제로 '서울문화예술탐방 여성전용 프로그램'등에 참가한 여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상시적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문화 및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정보화 관련 사업의 경우 정보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보화 초기의 모델인 웹사이트 구축 등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다양한 여성들이 핸드폰 등의 최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령, 혼인여부, 취업여부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른 다양한 여성들의 지적 혹은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다른 영역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으로 '여성친화적인' '여성맞춤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여성친화' 및 '여성맞춤형'의 기준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친화적이거나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가치 정립과 세부적인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안전한 서울

(1) 사업내용

안전한 서울 사업은 총 16개(2009년 신규 사업 포함)이며 사업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19 ■ 안전한 서울 사업의 내용

세부영역	사업내용
도시설계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무장애 1등급 도시만들기 시범추진(문정업무지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사업(마곡지구)시범추진, 주부 프로슈머제도 실행,
도시안전	안전을 위한 조경설계기준 및 매뉴얼 제정·시행, 야간에도 여성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지하보차도 관리,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검침원 안심서비스, 외국인 여성쇼핑객을 위한 쇼핑안전가드 운영
도시환경	육아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정보 SMS 문자서비스 제공, 음식폐기물 배출처리방법 개선
여성건강	여성폭력피해자 무료진료지원, 폐경기 여성 건강 프로젝트, 여성건강증진타운 건립, 임산부 안심먹을거리 프로젝트, 여성결핵환자 희망 프로젝트

(2) 사업 분석

안전한 서울 사업의 여행 적합성 및 수혜자 고려 정도

표-20 | 안전한 서울 사업의 여행 적합성 및 수혜자 특성

특성	분류	사업수	빈도(%)
여행 적합성	상	8	50.0
	중	8	50.0
	하	-	0.0
	계	16	100.0
연령	10대	-	0.0
	20대	-	0.0
	30-40대	4	25
	50대	-	0.0
	60대	1	6.3
	여성 일반	11	68.7
	계	16	100.0
취업 여부	취업여성	-	0.0
	비취업여성	3	18.8
	여성 일반	13	81.2
	계	16	100.0
혼인 여부	기혼여성	3	18.8
	여성 일반	13	81.2
	계	16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는 여성	3	18.8
	고려하지 않음	13	81.2
	계	16	100.0
다문화	다문화 여성	-	0.0
	고려하지 않음	16	100.0
	계	16	100.0
장애	장애여성	-	0.0
	고려하지 않음	16	100.0
	계	16	100.0

안전한 서울 16개 사업 중 여행적합성이 '상'으로 평가된 8개 사업, '중'으로 평가된 사업이 8개였다. '중'으로 평가된 사업은 '여성'만을 위해 계획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뉴타운 건설 등의 도시개발 사업과 한정된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평가되는 '외국인 여성 쇼핑객을 위한 쇼핑안전가드 운영'등의 사업 등이다.

연령변수로 살펴보면 30-40대를 대상으로 사업이 4개 60대(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 1개였고 그 밖에 특별히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11개 사업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안전한 서울의 16개 사업을 취업여부 변수로 살펴보면 비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3개 사업이고 취업여부를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13개로 81.2%를 차지했다. 안전한 서울 영역은 주로 도시개발 및 안전, 건강과 도시 환경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비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분류된 3개의 사업 또한 명확하게 비취업여성만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보기 힘들다.

혼인여부 변수로 안전한 서울의 16개 사업을 분석해보면 기혼여성을 위한 사업이 4개이고 혼인여부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12개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기혼여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임신부나 육아여성,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들 수 있다.

안전한 서울을 자녀유무 변수로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2개 사업, 그 밖에 자녀유무 변수를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14개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여성의 자녀유무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서울 역시 다른 영역과 같이 다문화여성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개별사업이나 일반사업 내 특별한 고려나 배려가 없었다.

안전한 서울 사업 내용 분석

■ 표-21 ■ 안전한 서울 사업 내용

분류	사업수	빈도(%)	사업내용
도시 (안전)	9	56.3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무장애 1등급 도시만들기 추진,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사업 시범추진, 주부 프로슈머 시행, 안전을 위한 조경설계기준 및 매뉴얼 제정 시행, 야간에도 여성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지하보차도 관리,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건강 (환경)	7	43.7	음식폐기물 배출관리 방법 개선, 여성폭력피해자 무료진료 지원, 폐경기 여성 건강프로젝트, 여성건강증진타운 건립, 임신부안심먹을거리프로젝트, 여성 결핵환자 프로젝트

안전한 서울 사업 내용을 분석해보면 ‘도시(안전)’분야와 ‘건강(환경)’분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도시(안전) 분야가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등의 9개 사업이고 건강(환경)분야가 ‘여성건강증진타운 건립’등의 7개 사업이다. 도시(안전) 분야에서는 주로 도시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여성의 불편 해소와 수요 고려하는 사업과 지하보차도 관리, 여행 콜택시와 같이 여성의 안전한 이동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환경)

분야는 임신부, 육아여성들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 등의 '모성보호'차원에서의 사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여성폭력피해자, 폐경기 여성, 여성 결핵환자 등과 같은 특정 계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표-22 ■ 도시(안전)의 내용

세부 내용	사업수
도시계획 및 설계	3
평가 및 평가도구 마련	2
여성 이동성 보장	2

■ 표-23 ■ 건강(환경)의 내용

세부 내용	사업수
모성보호	2
특정계층의 건강 보호 및 지원	3
일반여성 건강	1
환경 관련	1

안전한 서울 사업의 방식 분석

안전한 서울 16개의 사업을 사업방식에 따라 분석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도시(안전)분야에서는 인프라 구축의 방식이 5개, 프로그램(서비스) 운영의 방식이 4개로 나타났다. 건강(환경)분야에서는 전체 7개 중 6개의 사업이 프로그램(서비스)운영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1개의 사업만이 인프라 구축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표-24 ■ 안전한 서울 사업 방식

분류	구분	인프라 구축	인적 지원	물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도시 (안전) (9)	사업수	5	-	-	4
	분류내 빈도(%)	56	0	0	44
건강 (환경) (7)	사업수	1	-	-	6
	분류내 빈도(%)	14	0	0	86
합계	사업수 (16)	6	-	-	10
	전체 빈도(%)	38	0	0	62

(3) 문제점과 발전방안

안전한 서울을 16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로 안전한 서울은 다른 영역에 비해 여행적합성의 점수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안전한 서울 대부분의 사업이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관련 사업으로 사업의 대상 및 수혜자가 ‘여성’이라기 보다는 ‘일반시민’에 가깝기 때문이다. 안전한 서울 영역 역시 ‘여성친화적’이라는 단어를 사업명에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 안전한 서울 사업이 여행프로젝트에 좀 더 적합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안전’영역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 공간으로 분류되는 공원, 지하철, 대중교통 등의 공간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안전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원의 난간을 낮춘다거나 버스의 손잡이 등을 교체하는 등의 시설적 측면의 보완과 함께 공공 공간에서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의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물리적인 공간의 안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생활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폭력을 문제는 다수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여성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야간시간 내의 보행 시 느낄 수 있는 폭력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폭력 또는 두려움은 물리적 공간을 소위 ‘여성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이러한 다양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시급하다. 세 번째로 여성의 건강 문제를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에서 여성건강에 대한 사업이 대부분 모성보호 측면에서의 여성건강과 특정계층에 대한 건강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강조한 부분은 여성 ‘본인’의 건강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타인의 건강을 ‘돌보는 여성’이다. 직장 ‘여성 본인’의 건강에 대한 사업은 소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건강 문제 또한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를 가진다. 다양한 여성의 건강에 대한 정책 수요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과 더불어 가정 내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관리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신 건강 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 편리한 서울

(1) 사업내용

편리한 서울 사업은 27개 사업(2009년 신규사업 포함)이며 사업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25 ■ 편리한 서울 사업의 내용

세부영역	사업내용
여성 편의시설	여성화장실 시설 개선, 여성을 배려한 주차장 설치
보도	보행편의 개선 위한 보도정비 추진
공공시설	공원시설의 여성친화적 업그레이드,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 개선, 공공시설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 서비스 제공, 여성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건축공간 환경개선 통합기준안 시행, 여행 Water Park, 여행공원, 여행과 함께 하는 문정 썬큰 가든, 여행동대문 디자인 플라자&파크, 여
민간	여행아파트, 백화점·대형마트 여성편의시설 개선, 건축물 및 시설물 여성편의시설 개선
법.제도 개선	여성친화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규정 보완
점검 및 평가	시민 불편살피미 반영, 여성불편민원 다산패트를 현장 확인 강화
대중교통 (이동)	시내버스 및 전동차 손잡이 개선, 교통시설물의 여성 등 교통약자 배려사업 추진, 유모차 개찰구 이용편의 증진, 여행승요차 요일제, 여행버스, 여행자동차 운정교실 운영, 지하철 여성 보행환경 개선

(2) 사업 분석

편리한 서울 사업의 여행 적합성 및 수혜자 고려 정도

표-26 편리한 서울 사업의 여행적합성 및 수혜자 특성

특성	분류	사업수	빈도(%)
여행적합성	상	23	85.2
	중	4	14.8
	하	-	0.0
	계	27	100.0
연령	10대	-	0.0
	20대	-	0.0
	30-40대	7	25.9
	50대	-	0.0
	60대	-	0.0
	여성 일반	20	74.1
	계	27	100.0
취업여부	취업여성	-	0.0
	비취업여성	-	0.0
	여성 일반	27	100.0
	계	27	100.0
혼인여부	기혼여성	7	25.9
	여성 일반	20	74.1
	계	27	100.0
자녀유무	자녀 있는 여성	7	25.9
	고려하지 않음	20	74.1
	계	27	100.0
다문화	다문화 여성	-	0.0
	고려하지 않음	27	100.0
	계	27	100.0
장애	장애여성	-	0.0
	고려하지 않음	27	100.0
	계	27	100.0

편리한 서울 27개 사업 중 대다수의 사업이 여행적합성이 '상'으로 평가되었다. 여행적합성 '중'으로 평가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2009년 신규사업인 '여행 Water Park'와 '여행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등이다. 이 4개의 사업은 사업의 대상과 대다수의 수혜자를 '여성'으로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중'으로 평가하였다.

27개 사업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30-40대를 위한 사업이 7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25.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개 사업은 연령을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여부로 분석하면 27개 사업 모두 취업여부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 변수로 살펴보면 7개 사업이 혼인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고려한 사업이었고 나머지 20개의 사업이 혼인여부 부분을 특별하게 언급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7개의 사업은 앞의 연령별 분석에서 30-40대 여성을 위한 사업과 대부분 일치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내용은 공공시설의 유모차 대여나 유모차 통행을 편리하게 하는 시설물 보완 등이다.

편리한 서울 27개의 사업을 자녀유무 변수로 분석해보면 전체 사업 중 7개 사업이 자녀가 있는 여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전체의 25.9% 차지했으며 나머지 20개 사업은 자녀유무를 특별히 언급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7개의 사업은 앞의 30-40대 결혼을 한 여성의 사업과 일치한다.

편리한 서울 사업 내용 분석

【 표-27 】 편리한 서울 사업 내용

분류	사업수	빈도(%)	사업내용
주거 및 민간영역	4	15	건축공간 환경개선 통합기준안 시행, 여행아파트, 백화점·대형마트 여성편의시설 개선, 건축물 및 시설물 여성편의시설 개선
대중교통 (이동)	7	26	보행편의 개선 위한 보도정비 추진, 시내버스 및 전동차 손잡이 개선, 교통시설물의 여성 등 교통약자 배려사업, 여행승용차 요일제, 여행버스, 여성자동차 운전교실 운영, 지하철 여성 보행환경 개선
공공 편의 시설	7	26	여성화장실 개선, 여성을 배려한 주차장 설치,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 개선, 공공시설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 서비스, 여성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유모차 개찰구 이용편의 증진
공공 문화 시설	6	22	공원시설의 여성친화적 업그레이드, 문화시설 등 여성편의시설 개선, 여행 Water Park, 여행 공원, 여행과 함께 하는 문정 썬큰 가든, 여행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파크
법·제도 개선/ 점검 및 평가	3	11	여성친화 도시구현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규정 보완, 시민 불편살피미 반영, 여성불편민원 다산패트를 현장 확인 강화

편리한 서울 사업은 주거, 대중교통(이동), 공공편의시설, 공공문화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거에 관련한 사업이 4개, 대중교통(이동)에 관한 사업이 7개, 공공편의시설에 관련한 사업이 7개, 공공문화시설에 관한 사업이 6개로 사업의 전체 사업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법제도 개선 및 점검 평가 측면의 사업은 3개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 및 민간영역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개의 사업 중 2개의 사업이 여성친화적 건축 관련 가이드 라인 등의 정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가이드 라인의 정립만으로 주거 부분의 편리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표-28 ■ 주거의 내용

세부내용	사업수
관련 가이드 라인 마련	2
시설물 개선	2

또한 공공편의시설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 유모차를 대여하거나 유모차의 통행을 편리하게 하거나 자녀와의 동행을 편리하게 하는 사업인 것을 알 수 있다.

■ 표-29 ■ 공공편의시설의 내용

세부내용	사업수
자녀(유모차)와의 동행 편리 도모	6
일반 여성 공공시설 이용 편리	1

공공문화시설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의 공공편의시설의 사업 내용과 유사하게 자녀와의 동행을 편리하게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 밖의 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 시행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 표-30 ■ 공공문화시설의 내용

세부내용	사업수
자녀(유모차)와의 동행 편리 도모	2
일반적인 문화/여가 시설 이용의 편리	4

편리한 서울 사업의 방식 분석

■ 표-31 ■ 편리한 서울 사업의 방식

분 류	구 분	인프라 구축	인적 지원	물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주거 및 민간영역 (4)	사업수	4	-	-	-
	분류내 빈도(%)	100	0	0	0
대중교통 (이동) (7)	사업수	4	-	-	3
	분류내 빈도(%)		0	0	
공공 편의 시설 (7)	사업수	7	-	-	-
	분류내 빈도(%)	100	0	0	0
공공문화 시설 (6)	사업수	6	-	-	-
	분류내 빈도(%)	100	0	0	0
법제도개선/ 점검 및 평가 (3)	사업수	3			
	분류내 빈도(%)	100			
합계	사업수 (27)	24	-	-	3
	전체 빈도(%)	89	0	0	11

편리한 서울 영역을 사업의 방식으로 분석해 보면 먼저 주거 및 민간 영역은 관련 제도 및 가이드 라인 정립, 시설물 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의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분야는 인프라구축의 방법이 4개, 프로그램(서비스) 운영의 방식으로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편의시설은 7개의 모든 사업이 인프라 구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공공문화시설은 6개 사업 모두 인프라 구축의 방식으로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다. 법제도 개선/ 점검 및 평가의 영역은 3개 사업 모두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의 방법으로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3) 문제점과 발전방안

편리한 서울 27개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 번째로 2009년 신규사업이 다수 포함된 관계로 사업의 대상이나 목표가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이 다수였다. 이는 자칫 기존의 사업에 '여행'이라는 단어만 붙인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이 주거, 공공시설, 문화시설, 교통 등의 분야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여 알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두 번째로 편리한 서울 대부분의 사업들이 30-40대, 결혼한, 아이가 있는 여성들의 '자녀를 동반할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계획되었다. 공공시설 및 공공문화시설 대부분의 사업들이 유모차를 대여해주거나 유모차 통행에 편리한 시설로 보완하는 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여성들이 도시에서 편리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면한 사회적 상황이 다른 여성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제적 수준, 취업의 유무, 자녀의 유무, 연령대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 이용할 시 불편한 점 등은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여성들의 정책 수요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업의 시행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이자 사업의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다문화여성 및 장애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를 한 사업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문화여성이나 장애여성은 그들이 처해있는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 일반여성들과는 다르다. 이러한 상황이 앞에서 언급한 여러 시설이나 교통(이동)수단에 접근하기에 일반여성보다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고려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보통 시설물 이용이나 교통이용의 약자를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으로 통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다문화여성이나 장애를 가진 여성이 가지는 특수한 불편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세부적인 불편을 찾아내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네 번째로 편리한 서울의 대다수의 사업이 하드웨어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편리한 서울의 대다수의 사업은 시설에 유모차를 배치하고 유모차가 다니기 편하게 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자칫 모든 시설에 유모차를 배치하고 유모차가 다니게 편하게 하면 '여성친화적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이동하고 다양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측면의 인프라 배치와 함께 그러한 하드웨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1) 여행프로젝트 수혜자 특성

여행프로젝트의 수혜자 특성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첫 번째로 연령 변수로 보면 총 90개의 사업 중 42개의 사업이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나머지 57개 사업은 연령을 특별히 언급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다. 30-40대 여성을 위한 사업은 다섯 영역 모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특히 돌보는 서울 영역은 23개 사업 중 17개 사업이 30-40대 여성을 위한 사업은 그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다. 돌보는 서울 영역에 자녀의 양육과 보육에 관련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령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취업여부 측면에서 살펴보면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8개, 비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18개, 취업여부를 특별히 언급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64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의 유무가 특히 중요한 변수로 해석되는 영역은 일하는 서울 영역으로 12개 사업 모두 대상자를 취업자 또는 비취업자로 나누어 사업을 계획·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돌보는 서울 영역에서도 취업유무에 따른 사업을 일부 계획하고 있으나 그 밖의 다른 영역의 사업에서는 취업유무 변수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혼인여부 변수로 여행프로젝트의 전체 사업을 분석해보면 기혼여성을 위한 사업이 42개, 혼인여부를 특별히 언급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48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을 위한 사업은 30-40대, 자녀가 있는 여성을 위한 사업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네 번째로 자녀유무 변수로 여행프로젝트를 분석해 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을 위한 사업이 34개, 자녀유무가 사업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특별히 영향을 끼치지 않은 사업이 54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돌보는 영역 사업 대부분과 편리한 영역의 일부 사업은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이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여성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나 이들을 특별히 고려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다문화여성을 위하거나 고려한 사업이 6개 사업, 여성장애인을 고려한 사업이 3개 사업으로 전체 90개 사업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었다.

표-32 | 여행프로젝트 수혜자 특성

특성	분류	사업수	빈도
연령	10대	-	0
	20대	-	0
	30-40대	38	42
	50대	-	0
	60대	1	1
	고려하지 않음	51	57
	계	90	100
취업여부	취업여성	8	9
	비취업여성	18	20
	고려하지 않음	64	71
	계	90	100
혼인여부	기혼여성	42	47
	여성일반	48	53
	계	90	100
자녀유무	자녀있는 여성	34	38
	모두 고려	2	2
	고려하지 않음	54	60
	계	90	100
다문화	다문화 여성	6	7
	고려하지 않음	84	93
	계	90	100
장애	장애여성	3	3
	고려하지 않음	87	97
	계	90	100

2) 여행프로젝트 각 영역의 쟁점

여행프로젝트의 각 영역별 쟁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대체적으로 전 영역에서 사업 대상의 지나친 집중 문제와 다문화여성과 장애여성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돌보는 영역에서는 돌봄의 영역 중 '자녀돌봄'의 사업으로 치중되었으므로 자녀돌봄과 함께 노인돌봄 및 사회적 돌봄에 관련한 사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서울 영역에서는 이미 취업한 여성들에 대한 사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취업의 형태에 따라 직업보수교육이나 이직준비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넉넉한 서울 영역에서는 사업의 일회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도시 여성이 문화 및 예술을 자유롭게 접하고 문화예술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서울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여행적합성이 낮았다. 이는 ‘여성’만을 또는 ‘여성대다수’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기 보다는 일반 도시 거주자들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물리적 공간의 안전에만 치중한 경향을 보여 가정 내, 직장 내 여성의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여성건강적 측면에서도 신체건강과 함께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편리한 서울 영역에서는 2009년 신규 사업이 다수 포함된 이유로 사업의 내용이 다른 영역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성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배치 및 관리와 함께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사업 개발 또한 시급하다 하겠다.

【 표-33 】 여행프로젝트 각 영역의 쟁점

영역	쟁점
돌보는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계층에 사업이 지나치게 집중 (30-40대, 기혼의, 자녀가 있는 여성) - 돌봄 영역 분야에서 ‘자녀돌봄’의 영역에 집중 - 다문화여성 및 장애여성에 대한 배려 부족 - 소외여성의 대상이 한정적임.
일하는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계층에 사업이 집중됨(30-40대 주부, 대부분의 사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임) - 기취업 여성을 위한 사업 전무(취업의 형태에 따른 사업 개발 필요) - 취업(창업)교육의 수도 적고 수준도 초기수준에 머물러 있음 - 다문화 여성 및 장애여성에 대한 배려 부족
넉넉한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의 집중: 대부분 주부 - 사업이 일회적 성격이 강함 - 정보화사업의 경우 초기 사업의 모델만을 고수 - 여성친화/여성맞춤 등의 개념 및 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안전한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영역에 비해 여행적합성의 점수가 낮음 - 물리적인 공간의 안전에만 치중됨(직장내, 가정내 폭력 등의 문제 배제됨) - 모성보호 차원의 여성건강만을 강조, 정신적 건강 부분 배제
편리한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함 - 30-40대, 결혼한, 아이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다수 - 다문화여성 및 장애여성에 대한 배려 부족 - 시설적(하드웨어)적 측면에 강조, 소프트웨어측면의 프로그램 등 개발 필요

3)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방식

여행프로젝트를 사업의 방식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사업의 방식은 인프라 구축, 인적지원, 물적지원, 프로그램(서비스)지원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먼저 프로그램(서비스)운영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수는 40개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었다. 뒤를 이어 인프라 구축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39개 43%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밖에 인적지원의 방식이 7개 사업, 물적지원이 4개 사업 순이었다.

■ 표-34 ■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방식

구분	인프라	인적지원	물적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합계
사업수	39	7	4	40	90
빈도(%)	43	8	5	44	100

4) 여행프로젝트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여행프로젝트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로 거의 모든 영역의 사업에서 다양한 여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다. 30-40대, 결혼을 한, 자녀가 있는 여성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그 밖에 사업들은 대부분 연령변수, 혼인여부변수, 자녀유무변수, 취업유무변수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도시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신체적 조건과 사회적 상황들을 가진 여성들이 거주한다. 그러므로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거주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그들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삶의 방식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여행 프로젝트 대부분의 사업이 다문화여성과 장애여성에 대한 배려에 인색하다. 다섯 가지 영역의 대부분의 사업은 다문화여성과 장애여성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업의 대상자 및 수혜자를 일반여성으로 인지하고 있다. 다문화여성은 일반여성과 다른 사회적 상황에 놓여져 있고, 장애여성은 일반여성과 다른 신체적 조건에 의해 정책 수혜에 많은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 또한 충분한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여성친화’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역 사업에서 ‘여성친화’, ‘여행’, ‘여성맞춤형’등의 단어를 무분별하게 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와 기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여성친화’가 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안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사업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닌 일회적인 시설물 설치나 일회적 사업으로 끝나고 있다. 물론 여성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인프라’구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제 역할을 해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리와 평가,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9-정책개발-014

여행(女幸) 프로젝트 정착을
위한 이론화 연구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조영미 · 장필화 · 백경재
발행일 2009년 11월
발행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 810. 5101(代)
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